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0월 17일(음력 9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649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우리도 열세 살이에요!" 9월 30일, 조계사 학생회의 13세 법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994년 현대불교와 함께 태어나 '참 불자'로 성장해가고 있는 이들처럼, 현대불교도 더 큰 도약과 성장을 통해 '참 언론'으로 다가갈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한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창간 13주년 특집 48면 발행 지면안내

A면
특집 사람이 희망이다
희망을 심는 단체 3選 ❷
현장에서 듣는 인재양성 이야기 ❸
장학금으로 보는 인재양성 현황 ❹
창간 13주년 축하 메시지 ❺
특집 신계사 불사 회향 ❼
해운대에서 뜨는 4대 도량 ❾
선지식 / 성원 스님 ⓬⓭
특집 대선, 선택이 미래다
특별기고 '불교와 정치' ⓯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불교 ⓰
미리보는 대불교계 공약 ⓲
B면
특집 해외르포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봉사현장 ❶❷
특집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현장 ❾
특집 문윤정의 실크로드 기행 ❿⓫
특집 내 아이 불자만들기 ⓬⓭

불교계 '인재불사' 팔 걷어야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없다'는 말이 불교의 고질적인 탄식이 된지 오래다. 일선 어린이집에선 "불자 보육교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 하고, 불교 NGO나 단체들도 실무자를 채용하는데 애를 먹는다. 불서를 영어 · 중국어 등으로 번역하거나 통역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대학을 졸업한 불자 학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취업 준비생 전 모(31, 경기도 여주시)씨는 현재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에 종교를 속이고 원서를 넣어 둔 상태. "개신교 기업에 채용된다면 응하겠냐"는 질문에 "나이가 많아 취업이 시급하므로 입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씨의 '신심(信心)'이 약하기 때문일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활동한 이 모씨는 졸업 후 불교계의 한 단체에서 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해당 단체에서 '1년 이내에는 채용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답변을 듣고 중국 유학을 선택했다. 단체 뿐 아니라 불교계 내에서 가장 인력 수급이 활발한 조계종 총무원 역시 정기 공채 대신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인 채용을 하고 있다.

인재양성 시스템 부재의 폐해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난다. 3년 전 불교오페라 '아미타불' 공연을 준비하던 주최 측은 불자 성악가를 구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음악인들을 섭외해야만 했다. 당시 공연에 참여했던 성악가 박성규씨는 "개신교에서는 대학 때부터 장래가 촉망되는 음악인을 발굴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관리하고, 졸업 후에는 교단이나 교회의 지휘자로 육성한다"고 말한다.

대불련 한승희 지도간사는 "매년 대불련 50여 개 지부에서 100~200여 명의 불자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을 교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불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이력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불교계 인력 채용 시 활용한다면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업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대불련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웃 종교의 경우는 어떨까? 개신교의 경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장학제도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중 ·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통합 교육기관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무료교육시설도 수백여 곳에 달한다. 일례로 개신교 인재양성 기관인 ㅅ학교는 2020년까지 △한국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갈 인력 10만명 양성 △국내외 1000개의 학습공동체 설립 △개신교 인재를 키울 교사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양성의 요람이라 할 대학은 이미 '개신교 천하'다. 국내 4년제 사립대 · 대학원대학 195곳 중 70여 곳이, 사립전문대 139곳 중 20여 곳이 개신교 재단이 설립한 곳이다.(2006년말 대학 정관 기준)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는 40여 곳이 소속돼 있다. 이렇게 배출된 인력은 교회나 개신교 단체, 개신교인이 운영하는 기업 등에 취직하게 된다.

물론 개신교식의 무조건적인 인력양성만이 해답은 아니다. 한 개신교 목사는 "개신교의 인력양성 시스템은 매우 뛰어나지만 한국 개신교 전체를 위해서라기보다 개별 교회나 교단을 위한 인력으로 키워진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며 "교회 · 교단의 틀을 넘어 개신교 전체를 위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은 바로 '인력 풀(Pool)'이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자 정보를 한데 모으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산하 불교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불교인재뱅크'가 그 예다. 2003년부터 여성불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하고 있는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인력풀 형성과 활용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한주영 사무국장은 "격년으로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해 불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리더십 강좌의 강사로 채용하거나 불교 언론 등에 필진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스스로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불교계로서도 훌륭한 인력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인력 양성에 있어 또 하나 놓쳐서는 안되는 흐름이 있다. 사회의 주요 인력으로 성장하는 오늘날 20~30대의 성향이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는 "중앙집권적인 교육과 훈육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방식"이라며 "개인주의 성향과 해체주의적 흐름에 발맞춰 인터넷을 통한 연대, 종교색을 배제한 순수한 지원, 종교성을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접근 등 새로운 방식의 인재양성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미얀마 사태 평화적 해결을"

WFB세계본부 결의문 채택

세계불교도우의회(WFB)가 미얀마사태와 관련해 군사정권의 승려 탄압 만행을 규탄하고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WFB세계본부는 10월 9일 WFB한국본부(회장 회정 · 진각종 통리원장) 주최로 경주 코모도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서 평화와 비폭력의 불교정신으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WFB세계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미얀마 군사정부는 소중한 불교재산 약탈과 많은 사람들을 투옥하고 폭력으로 인해 사상자를 냈다"며 "우리 전세계 불교도들은 미얀마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와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WFB세계본부는 또 미얀마 군사정부에 △수감자 석방 △국민들에 대한 강압적 행위 금지 △인권존중 △미얀마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 전세계 불교도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이 해결되길 바라며 전세계에 산재돼 있는 분쟁들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래불교와 불교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진각종 교육원장 경정 정사의 '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의 담론', WFB세계본부 집행위원 요시하루토마쯔 스님의 '평화에 대한 불교적 정신자원의 재고찰', WFB세계본부 오계파지 상임위원회 위원장 혜정 정사의 '현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할과 성과'에 대한 주제발표가 열렸다.

진각종 창종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호주, 태국, 일본,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 10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3-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 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스 : 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 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á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 BRASIL(브라질)
● Sao Paulo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01127-000-Brasil
TEL : (55-11) 3337-5291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각분야 교육 인프라 구축에 '올인'

사람이 희망이다
희망을 심는 단체 3選

인재 불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교계 단체들이 이제는 변하고 있다.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많은 교계 단체들이 다양한 교육과 장학금 지원, 인적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불교인재개발원과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사)불교아카데미, 불교환경연대의 최근 인재불사는 교계내에서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불교인재 개발원의 워크숍 장면


불교아카데미의 월례 특강.


불교환경연대의 빈그릇 운동.

불교 인재개발원

불교지도자 인적 네트워크 구성
분야별 '올해의 인재상' 제정도

불교 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그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곳이 바로 조계종 중앙신도회(이사장 김의정)다. 전국의 재가신도들을 결집하고 이들의 역량을 통해 한국 불교,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이 조계종 중앙신도회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 2006년 7월 13일 '불교인재개발원'을 설립했다. 재가불자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자 사회지도층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불교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적에서다.

허경만 前 국회부의장이 초대 이사장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원장을 맡아 불교인재개발원의 진두지휘를 맡았다. 공동발기인으로는 김의정 회장과 박윤흔 前 환경처 장관, 황경환 진양유조선대표를 비롯해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여했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불교지도자 인적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수행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양성 △불교와 사회 발전 회향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불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 인재를 찾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교인재개발원은 출범 후 생태교실, 간화선입문과정, 출가열반절 대중강좌, 청소년학교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어 매달 한 차례 정책포럼을 개최해 사회 현안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현안에 대한 불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올해의 인재상'을 제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인재를 개발, 육성하고 이들이 불교계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허경만 이사장은 "사회 전면에 노출되지 않은 불자들을 찾아 낼 생각"이라며 "그들을 조직화한 뒤 네트워크를 형성해 응집력을 강화한다면 불교계의 맨파워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불교인재개발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교인재뱅크' 구축. 사회 각계의 불교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칭)불교정보뱅크'의 한 콘텐츠를 차지할 '불교인재뱅크'에는 불자의 인적사항 등 세분화된 정보가 담긴다.

불자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발전 견인이라는 큰 목적을 위한 불교인재개발원은 더디지만 힘찬 행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불교 아카데미

계층별 전문포교인력 양성 주력
교계 최초 통합리더십 과정 운영

올해 5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사)불교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인재불사 비전 선언식이다. 이 자리에서 2대 이사장에 취임한 전우희 이사장(58, 가온감정평가법인 이사)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불교아카데미의 '2010 인재불사 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인재불사 계획을 제시했다.

'2010 인재불사 비전'에 따르면 2008년까지 불교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전문가 3인씩을 육성하고, 각 종단별 교육 종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포럼을 창립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재가불자교육커리큘럼개발, 응용불교컨텐츠개발 등이 진행된다.

또한 2010년 방송교육대학 설립을 목표로 내년에는 '방송교육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기초 작업을 추진한다. 사찰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사찰 설립 매뉴얼 제작 및 사찰건축불사 모델과 사찰신도회 NGO활용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계분석에 의한 타깃대상(강남지역, 전문가군, 전문기관 등)의 전문포교인력양성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참여불교리더스 포럼을 만들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특강을 연다.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 김재영 법사 박범훈 중앙대 총장, 산악인 엄홍길 등이 강단에 섰다. 11월 6일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12월 4일에는 김홍신 前 국회의원 등이 초청 강사로 나선다.

불교지도자 및 불자들에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사상과 이론, 대안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교 본연의 상생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연중 진행된다. (사)불교아카데미는 불교계 최초 통합리더십 과정 '마이 리더스 클럽'도 운영한다.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을 주제로 불교와 리더십, 경영을 접목한 이 프로그램은 내면의 성찰과 나눔의 정신을 기반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시대언어로 재조명하는데 역점을 뒀다. 계층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계의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불교아카데미는 주먹구구식 사찰 운영에서 벗어나도록 사찰 주지 및 실 · 국장, 관리자급 재가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자 과정과 불교실무인력 양성 인턴십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 환경연대

불교환경 우수 논문 장학금 수여
환경전문 자원 봉사자 양성 예정

지난해부터 불교환경연대는 사업 비중에 인재불사 양성 교육과 선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은 환경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더불어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전문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환경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갈 미래의 동량들인 환경관련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인재 발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구기금 지원책이다. 불교환경과 생태문제에 관심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을 위해 10명 내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3000만원 내외의 연구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인재불사사업은 불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한 연구기금 지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환경과 생태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불자들을 독려하고 육성해 불교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안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복안에서다. 연구 주제도 △불교와 환경 △불교경전에 나타난 생태사상 △푸른 사찰 가꾸기 △환경 대안 연구 등이다. 올 9월에는 지원자들중 우수 연구 논문을 선발해 연구장학생 2명, 환경관련학과생 6명, 환경활동가 4명 등 총 11명에게 2000만원의 불교환경 장학금을 수여 했다.

내달안으로 교계 최초의 환경전문 자원봉사단체인 '초록봉사단'도 창립할 예정이다. 초록봉사단은 △불교환경일꾼 네트워크 구축 △불교와 지역 · 시민사회 소통 채널 △불교환경연대 성장 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팀장교육,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환경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5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로 지정받아 초록봉사대원은 활동실적이 전산 관리되며,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해 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4월 25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제1기 불교환경 자원봉사자 기본교육'도 실시했다.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환경인재 불사에 치중해 인력 양성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조직 구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울산지사 : (052)272-0909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초청 고승

법사
월운 큰스님 봉선사 조실

정진수좌
태응 큰스님 지리산 원각사 해동선원장
설정 큰스님 수덕사 덕숭총림 수좌
지하 큰스님 전 조계종 종회의장
월탄 큰스님 청주 용화사 주지
혜인 큰스님 약천사 회주
지선 큰스님 백양사 유나
산디마(미얀마) 한국 미얀마 선원장

선전 스님 정혜사 입승
무애 스님 수덕사 총무

- 제주 약천사 -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및 제주지역 태풍 나리 피해 수재민 위로공연

일시 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제주 약천사

행사 일정

제1부 23일 밤 예불 및 법문 (6시 30분 ~ 8시)
• 예불 / 정근
• 법문 / 월운 큰스님

제2부 23일 밤 수재민 위로공연 (8시 30분 ~ 10시 30분)
• 예술 공연단
• 영산회상 예술포교단 마술쇼, 오북공연 등
• 무심지보살
• 서귀포 만담꾼
• 특별출연 : 전원주, 선우용녀

제3부 23일 밤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 11시 : 정진 법문(수좌스님들)
• 12시 ~ 3시까지 철야용맹정진
(스님들과 참가 대중들이 모두 함께 큰법당에서 철야용맹정진 합니다.)

제4부 24일 새벽 천도재 및 회향
• 4시 ~ 6시까지 예불 및 천도재
• 집전 : 혜인 큰스님 및 영산회상 예술포교단

대한불교 조계종 極樂道場 藥泉寺
문의 064) 738-5000
www.yakchun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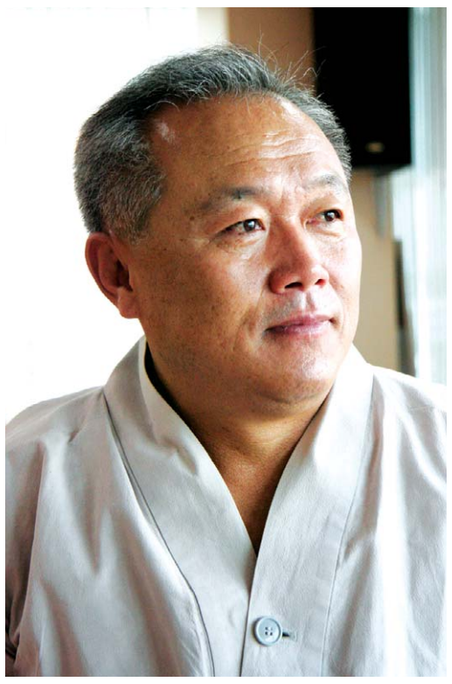
사람이 희망이다

현장에서 듣는 인재양성 이야기

'사람 키우는 일'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투입한 액수에 상응하는 물품을 배출하는 자판기와 달리, 사람에 대한 투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 유아 · 청소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다. 자아가 형성되고 인생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때가 청소년기이고, 이때 종교와 맺는 인연은 평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불자 양성에 앞장서는 불자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인재불사'에 대해 들어봤다.

"올바른 인성 갖춘 참인재 육성할 것"

■ 장명화 (사)우곡선원 선원장



"사랑이 충만한, 사람다운 사람의 심성을 가진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심성개발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워도 참다운 지혜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메마른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폭력문화가 범람하고, 핵가족 사회는 가족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다. 방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청소년들.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우곡선원을 이끌며 심성개발교육 활동으로 인재불사에 힘을 쏟고 있는 장명화 선원장. 청소년들의 인성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 장 선원장은 심성개발교육원을 설립하고 청소년 인성교육 전문수련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음동산 꾸미기'와 '청소년 인성정립' 등의 과정은 명상, 선, 호흡법, 마음열기, 참 나를 찾아서 등으로 인성 교육을 이끈다.

"물질만능의 사고가 팽배한 현대사회는 미래의 불행을 예감하게 합니다. 또한 인성교육마저 부재해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양산하고, 학습의 어려움과 집단따돌림, 폭력, 성문제 등 사회적인 병폐가 만연합니다. 이러한 때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스스로 자아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 미래의 주인공으로써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 선원장은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회향하기 위해 명상을 통한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중이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상법은 날숨 호흡 명상과 만다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돌아보며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호흡을 지켜보며 자신이 살아 있는 인간임을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또 집중력 훈련도 가능한 것이지요."

우곡선원 회원인 조미자 선생님은 사동초등학교 4학년 학급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교 영재 선발에 절반 이상 선정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순수함이 많이 남아 있어 프로그램의 이해도와 체득이 높고 성품이 안정됩니다. 또한 대인관계가 좋아지며 기억력이 증대되어 성적도 향상되고 자신감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장 선원장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 사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소년 인성교육 전문수련기관인 심성개발교육원은 현재 교원직무연수를 받은 현직 초 · 중등 교사들이 회원으로 입회 교육지도자회를 결성하고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먼저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기르고, 이들이 불교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성개발교육원은 '마음동산 꾸미기'와 '청소년 인성정립' 프로그램을 국가기관인 한국청소년진흥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음동산 꾸미기'는 부산 시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우곡선원에 와서 한 달에 한번 참가중이며 '청소년 인성정립' 프로그램은 각 학교에 방문해 학교 단위 별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06년에는 부산시내 청소년 1만 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청소년 총 2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장 선원장은 "학생들의 심성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은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참된 사회의 지도자이자 인재로 키워나가는 정도(正道)"라며 "불성(佛性)의 씨앗을 심는 심성개발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학생 눈높이 맞는 불교 수업 진행을"

■ 권진영 동대부여중 교법사



불교계 인재양성의 근간에는 종립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종립학교에 근무한지 14년 된 동대부여중 권진영 교법사. 처음 동국대부속고등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교법사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이기에 아이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불교가 현실적인 좋은 영향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부여해 줘야 불교적 인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박제화 된 종교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불교교육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권 교법사도 처음 부임했을 때는 부처님의 말씀, 불교 교리를 전달해 깨달음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 지식 전달에만 치중했다. 종교 교과서의 교법사용 지도서도 만들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다. "아이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였던 거죠.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신세대들에게 구식방법으로 불교를 이해하라고 강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교과서를 초월해 아이들에게 불교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 교법사의 고민이 시작됐다. 불교의 장점은 불교문화라는 생각에 아이들 교육에 불교문화를 접목시켰다. '사경'과 '사불'을 지도했더니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쉽게 집중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사경공모전'이 파라미타에서 시작됐고 벌써 10회를 맞이했다.

"불교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체험만 하다 보니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 부처님의 자비사상 등을 아이들에게 체득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불교는 교육원리를 다 가지고 있기에 마음의 평정, 직관적인 지혜가 어우러지는 수업방법을 찾아야 했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으로 '참선'을 개설했다. 참가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엄마가 시켜서' '담임선생님이 권해서'라며 수동적인 자세였다. "지금 이 순간 네 생각이 너의 전체 삶이라고 설명하면서 참선을 통해 내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권 교법사의 참선수업은 3시간 동안 20여 분만 참선을 하고 나머지는 불교를 통한 비전제시로 채워진다.

권진영 교법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사성제 팔정도 등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방법론을 현대적으로 개선해 불교하면 얻는 이익이나 영향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불교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불교의 교수방법론은 계정혜를 근간으로 이뤄집니다. 초등학생은 나쁜 짓 안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계'입니다. 중학생에게는 참선을 중심으로 수준에 맞는 명상법을 가르치며 마음의 평정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것은 '정'에 해당되지요.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의 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바로 '혜'입니다."

권 교법사는 계정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방법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신도교육 과정에도 반영해야만 불교적인 인재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산관리 전문가 우승택씨의 유식을 투자에 접목시킨 강의가 바로 '불교적 비전'이라는 권 교법사는 "불교와 현실을 회통시켰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기 내린 것만큼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청소년기에 접했던 불교가 지혜샘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불교적인 가피를 얻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면 중등교육에서 더 바랄게 없다"는 권진영 교법사의 자그마한 소망을 들으며 불교인재양성의 미래를 그려본다.

강지연 기자



‘배움의 뜻’ 있는 곳에 장학금 있다

금강대, 동국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등 교계 고등교육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얼마나 될까?

인지도가 부족한 금강대와 위덕대는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에 따라 수능성적 우수자 뿐 아니라 학생부 성적 우수 학생까지도 별도의 장학혜택을 준다.

금강대는 신입생 전원의 1년간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 해주는가 하면 등록금 혜택 외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더해주는 것 또한 특징이다. 동국대는 해외탐방장학 선발자에 대해 학비와 체제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해외탐방장학을, 위덕대는 토익성적 우수자가 해외 자매대학 유학시 체제경비를 지원하는 세계화장학 제도를 두어 글로벌화된 인재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불교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교에 따라 설립종단의 승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장학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승려 학인의 소임에 따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위덕대는 스승자녀장학이라 하여 진각종 스승 자녀에게 별도의 혜택을 준다. 재가학생은 군종법사후보생, 불교지도자육성장학, 불교미술장학 등 전공과 진로에 따른 장학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동국대는 건학 100주년의 사학답게 장학제도도 풍성하다. 최근에는 기업의 인센티브제를 적용한 강좌별 우수장학제도를 도입하여 매 강좌 담당교수에 의해 선정된 학생에게 20만원씩을 별도 지급한다.

교계 단체의 장학금은 특정대학의 장학기금과 제공되는 외부장학을 기준으로 20곳 정도가 있다. 일생을 <법화경>연구에 매진했던 故 미산 홍정식 박사의 유훈에 따른 미산장학금과 탄허불교재단의 보문장학금은 동국대



사람이 희망이다

☑ 장학금으로 보는 인재양성 현황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금전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은 여전히 많다. 각종 ‘장학금’은 이 같은 학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불교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50여 곳이 넘는다. 장학수혜자가 지역에 국한돼 있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활동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립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장학지원과 교계에서 활발하게 장학사업을 펼치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계 50여개 단체 장학사업 실시

東大 해외탐방 지원 등 혜택 풍성

불교대학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된다.

은정장학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故 정대 스님이 설립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지급한다. 청호장학은 불교 공익사업의 수행과 불교사상의 연구보급을 통한 불교복지사회 건립을 위해 설립된 청호불교문화원(회장 이종대)에서 4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성찬회장학은 탄허 · 만화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인 조계종성찬회(이사장 현해)에서 지급한다. 대한불교화엄종에서 종단의 재원을 출연하여 만든 화엄종장학회는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 뿐 아니라 서울대 등 타대학 우수인재, 지역 중 · 고교생에게도 지급된다.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과 학인스님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몇몇 스님과 후원단체의 뜻을 모아 발족한 두산장학회는 매년 15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는 미래의 사회지도자, 불교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고교생, 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 및 추천에 의해 100~150만원씩 향산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인의 고액 희사에 의한 대표적인 장학은 얼마 전 평생 바느질삯으로 모은 30억 상당의 재산을 동국대에 희사하여 설립한 백련심장학이 있다.

장학 목적이 아닌 교계 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는 불교환경연대의 불교환경장학금과 불교여성개발원의 불자여성인력장학금을 들 수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뭇 생명이 평화롭게 상생하는 청정세상을 가꾸어 갈 불교환경인재” 선발을 위해 대학생, 대학원생, 환경활동가를 대상으로 불교환경장학금을 지급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의 불자여성인력장학금은 불교여성의 역할과 지위 향상 연구자를 대상으로 금년 기준으로 연구자 1인에게 2000만원이 지급됐다.

기성세대에 지급되는 장학금으로는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의 불교소장학자 연구 및 번역 지원사업과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의 행원문화상이 있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우수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불교학 관련 번역 지원 △외국인 연구자 학위논문 지원 등의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행원문화재단은 매년 불교사상을 토대로 문학이나 예술, 불경 번역에 앞장선 불자들을 선정해 ‘역경상’ ‘문학상’ ‘예술상’을 시상하여 불교문화의 고양과 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학인스님과 불교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과 연구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불교계 단체

종류	지급처	구분	금액	자격
종립학교	중앙승가대	특 등급	100~120만원	수석입학 및 학년수석
		갑 등급	85만원	학과수석
		을 등급	65만원	학과차석 및 소임자
		병 등급	50만원	학년서기
	금강대학교	신입생장학	1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 면제	신입생
		전교수석입학자	4년간 등록금/기숙사비 면제+20만	수석입학자
		수능성적우수장학	4년간 등록금/기숙사비 면제+15만	수능성적2개영역 1등급자
		학부수석장학	4년간 등록금/기숙사비 면제+15만	학부수석입학생
		학업최우수장학	등록금 면제+20만	전공수석자
		금강리더쉽장학	등록금전액 70%~전액 면제	별도선발 기준
		공로장학	20~30만원	학생회 및 학교부속기관 활동자
	위덕대학교	지역인재육성장학	입학금 면제	2008학년도 입학등록자 전원
		학생부성적우수자	입학등록금 30%~전액	학생부 우수자
		수능성적우수자	4년간 등록금 30%~전액	수능우수자
		세계화장학	자매대학 체제경비 지원	TOEIC 성적 우수자
		종단스승장학	등록금 70%	진각종 스승
		불교성직자장학	등록금 50%	문광부 소속 교계 승려
		봉사장학	일정금액	학생회 활동자
		종비장학	등록금 전액 및 소요경비	진각종 종비생
		스승자녀장학	등록금 전액등록금	진각종 스승 자녀
		각인.대덕관장장학	등록금 일정액	불교학부중 성적 우수자
	동국대학교	전공수석	등록금 70%	전공수석자
		우수장학	등록금 30%	성적우수자
		복지장학	등록금 30%	가정형편곤란자
		총장장학	등록금 일부~전액20만원	학생회 활동자
		강좌별장학	20만원	강좌별 수석자
		해외탐방장학	학비+체제비보조	해외탐방장학 선발자
		종단추천	등록금 70%	조계종 재적승려
		종립학교 장학	등록금 70%	종립학교 출신자
		군종법사후보생	등록금 70%	군종법사후보생
		불교지도자육성장학	등록금 전액	입학우수자
		불교미술 장학	등록금 30%	불교미술 전공자 중 우수자
		백상원 장학	70만원	비구스님 총무
		혜광사 장학	70만원	비구니스님 총무
		기원학사 장학	70만원	기원학사 사생장
	동국대학교대학원	건학이념구현장학	등록금 65%	조계종 재적승려
장학기금	탄허문화재단	보문장학	60만원	불교대 재학생 중 추천자
	고 홍정식교수 유족	미산장학	70만원	불교대 재학생 중 추천자
	대한불교진흥원	예정	예정	불교대 50% / 타대학 50% 선발
	백련심 장학	백련심 장학	200만원	가정형편 및 불교신행활동 위주
	두산장학회	두산장학	등록금 전액	불교대 스님 1인
	홍경희 장학	홍경희 장학	200만원	불교신행활동 위주 3인
외부장학	조계종총무원	조계종총무원장 장학	200만원	서울 30명/경주 20명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은정장학	200~300만원	불교대 재학생 중 추천자
	청호불교문화원	청호불교문화장학	4년간 전액	법인선발
	백천장학재단	백천장학	종단지원 외 30% 추가지급	조계종 학인 스님
	조계종성찬회	성찬회장학	등록금 전액	매학기 10여명
	화엄종	화엄장학	100만원	불교대, 대학원생/일반 대학생
기타	정진장학회	정진장학	200만원(1200만원)	서울대, 경희대 등 가정형편곤란자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	역경상/문학상/예술상 등 3부문	신청 혹은 추천
	우리는 선우	향산장학	100~150만원	고교생, 대학, 대학원생
	불교환경연대	환경장학금	연구원500만 / 학부생,단체 100만	환경 관련 학부생 및 연구자, 단체
	불교여성개발원	불자여성인력장학금	2000만원	불자여성 연구원 1인

인재불사 ‘인식’ 보다 ‘실천’ 이 중요

장학단체 양적팽창 치우쳐…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

통계청에서 지난 7월 발표된 ‘2005 대한민국 종교별 인구 자료’에 따르면 불자의 수는 지난 10년간 3.9%(40만명)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카톨릭의 74.4%(220만명) 증가와 비교했을 때 참담하리만치 암울한 성적을 보면 포교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과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계의 포교사업은 법당 불사 등 양적팽창에만 치중해왔다.

장학사업을 진행 중인 수많은 단체와 후원자는 남들보다 먼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나선 이들이다.

행원문화재단의 주영운 이사장은 “불사라 하면 흔히들 대웅전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대웅전 불사만큼 중요한 불사는 불교계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공감한 곳은 행원문화재단 이외에도 대한불교진흥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975년 동국제강그룹 창업주 故 장경호 거사의 원력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에도 교계 각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근래 (주)민다무역(대표 이태화) 등 불자기업의 장학사업 추진이 활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태화 대표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독려하는 인재불사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장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한다.

인재불사는 학인스님을 비롯한 불교학 전공자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인식에서 조계종총무원에서 지급되는 총무원장 장학은 불교대학에 한정해 지급하다 현재는 전공에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인력풀을 운용할 계획이라 한다. 이외에도 향산장학, 화엄장학 등 전공을 불문하고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는 많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짧은 기간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시일이 지나면 두고두고 그 혜택을 본다. 이제는 공사기간 수년 안팎의 건축불사보다는 백년지대계의 인재불사에 앞장 설 때이다.

조동섭 기자

삼각산 도선사 창건 1136 주년 개산대재

제6회 청담문화제

풍요로운 가을의 향연 삼각산 도선사에서 만끽하시길…



〈중창조 청담대종사〉

귀의삼보하옵고,

불법과 천문, 지리의 심오한 이치를 통달한 도선 국사가 명산 승지를 두루 답사하다가 삼각산에 이르러 산세가 절묘하고 풍경이 청수한 이곳에서 천년 후 말세 불법이 재흥하리라 예견하고 도선사를 건립하셨습니다.

이후 삼각산 도선사는 역사화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면 많은 큰스님들이 도량을 외호하시어 수도 서울의 대표적 참회 및 관음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선사는 개산조 도선국사의 개산의 고매한 뜻을 잇고자 개산대재 및 청담문화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지 선묵 혜자 합장

주요행사일정

일시 : 11월 3일(음력 9월 24일) 토요일

"현대불교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 1부 : 다례재 (오전 10시)

■ 2부 : 산사음악회 (오후 2시)

사 회 – 머루다래

가 수 – 현철. 장미화. 한영주. 이솝

성악가 – 박정희 (경희대 음대교수)

합 창 – 실달학원 합창단


〈개산조 도선국사 진영〉

주최 :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관 : 청담장학문화재단 전화 : (02)993-3161~3

역경을 기회 삼아 새로운 도약 … "축하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선도 · 진리의 길 여는 언론

■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불법홍포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정진해온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불교는 지식정보화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이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내 마음과 하나로 존재하고 움직인다는 진리를 체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법안으로 세상 바라보는 '자비 언론' 되길

■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이 어느덧 올해로 13번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선 역경을 딛고 교계 언론의 정상에 우뚝 서 있음을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교계의 공정한 언론 더 나아가 부처님의 법안으로 바라보는 자비의 언론이 되어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언론이 될 줄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3년 전으로 돌아가 "어떠한 심정으로 펜을 들었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리고 싶었는지?"에 대한 깊은 반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불법홍포의 선두와 후미에 있는 '법우'

■ 정덕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창간 13주년을 맞이한 현대불교신문에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는 한국불교 질곡의 현대사와 함께 하면서 내부적인 역량과 외부적인 영향력을 겸비한 교계 대표적 언론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올 한해 폐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은 앞으로 현대불교가 가져갈 많은 영광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홍포의 가장 선두에서 그리고 후미에서 늘 마주치게 되는 법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독자의 한사람으로써 다시금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대부중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의 '약손'

■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현대불교는 그동안 사시(社是)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의 정론을 통한 불교언론 창달에 기여해 왔습니다. 교계와 사부대중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어루만지며 불교의 생활화에 앞장섰고, 수행과 교화의 생생한 현장 보도를 통해 불교의 현대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구촌 포교 현장에도 눈길을 돌려 불교의 세계화에도 함께 해 왔습니다.

현대불교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우리 불교 발전에 기여한 현대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현대불교의 희망찬 앞날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소년 바르게 이끄는 내용 많이 담아야

■ 도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그간 '현대불교'를 애독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바르게 전달되는 내용이 풍부한 신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분발해 불교정론지로서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획과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고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실어주길 바랍니다.

포교와 교계 언론의 지표를 열어간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자들 신행과 생활의 문화 신장에 일조

■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위한 현대불교의 역할은 불법홍포와 정론직필에 앞장 서온 결과일 것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바르고 신속하게 전달해 온 현대불교신문이 불교의 발전은 물론 불자들의 신행을 드높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문화를 더욱 신장하는데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언론이 지향하는 정론직필에 대한 소임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수행문화를 점검하고 아름다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언론과 개인, 단체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창간의 '초발심' 되새기며 정진을

■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현대불교는 불교의 수행, 신행, 문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부처님의 교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에 매주 연재되는 큰스님들의 법문은 독자들에게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큰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존폐의 위기에서도 꿋꿋히 직원들이 합심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 여법하게 신문을 발행하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창간 13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재발심해 창간을 준비하던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계속 분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 대응하는 '길' 제시

■ 일면 조계종 군종교구장



우선, 지난해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군종교구가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현대불교신문의 창립 13주년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그 변화의 한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변화에 인식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발전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불교문화의 바른 성장을 위해 현대불교와 같은 양질의 언론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불교가 불자의 권익옹호와 포교의 길을 넓히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희생·헌신·주인의식 지켜가는 열정 '감동적'

■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



언론포교의 대표신문 현대불교의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소식을 발굴하여 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현대불교의 기자여러분과 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해는 폐간 위기를 맞았다가 치열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정상괘도진입이라는 쾌거를 이룬 해이기에 창간 13주년을 맞는 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보여 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주인의식은 불교계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부중의 눈과 귀 역할로 등불되길

■ 회정 진각종 통리원장



현대불교신문사의 지난 13년은 부처님의 삶처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고행의 연속이었으며, 그 결과 이제는 미래지향적 한국불교의 저변을 성장시키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불교계에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처럼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사부대중의 올바른 눈과 귀가 되는 불교언론의 역할은 여느때보다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이러한 불교언론의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해가는 이 세상의 법등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정론직필' 사명감으로 '참된 불교' 지향해야

■ 수경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현대불교신문은 품격 높은 불교문화 창달과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며 불교 언론사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3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그리고 바르게 전법하여 불자님들의 올바른 불교신행을 위한 정론지 역할을 다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도 참된 불교를 지향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건전하고 밝은 사회 이룩하기 위해 더욱 정론정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움 딛고 더 발전적인 모습 보여주길

■ 양성홍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



지혜의 등불을 밝혀 불자들의 정진력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용기를 준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기치로 수행과 포교의 새 장을 개척했습니다. '새싹 불자를 키우자'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 등을 통해 포교취약계층에 대한 포교를 선도했습니다. 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계율수행대법회' 등을 통해 수행의 향기도 더했습니다. 특히 '붓다뉴스'를 통해 불교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지급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 본 종단은 청정계율의 율종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종과는 별개의 종단임 〉

◆ 원로원장 : 법종
◆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법종, 백공, 천광, 일봉, 해남, 봉산
◆ 부 종 정 : 혜일
◆ 종회의장 : 정봉
◆ 중앙율원장 : 성민
◆ 중앙선원장 : 도일

◆ 감찰원장 : 상산
감찰부장 : 지오
감찰국장 : 지호

◆ 교육원장 : 일봉
교육부장 : 봉선
교육국장 : 성덕

◆ 포교원장 : 정오
포교부장 : 정산
포교국장 : 묵현

◆ 호계원장 : 대풍
호법부장 : 태산
호법국장 : 다정

규정부장 : 월성
규정국장 : 영산

◆ 총무원장 : 혜인
총무부장 : 동산
재무부장 : 법정
교무부장 : 월곡
사회부장 : 자명
문화부장 : 지우
비구니부장 : 중비

부 원 장 : 지운
총무국장 : 도성
재무국장 : 대도
교무국장 : 진묵
사회국장 : 도홍
문화국장 : 효천
비구니국장 : 법련, 덕산

기획실장 : 정금옥(불이성)
총무과장 : 조일

⊙ 총림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천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종단 법인
– 학교법인 : 삼화학원
– 사단법인 : ① 본국검도 협회 ② 천지무예도 협회 ③ 행복한 사회
– 의료법인 : 효성
– 재단법인 : 가평 그린 공원
– 사회복지법인 : 정향

⊙ 삼화불교신문사
사 장 : 백공, 지호
발행인 : 혜인
이 사 : 정오, 동산, 혜원, 정산, 법련, 혜은, 각원, 덕산, 중비, 정금옥, 조일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남부교구 종무원장 : 상산
서울서부교구 종무원장 : 법선
서울북부교구 종무원장 : 정담
인 천 교 구 종무원장 : 혜정
부산중부교구 종무원장 : 정오
부산동부교구 종무원장 : 봉선
경기남부교구 종무원장 : 법정
대 구 교 구 종무원장 : 도오
울 산 교 구 종무원장 : 수덕
광 주 교 구 종무원장 : 광운
중국남경 종무원장 : 해산
강원교구 종무원장 : 광덕
충남교구 종무원장 : 무광
충북교구 종무원장 : 혜정
경남교구 종무원장 : 혜명
경북교구 종무원장 : 혜관
전남교구 종무원장 : 대성
전북교구 종무원장 : 정산
제주교구 종무원장 : 덕산
일본동경 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 종무원장 : 성산

★ 전국신도회
회 장 : 허 정석
고 문 : 김 윤주
부산신도회장 : 박 해식
강원신도회장 : 김 현재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해운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정금옥
운영이사 : 무불, 성산, 원명, 본각, 혜관, 도우, 일현, 정현, 법경, 탄공, 해남, 덕운,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도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도명, 성봉,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법신, 효경, 혜능, 도원, 대각, 지각

⊙ 삼화불교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일봉, 정수, 송암 성민
조 교 : 조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묵헌, 지원, 혜법, 혜묵,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선공, 도각, 동덕, 무량, 혜월,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도성, 진평, 보덕, 진제, 연각, 성묵, 덕송, 지해, 백운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 멘화, 혜인
부 총 장 : 윤경석
학생처장 : 손영진 겸임교수 : 신병용, 김병호
학생주임 : 이화목
조 교 : 손정, 주소리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511-2026, 2027, 3445-7375~6
FAX : 02-511-2028

인터넷 주소 삼화불교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종수사찰
奉恩寺

전화 : 02) 511-6070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홈페이지 : http://www.bongeunsa.org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개산 1213주년
선종수사찰 대한불교조계종 **봉 은 사**
주지 명진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三千寺·社會福祉法人 人德園

대표이사 서성운 합장

■ 인덕노인복지회관 : 관장 김승희 합장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장영철 합장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 관장 고재욱 합장
■ 노인전문요양원 호암마을 : 원장 김수년 합장
■ 응암청소년독서실 : 원장 김황옥 합장
■ 개나리 어린이집 : 원장 도미선 합장
■ 수색 어린이집 : 원장 나영희 합장
■ 법인 사무국장 : 이승찬 합장
■ 은평구립도서관 : 관장 엄무성 합장
■ 역촌노인복지센터 : 관장 서병진 합장
■ 인덕재가노인복지센터 : 원장 김지경 합장
■ 인덕 어린이집 : 원장 강순옥 합장
■ 불광 어린이집 : 원장 장현주 합장
■ 다솔 어린이집 : 원장 문경림 합장



www.indeocwon.or.kr

ARS 010-7000-747 한통화 3,000원
ARS 후원전화 한통이 외로운 노인들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488
전화 02)385-8205~6 / 삼천사 전화 02)353-3004 팩스 02)385-8207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 관
주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코끼리유치원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 지 허주 총 무 법 인
신도회장 황 복덕화 합창단장 정 환희장
봉사단장 문 청량심
부설 룸비니 유치원원장 도 능인행

대구시 남구 봉덕3동 1572
전화 053)653-1572

룸비니홈페이지 http://eunjeoksa.or/child/index.htm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ejs1572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 화 사
호계불교대학

주 지 덕 륜
포교사 평등각

호계불교대학
재학생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6
전화 052)293-5550 / 팩스 293-5540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9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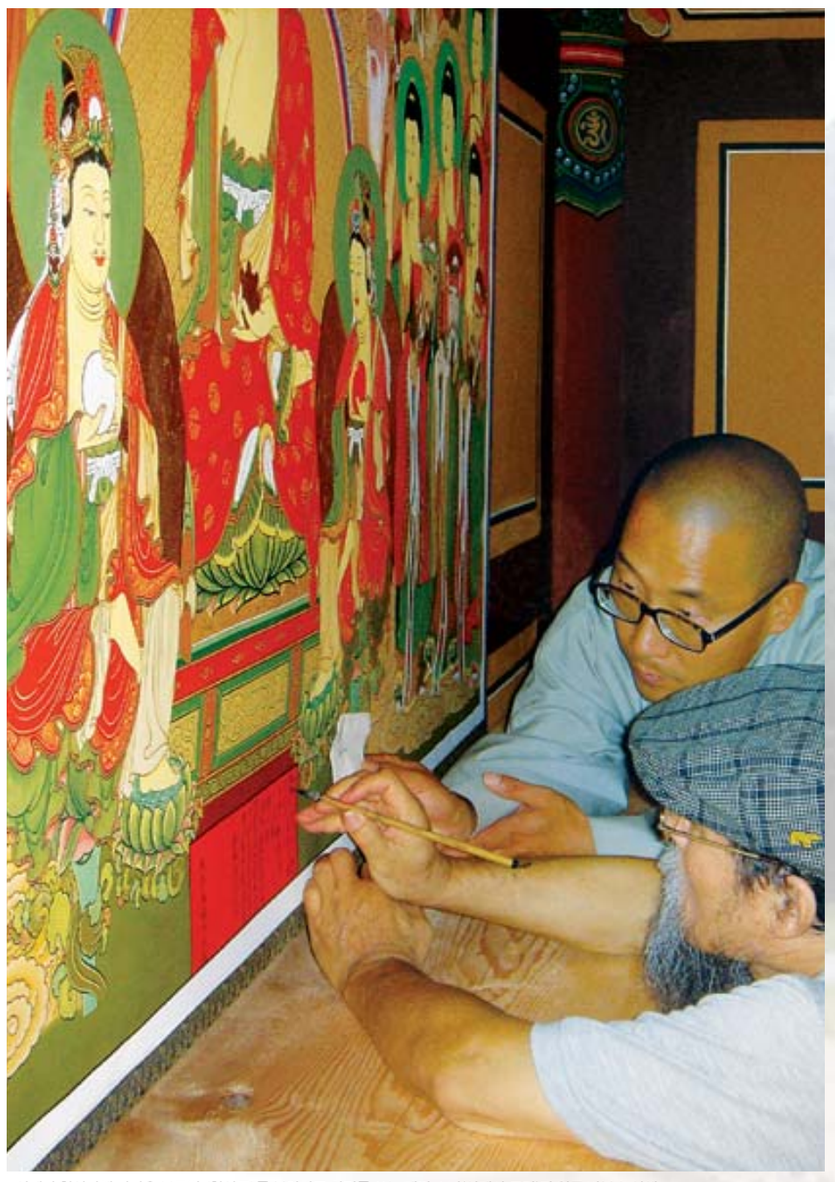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 법 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7년 10월 25일 ◆ 개강일시 : 2007년 10월 26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신계사 칠성각에 박갑용 불모의 '칠성도'를 봉안하고 화기를 쓰는 제정 스님(신계사 도감)과 월곡 박봉순 선생.

민족의 미래 '하나'로 묶는 위대한 불사

신계사 복원불사 회향, 그 큰 발걸음을 돌아보다

2004년부터 본격화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가 마무리됐다. 조계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공동으로 추진한 신계사 복원 불사는 남북 분단의 반세기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문화 사업으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남과 북의 불교도가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천년고찰을 복원했기 때문이다. 신계사의 복원은 이념으로 갈라선 단일 민족을 불심으로 결합시킨 쾌거다. 지난 4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 불사는 특별한 제동 없이 회향에 이르렀다.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슴 푸근한 미담도 많았고 눈물겨운 인연도 많았다. 남한의 장애우들이 비를 맞으며 신계사를 참배했고 팔순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적지 않은 불사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북한도 단청 등 기술자들을 파견해 전통을 있고 잇는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도량 장엄에 마음을 모았다. 그렇게 모아진 마음이 대웅보전 앞 삼층석탑을 다시 세웠고 한국전쟁 때 전소된 대웅보전을 비롯해 만세루 극락전 산신각 나한전 조사전 종각 칠성각 요사채 등 신계사의 도량이 새로운 면모로 금강산을 장엄했다.

10월 13일 복원불사 낙성식을 전후해 12~14일 사흘간 계속된 회향 법회는 우리 민족이 금강불심으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에 다름 아니었다. 역사적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회향을 맞아 이 불사에 동참한 불모 박갑용씨의 소감문을 통해 불사의 의미를 짚어 본다. 또 불사의 주요 장면들을 사진으로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2007년 9월 19일 외금강 온정각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두 가지를 새롭게 느꼈다. '이렇게 쉽게 북한 땅에 올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금강산에 온 이유가 정말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이었다. 멀리 우뚝 선 금강산의 풍경이 가슴을 뜨겁게 했고 푸른 동해를 머금은 바람이 온 몸을 쓰다듬으며 반기는 듯 했다.

다음날 신계사로 가는 길은 참으로 꿈길 같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경치는 경이롭고 신비하고 가슴 설레는 것뿐이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함. 신계사는 그런 도량이었다. 그러나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담은 불사의 현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에 더 빛났다. 이미 이 불사에 동참하고 이 도량을 다녀간 남한의 불자는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의 염원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다. 그래서 신계사와 신계사 복원불사는 위대한 역사의 기록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따로 없는 우주적 불사의 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떨리고 온 몸이 뜨거워졌다.

신계사는 이미 말끔했다. 계획했던 모든 전각들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갈하게 복원됐고 날아갈 듯 산뜻하게 장엄된 단청이 가을을 맞는 금강산과 어우러져 불국토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시대 사찰 단청을 대표하는 금단청(錦丹靑)의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들이 남과 북의 단청장들에 의해 저토록 아름답게 구현되었으니 금강산에 상주하는 법기보살의 넉넉한 자비가 온 세상에 퍼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불모(佛母). 남들로부터 이 이름을 듣는 것은 언제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30년 가까운 시간을 걸어 온 이 길에서 나는 적지 않은 환희로움을 경험했지만 신계사 칠성각에 칠성탱화를 봉안하는 순간만큼은 어느 순간보다 가슴이 벅찼다. 어디 나 뿐이었겠는가? 대웅보전에 '영산회상도'를 모신 석정 원로스님이나 나한전 극락전 지장전 등 전각마다 탱화나 닫집 등을 조각, 봉안한 불모들도 불보살상을 조성해 다 기쁘고 뜨거웠을 것이다.

나는 신계사에서 다시 태어났다. 신계사가 53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듯이. 이 불사에 동참한 소중한 인연이 나를 더 진중한 불모로 거듭나게 했다. 이 불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 지난 4년간 신계사를 다녀간 사람과 앞으로 신계사를 찾아 올 사람들까지 새로 태어날 것이다.

분단된 땅, 금단의 선을 넘어 온 남한 불자들의 원력으로 피폐한 도량을 조사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전각을 세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전각마다 단청을 장엄하고 불화를 모시고 본존불과 보살상을 봉안하는 일인들 어디 쉬운 인연이겠는가?

금강산 신계사의 복원 불사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하나'로 묶어 주는 귀하고 귀한 역사다. 그 현장은 가을을 맞아 울긋불긋 빛과 색의 잔치로 떠들썩할 것이니,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축하하는 잔치가 아니고 무엇일까?



박갑용(불광불교미술원장)

사진으로 보는 신계사(2004-2007)



신계사 복원공사 착공식(2004년 7월)



남북불교도합동법회(2005년 7월)



세계시인대회참가 시인들 참배(2005년 8월)



장애인들의 참배(2006년 4월)



단청공사(2006년 7월)



남북공동낙성식(2006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종본찰 봉선사 제13대 주지 진산식



모시는 글

대한불교조계종 교종본찰 봉선사에서는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제13대 주지 인묵스님 진산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봉선사는 교종본찰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과 아울러 교육·복지·포교를 통한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제13대 주지 진산식에 법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종본찰 봉선사 제13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장 정수 합장

▮일시_ 불기2551(2007)년 10월 20일(토) 오전 11시 ▮장소_ 봉선사 큰법당

1부 주지 진산식(오전 11시) 2부 축하공연(오후 1시 30분)

• 화환은 사절합니다. 대신 백미나 성금으로 보시하시면 남양주 문화복지과에 전달하여 지역 이웃돕기에 쓰겠습니다.
• 여비는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교종본찰 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 (우)473-864 ▮전화 : (031)527-1951~3(사무실), (031)527-1956(종무소) ▮전송 : (031)527-1958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종 정	지명 덕찬
총무원장	대은 덕우
감찰원장	덕성 행성
종회의장	해륜 행봉

대한불교조동종 종도 일동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도선사
전화 02)2091-0408 팩스 02)951-0480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풍경 여행사

대 표 황대은 (덕우)

이 사 이선행. 김능일. 송덕성. 정삼화
감 사 엄법화



중국 | 일본 | 미얀마 | 티벳 | 인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전화 02)936-6419. 080-234-0108 팩스 02)951-0480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봉 사단 법인 **한국미륵불교** 행

종 정 신법련

총무원장	강송봉	중앙선원장	차청강	문화원장	김법륜
종회의장	김만오	포교원장	김대력		

한국미륵불교 종도 일동

(사)한국미륵불교 총본산 대 무량사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하리 578번지 / 전화 055)672-4394

부산 해운대에서 뜨는 '4대 도량'

뉴타운 불교 '4박자' 포교 행진곡~

부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명소 해운대. 젊음의 열기와 화려한 축제로 기억되는 해운대가 불교 뉴타운으로 뜨고 있다.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상업과 문화 중심지로 떠오른 해운대에 전법 원력을 세운 스님들이 포교원을 속속 개원하고 각자의 노하우로 포교 일지를 풍성하게 쓰고 있다.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문화의 큰 마당 해운대는 뜨거운 학구열로 형성되는 최고의 학군과 각종 문화 이벤트로 번성가도를 달리고 있다. 길게 늘어서 있는 고급 아파트들은 해운대만의 특별한 자치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 '절은 산에 있다'는 편견을 무너뜨리고 선(禪), 교(敎), 청(淸), 봉(奉) 4박자의 포교 행진곡을 울리며 힘차게 질주하는 부처님의 도량들이 있다.

禪의 도량, 우곡선원

365일 주경야독 도량 80% 거사들로 구성
심성개발 프로그램 부산 교육청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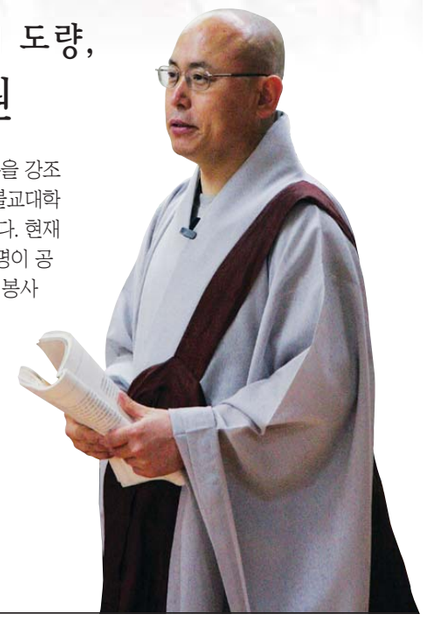


2000년 9월 장명화 선원장은 선(禪)의 일상화를 외치며 푸른 바다와 동백섬이 어우러져 시원한 풍광을 안고 있는 오션타워 19층에 '소가 머무는 골짜기' 우곡선원을 설립했다. 우곡(牛谷)이란 이름을 가진 이 선원은 철저한 주경야독의 도량이다. 선어록 강좌와 365일 쉬지 않는 정기법회와 야참법문 정진이 주요 메뉴다. 주경야독과 선어록 강좌를 통한 지(智)와 혜(慧)의 갈증 해소 덕분이었을까? 구성원들의 80%가 거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교육자들이 참여한다. 또 우곡선원은 참선 수행으로 공부한 지혜를 보시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참선교육, 교육자 직무연수 및 청소년 명상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급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명상교육(사진)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인증을 받았다.

우곡선원은 교원직무연수 및 직장 · 직능단체를 위한 심성개발교육과 참선수행, 명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우곡선원(www.zenkorea.org)과 우곡심성개발교육원(www.wookok.org)을 가동하고 있다. (051)740-6288

敎의 도량, 반야원

불교대학 개교 3년 만에 2천명 등록
현대인 생활 맞는 '교육' 전법에 큰 효과



2004년 11월에 해운대에 도심 포교의 기치를 걸고 문을 연 불교대학이 20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하는 쾌거를 이룬 해운대 범어사 포교원 반야원. "왜?"라는 질문에 이유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사진)의 포교 노하우다.

목종 스님은 "하늘을 찌르듯 높은 아파트처럼 지적 수준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아상(我相)이 높은 곳 일수록 참된 부처님의 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 목종 스님은 현대인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맞는 설명과 절 수행을 통해 겸손을 강조하며 포교를 이끌어 왔다. 물론 불교대학을 통한 교육불사가 제대로 통했다. 현재 반야원의 불교대학에서는 400여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무도와 봉사실천의 장을 자주 열어 더욱 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다.

목종 스님은 요즘 부산불교방송에서 월요법문을 진행 중이며 호스피스 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051)701-5655

淸의 도량, 부처님 마을

재정지원 위한 '삼보회' 가동 성공적
투명한 재무구조 신도들 '신뢰'의 기반



투명한 재정 운영은 도심 포교당의 기본이다. 이 기본이 흐려지면 포교도 수행도 성공할 수 없다. 무엇보다 초심자들이 대부분인 신도들이 투명하고 청정한 도량 운영에 동참할 때 포교와 수행이 무르익을 수 있는 것이다.

통도사 포교원 부처님 마을의 효범 스님(사진)은 해운대의 빼곡한 아파트 숲 속에서 청정한 도량으로 지역을 맑히고 있다. "도심의 중심에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포교의 뜻에 함께 마음을 모은 재정 지원팀 삼보회 회원 50여명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부족한 재정경영에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포교활동의 주역이며 동반자들입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은 효범 스님은 현재 불교의 불모지인 해운대 센텀시티 지역에 '제2의 부처님 마을' 불사를 추진 중이다.

부처님 마을 봉사단은 재송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에도 땀방울을 아끼지 않고 있다. (051)704-0332

奉의 도량, 정토회

100% 자원봉사로 뭉쳐진 실천 주역들
어르신 섬기고 환경 가꾸며 지역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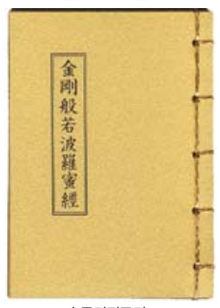
해운대 지역 포교 노하우 가운데 지역민들로부터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봉사'다. 지역 어르신들을 제대로 섬기고 그늘진 곳을 밝히는 봉사와 실천의 주역들, 100% 자원봉사로 지역 곳곳에 부처님의 향기를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해운대 정토회 회원들이다.

대부분 주부들이 모여 해외 긴급구호 지원 및 빈그릇 운동(사진), 북한 돕기 등을 추진하고 수많은 결실을 맺었다. 특히 여름이면 갖은 쓰레기로 더러워진 해운대를 맑히는 환경 운동을 펼치며 지역에 이바지 하고 있다. 정토회를 이끄는 해운대 정토회 총무 이문희씨는 부산 동래 정토회에서 활동하다 2004년 2월 해운대 정토회 개원 때 자리를 옮겨 와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051)747-9997

하성미 기자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밥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아름다운 바닷가어귀에 자리 잡은 관음성지 휴휴암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 기도드리고 묘한 일만 일어난다

푸른 동해바다위에 나투어 쉬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상주도량 관음성지휴휴암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 천일철야기도를 드리고 있다. 휴휴암을 다녀가고 기도와 불사에 동참한 불자님들의 기도축원문도 정성을 다하여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있다.

휴휴암은 몸도 쉬고 마음도쉬고 팔만사천무진번뇌 망상을 모두 놓고 쉬고 쉬라고 휴휴암이라 했더니 얼마나 좋으면 관세음보살님께서도 같이 쉬자고 누운채로 나투어 쉬고 계시는 신비한 도량 휴휴암에서는 매년 음력 9월 24일 관음재일날 수륙영가천도재를 드릴 때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애혼고혼은 물론 나로 인해 다치고 고통 받다가 죽은 사람이나 축생들과 미물들까지도 그 슬픔을 달래주고 한맺힌 원결을 풀어주어 좋은 몸 받아서 좋은 세상에 가시도록 하는 뜻이다.

모든 번뇌 쉬면 마음도 편안 경내 전체가 연화세계... 청정한 귀의처

옛날에 덕 높은 큰스님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제멋대로 생활하며 계율에 어긋난 속된 생활을 일삼다가 병들어 일찍 죽었다. 스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등에 큰 나무가 솟아난 물고기가 뱃전에 머리를 대고 흐느껴 우는 것을 보고 스님은 깊은 선정에 들어 고기의 전생을 관하여 보니 병들어 죽은 제자의 방탕한 생활의 과보로 물고기 몸을 받아 고통 받는 모습이었다. 이를 알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 수륙천도재를 베풀어 고기의 몸을 벗게 해주었더니 그날 밤 스승의 꿈에 제자가 나타나서 큰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생에는 참된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부탁하기를 "제등에 있는 나무를 베어 목어와 목탁을 만들어 염불 수행할 때 사용하게 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 모든 사찰에서 목어와 목탁을 치게 하고 그래서인지 물고기들이 목탁소리를 들으면 좋아하고 또한 물고기들은 잠을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자므로 수행자들도 정진할 때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 있다.

수륙천도재를 드릴때 집에서 기르던 소나 돼지 닭등 수많은 축생들이나 땅속벌레와 날아다니다 죽은 새들 또한 바다에서 누군가에게 잡혀 비참하게 죽은 수많은 미물들의 위패를 올리고 천도재를 지내주고 기도드려 주었더니, 휴휴암 주지스님방에 매년 이른 봄이면 수만마리의 날개달린 왕개미떼가 몰려오고 지금은 바다속 중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인지 용궁암 연화법당 고기바위 주변에 수십만마리의 각종 물고기떼가 몰려와서 염불소리 목탁소리를 들으며 부처님 상단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듯이 열지어 있는 고기떼들을 보고 용왕방생기도 드리는 불자들을 많이 볼수 있다.

더욱 이상한일은 바다갈매기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들인데 많은 고기떼들의 등이 보이고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드러나 있어도 갈매기들이 그 주변에 있으나 오지 않고 잡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이 아닌가 싶다.

삼대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한 어부와 해녀가 말하기를 "평생을 바닷가에 살고 있으나 이런 광경은 처음 보고 고기 반, 물 반 보다 이 주변에는 고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절이 들어와서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방생도 하고 미물들의 생명도 보호해 주고 죽은 미물들도 자비를 베풀어 주고 좋은 일만 하시더니 바다 물고기들이 고마워서 부처님전에 기도 드리러 온것 같아요."


◇1962년 6월 19일 중국과 대만 동북부 해협에서 미군 공군 조종기에 공중 촬영된 관계음보살 성상을 재현해서 휴휴암에 모신 비룡관세음보살.

바다 연화법당 방생 용왕기도 이어져

여러 방송사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TV방영과 신문에 보도된 후 양양군 내수면연구소에서 나와 고기를 잡아 확인하고 관찰을 하였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이 곳 을 지나갈 수는 있으나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고기떼가 한 곳에서 머물며 서식할 환경이 적합하지 않는데도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이변이라고 하며 관찰하고 연구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다.

범종루에 모셔진 관음범종은 삼천삼백삼십관으로 현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종 중에 가장 크고 웅장하며 사방에 관세음보살을 새겨 모신 특이한 종이다. 국내 최초로 순금을 입힌 아름다운 황금종에 이름 새긴 분들은 넓은 종속에 들어가 있을 때 종을 쳐주면 업장이 소멸되고 탁한 기운과 잡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앞길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지옥문이 파해져서 지옥중생들도 극락세계로 이고득락하시라고 종소리를 울려주는 것이다. 순금을 입힌 아름다운 종을 감상만 하고 손으로 만지거나 긁어서는 안되며, 훼손이 되면 복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금종에 가족이름을 새기는 것에 동참하실 분은 문의 바란다고 한다.


◇휴휴암 묘적전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바다 연화법당 동쪽바위 끝에 관음성상 조성 총높이 50자, 우측에 동해해상용왕상 조성 총높이 23자, 좌측에 남순동자상 조성 총높이 20자, 관세음보살님이 타고 오신 배(관음선) 총길이 50자 높이 약 9자, 이 거대한 불사가 200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불사동참을 바랍은 물론, 화천수불보살세계 다라니굴법당 수미단에 2009년 완공으로 세계최초 아름다운 순금관세음보살님 높이 3자 3치 조성불사를 위한 휴휴암 금모으기 불사에도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한다.

"신묘장구대다라니 경은 모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력으로 이루어진 신묘한 진언입니다. 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드릴 때는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앉


◇휴휴암에서 매년 봉행하는 수륙영가 천도재 모습.


◇관음성지휴휴암 전경.


◇화천수 불보살 세계를 고려 불화로 그려 모신 다라니 굴법당.



목탁염불소리를 듣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정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수십만마리의 각종 바다물고기떼 출현


◇휴휴암 연화법당 물고기 바위.


◇연화법당 물고기바위 주변에 모여든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떼들.

아서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빠뜨리거나 틀리지 않게 천천히 염불수행을 쌓아나가면 업장은 스스로 소멸되고 산란한 마음이 정화되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라니 주력을 오래도록 많이 지송한 사람은 신통력이 생기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옷깃만 스쳐도 신통의 힘을 받으며 대다라니 그 자체에서도 신통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과거 무량억겁전에 초지보살로 계실 때 천광왕정주여래 부처님으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법문을 듣고 팔지보살의 높은 경지에 껑충 뛰어 지금의 천수천안관자재보살님이 되신 것입니다. 초지에서 팔지에 이르려면 수만겁을 닦아도 어려운데 다라니 법문 한번 듣고 수행정진하여 지혜가 열리고 신통력이 갖추어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몸은 자마금색이며 얼굴빛은 염부단금빛과 같이 온화하고 아름다우며 미간의 백호상에서는 팔만사천 가지 가지 빛이 쏟아져 나오고 그 빛 속에 비치는 중생들을 살피고 제도하시는 대성자모 관세음보살님을 알고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장에 가서 과일과 나물을 사서 지게에 지고 산을 올라와 공양을 지어 상단부터 일주일씩 각단마다 기도드리고 다시 삼칠일기도와 백일기도, 다라니 백만독 천일기도를 드렸고, 지금은 천만독 원을 세우고 주력 정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라니기도는 일반기도보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느 단계만 지나면 편안해지고 신심이 절로 나서 기도성취가 빨리 옵니다. 다라니진언을 오래도록 많이 지송하게 되면 식이 맑아져서 귀신이나 천신들이 보이는데, 이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심의 갑옷을 두텁게 입고 그 어떤 유혹이나 실험을 당해도 물러서지 말고 지성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홍법스님은 백일기도와 천일기도를 여러번 드린 공덕으로 부처님을 친견하고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친견하고 휴휴암에서도 기도중에 두번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그 후로 바다에 무지개가 자주 뜬 자리를 살펴보니 관음성상이 물위에 떠올라 쉬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관세음보살 현신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만독기도중


◇휴휴암 홍법스님이 편찬한 "신묘장구대다라니 해설집"은 휴휴암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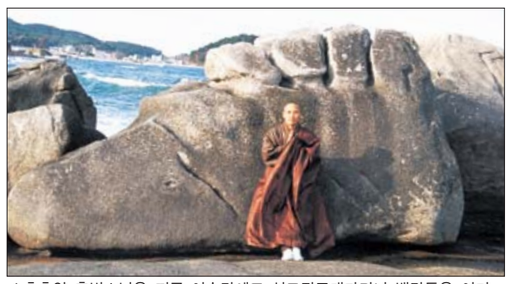
"지난 30년 동안 신묘장구다대라니 주력 속에 푹 빠져 지나다 보니 다라니에 나오는 불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린 불화가 아닌 것을 안타까워 하다가 원을 세우고 다라니 굴법당을 10년 만에 완공하여 불보살 세계를 고려불화로 그려 모시고, 다라니를 모르고 기도드리는 불자들을 위해 다라니해설집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료를 모아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수다라니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지송하는 소중한 경문입니다. 모든 불교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밀한 진언을 외우고 간직하여 관세음보살을 머리에 이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 정진해 나가면 불보살세계를 체험하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라니춤을 만들어 연습 중에 있으며 완성되면 스님들과 참신한 불자들에게 전수하여 사찰이나 세간 곳곳에서 다라니 춤을 추며 마음 닦는 많은 수행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휴휴암은 양양군 현남면에 위치해 있으며 휴휴암 큰길 건너에는 현불리와 견불리라는 마을이 있다. 그 뜻은 부처님이 나타나서 언제나 본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주변 휴휴암 앞바다에 관음성상이 물위에 떠올라 계신 것을 늘 보고 있으니 옛 선인들은 먼 훗날을 바라보고 마을이름 하나를 지어도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휴휴암 앞바다에는 불법에 관한 바위가 많다. 달마바위, 거북바위, 여의주바위, 손바닥바위, 손가락바위, 발바닥바위, 발가락바위, 동굴바위. 고기바위등 아기자기한 바위들이 많이 있다. 파도가 치면 하얀 백련이 핀것 같은 넓은 연화법당에는 전국각처에서 온 수많은 불자들의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와 해맞이기도 드리는 명소로 유명하다.
특히 바다에 떠올라 계신 관세음보살님께 거북남순동자가 엎드려 법문을 듣고 있는 모습 같아서 이 곳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원통교를 펼치는 보타락가산 관음성지가 아닌가 싶다.


◇휴휴암에서는 무지개를 수시로 볼 수 있다. 범종각 위에 뜬 무지개 모습.


◇삼천삼백사십관 황금을 입힌 관음범종.


◇휴휴암 해중지혜 관세음보살 손바닥바위, 손등바위.


◇휴휴암 홍법스님은 지금 이순간에도 신묘장구대다리니 백만독은 이미 지나고 천만독원을 세우고 주력 정진 기도속에 지내고 계신다.


◇휴휴암 해중지혜 관세음보살 발바닥 바위.

봉 수륙영가 천도재 축

휴휴암은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팔만사천무진번뇌망상을 모두 놓고 쉬고 쉬라는 뜻이며 다라니 기도 원찰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의 주문인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천일철야기도를 드린후 관세음보살님이 나투어 쉬고 계시는 신비한 도량 관음성지 휴휴암을 다녀가시고 백일기도, 천일기도, 입시기도, 용왕방생기도와 순금관세음보살조성복장불사, 연화법당서른석자관세음보살조성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의 축원도 정성을 다하여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휴휴암 범종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일년째 맞이하는 행사날에 오셔서 순금을 입힌 아름다운 황금종을 치며 기도 드리세요. 금종에 이름새기실분과 굴법당순금관세음보살조성금모으기 복장불사에 동참하실분과 바다연화법당서른석자관세음보살조성불사에 동참하실분은 문의바랍니다.

휴휴암 연화법당에서는 **양력 11월 3일(음력 9월 24일)관음재일날 수륙영가천도재를 봉행**하오니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애혼고혼은 물론 나로 인해 다치고 고통 받다가 죽은 영혼들이나 약으로 먹고 음식으로 먹어서 죽어간 축생미물들과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 죽어서 가슴 아프다고 말로만 하고 아무데나 버리고 가벼이 여겼던 모든 영혼들과 중음신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원결을 풀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면 집안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가벼워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철야기도 하실분은 수륙천도재를 드린후 연화법당 고기바위주변에 수십만 마리 각종 고기떼가 몰려와 떠나지 않고 서식하는 것을 모든 방송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방영된 후 용왕방생기도 드리는 불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휴휴암 주지 홍법 합장

■ **수륙영가천도재 : 100,000원 / 입시기도 : 100,000원**
■ 백일기도 : 30,000원 ■ 다라니천일기도 : 100,000원
■ 법당 1년등 : 100,000원 ■ 다라니해설집 : 10,000원
■ 농 협 : 331025-52-047221(예금주 : 홍법) / 우체국 : 200675-02-032526 (예금주 : 홍법)
■ 우체국(책) : 200675-01-005340 (예금주 : 홍법)

◈ 현남 요금소에서 양양 · 속초방향으로 5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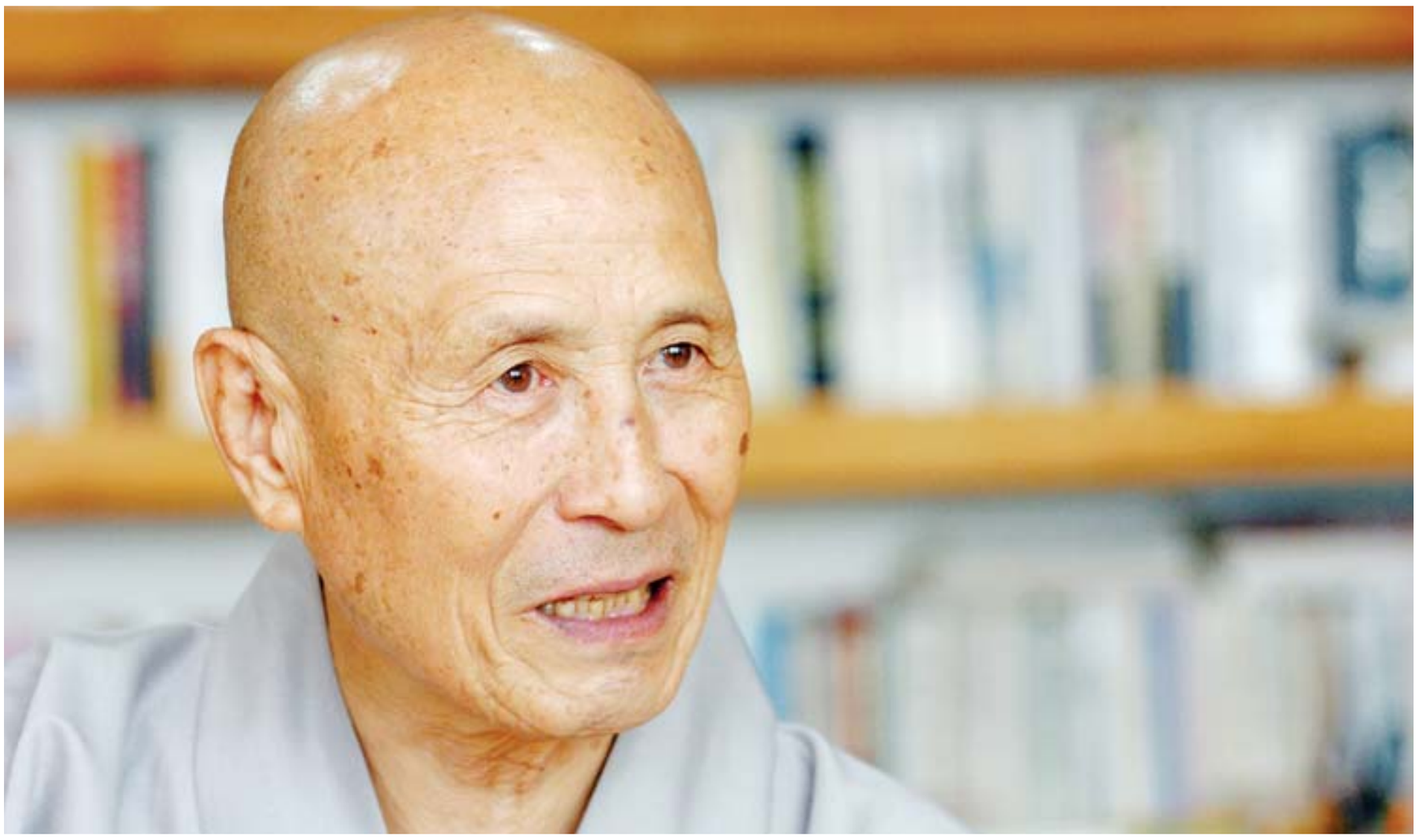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전화 033)671-0093,0094,0095 (종무소)

◆ **수륙천도재에 오실 분은 차량운행 문의 바랍니다.**

불교TV사찰순례 : 02)3270-3333
서울(유기사) : 011-235-9954, 011-310-7910
영주 : 010-2335-7132, 016-507-2828
대구 : 010-2280-9957 청주 011-466-6328
대전 : 042)257-2400~2 광주 : 011-603-3933
서울봉찬회 : 02)387-8578, 011-246-2120
분 당 · 서 울 : 011-785-0026
부산 : 금장정진회 011-833-0383, 011-865-9383
마산 : 019-595-1457 일산 파주 : 011-804-2520
인천 : 011-9789-3518 전주 : 011-653-7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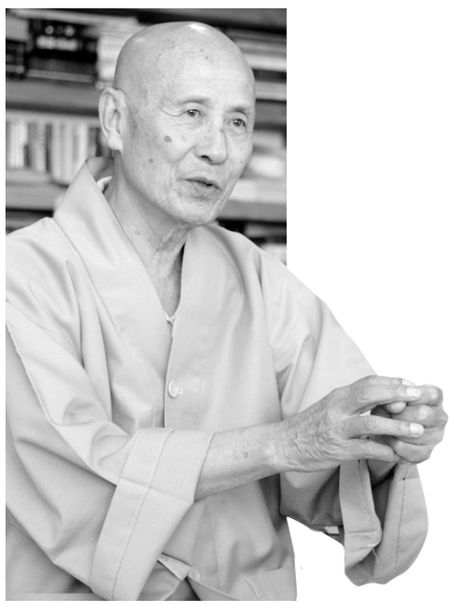
“안다 해도

선지식을 찾아서

성원

각암성원(覺庵性元) 스님은
1928년 전남 화순에서 출생한 스님은 1958년 불국사 석굴암으로 출가했다. 1959년 범어사 동산 대종사 문하에 입문, 1961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이후 1987년까지 30년간 종무행정에 종사했다. 1988년부터 개운 조사의 <능엄경>을 보고 재발심해, 2006년까지 제방선원에서 20년간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현재 남해 화방사 화방난야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조만간 평생의 수행체험을 담은 <능엄경 수행요서>를 펴낼 예정이다.

성원스님 남해 화방사 주석(住錫)



5일 늦은 오후에 도착한 한반도의 최남단 한려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남 남해. 시원한 숲과 푸르른 바다, 그 위에 떠 있는 크고 작은 섬과 기암괴석의 산을 갖춘 아름다운 경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구운몽>을 지은 서포 김만중을 배출한 충효의 고장인 이곳에는 유명한 관음성지인 보리암과 화방사, 용문사가 있어 더욱 마음을 끈다.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망운산(望雲山)에 둥지를 튼 화방사(花芳寺 · 주지 효천)는 화방복지원을 설립해 무료노인복지시설인 화방동산과 자활후견기관인 삼베마을, 하동군청소년수련원 등을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다. 자비심 가득한 효천 스님을 만나뵈니, 경남 제일의 불교 복지법인을 경영하는 원력을 짐작할 수 있다.

저녁 공양 후, 효천 스님의 안내로 개울을 건너 수십 미터를 올라가 토굴인 화방난야를 방문하자, 성원(性元) 큰스님이 미리 알고 문을 열고 나오신다. 큰스님은 고향 할아버지처럼 자상하고 편안하게 방문객들을 맞이하신다. 널찍한 선방 가운데는 찻상이 달랑 하나 놓여 있고, 옆방을 들여다봐도 몇 권의 책만 꽂혀 있는 소박한 토굴이다. 효천 스님은 행여나 큰스님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저어하실까, 미리 큰스님께 부탁을 올리고 자리를 떠난다.

찻잔에 냉수를 따라 주신 큰스님은 찻상 위에 <유가심인 정본 수능엄경 환해산보기(瑜伽心印正本首楞嚴經環解刪補記)> 전질 10권과 <유가심인록(瑜伽心印錄)>을 올려놓으신다. 필자는 오래 전에 이 <능엄경>을 구경한 적은 있었지만, 그 내용이 난해해서 훗날 언젠가는 한번 공부해 보리라 미루고만 바로 그 경전이었다. 불교계는 물론 도교 수행자들에게도 전설적인 도인으로 알려진 경북 상주 출신의 개운 조사(開雲祖師: 1790~?)가 주석을 단 <능엄경> 주석서이다. 이 책을 이곳에서 다시 본 인연은 과연 무엇일까.

경전을 이곳저곳 펴가며 수행담을 들려주시는 스님의 안광(眼光)은 밤중인데도 더욱 빛을 발했다. 스님이 개운 조사의 능엄선(楞嚴禪) 수행을 하게 된 기연은 이랬다.

성원 스님이 개운 조사의 <능엄경>을 만나게 된 것은 1985년 가을. 우연히 상주 남장사 주지 중천 스님을 만나고 싶어 그 곳에 들렀을 때, 나한전에서 기거하고 있던 석경(石境) 노스님을 만났다. 개운 조사의 <능엄경>을 150여년 만에 양성 스님이 기적적으로 초록한 것을 석경 스님이 다시 번역해 몇 질을 구입해 달라고 하기에, 스님은 다섯 질을 구입해서 몇몇 스님들에게 나눠주고 한 질이 남아있던 것을 틈틈이 읽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성원 스님은 구체적인 강의를 듣고 싶어서 석경 노스님을 진주 토굴에 모셔 와서 강의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는 그럭저럭 불경을 보는 것으로만 여겨서 그 경속에 수행의 비장(秘藏)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심이 나서 이 <능엄경>을 숙독하게 되었다. 이윽고 스님은 더욱 깊은 뜻을 알고 싶어서 해인사 용탑에 주석하던 석경 스님을 다시 참방하여 가르침을 받고서 본격적인 능엄선 수련에 들어갔다. 1988년 육순의 고령에도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첫 경지에 들어가니 일체의 병이 나으면서 날이 다르게 건강해지고 불법의 정수를 깨닫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었다고 한다.

“인체에 막혔던 기혈이 뚫려서 원활한 소통이 됨에 따라 백발이 점차 검어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하나씩 없어져 가는가 하면 무릎 관절과 좌골 신경통이 어느 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입속에는 침이 많아지고 심정은 한없이 고요해지면서 입에 비린내 나는 음식이 싫어졌지요. 또 마음의 동요가 없어지고 잠과 꿈도 적어지고, 즐거운 것을 봐도 즐겁지 않고, 슬픈 것을 봐도 그렇게 슬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순에 개운 조사 가풍 이은 능엄선 수련 시작
30여 년 종무행정 종사하며 기도·수행에 정진

스님은 개운 조사가 남긴 <유가심인록>에서 태백산인 소능 선사가 <능엄경> 수행의 절정을 기술한 ‘귀복법(歸伏法)’으로 수행해 이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올해 팔순인 스님은 도인의 풍모에 육순의 나이처럼 건장하고 허리도 꼿꼿했으며, 얼굴에 검버섯도 거의 없었다.

“부처님은 49년간의 설법 중 아함 · 방등에서 위빠사나 수행법을 말씀하셨고, <안반수의경>에서는 호흡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문사수(聞思修)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법과 삼마지(三摩地: 바른 선정을 닦는 터) 규(窺: 구멍 또는 문)를 찾아들어가는 성명쌍수(性命雙修: 마음과 몸을 함께 닦음)의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반야 · 화엄 · 법화에서는 이미 성불해 있는 진공묘유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일 뿐”

마음과 몸이 합해지는 찰나 막혔던 기혈 술술 관절통·검버섯 사라지고 ‘無心의 경지’ 도달



스님은 <능엄경>에서 밝힌 문사수 수행법과 성명쌍수의 수행법을 함께 묶어서 수행해 보니, 수행초기에 많은 증험들이 나타나서 하면 할수록 육신이 겪고 있는 병고액난(病苦厄難)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마음공부도 깊어짐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마지규를 찾아내서 수행하는 방법을 기록해 둔 책인 <유가심인록>과 이 안에 기록된 소능 선사의 참선 · 기공법인 ‘귀복법’을 실제로 수련해 체험을 얻은 수행자는 거의 드문 것이 현실이다. <능엄경> 자체가 어려운 경전인데다 개운 조사가 주석을 단 <능엄경>은 기공법을 모르고서는 알 수도, 수련할 수도 없는 비전(秘傳)의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능엄경>을 반야(般若)로만 해설한 것도 이러한 수행법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었다.

“반야는 수행하기 이전의 소식으로 묘유(妙有)한 것이고, 지금 닦아서 얻고자 하는 것은 망진(妄塵)으로 이뤄진 망체(妄體)를 맑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능엄경>을 남겼지만, 이 경을 후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자구들을 반야사상으로만 해석해 버린 오류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능엄 수행법을 통해 해탈하신 개운 조사는 ‘이 능엄은 중생의 진루(塵漏)를 벗어나게 하는 수행서이지 반야를 설명한 경전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엄경>의 경문을 이치로만 해석하는 것과 실제 수행법으로 해설한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능엄경> 7권 결단궤칙(結壇軌則)에서 세존이 설한 다음 경문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말세의 사람이 수행도량을 세우고자 하려면 먼저 설산의 대력백우(大力白牛)를 구해야 한다. 그 소는 설산의 맑은 물만 마시고 그 산에서 나는 비니향초만을 먹어서 그 똥이 매우 미세한데 그 똥을 구해다가 전단향과 화합해서 결계(結界)하고자 한 단장지면(壇場地面)에 발라야 한다.”

여기서 ‘대력백우’는 우리의 불종자(佛種子)이자 진성(眞性) 즉 성품을 비유한 것인데, 실제 수행법에서는 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대력백우’는 그 성품이 몸 안에 있을 때 실제 머무는 진주처(眞住處)를 지적한 것이라 한다. 성원 스님은 이 경문을 ‘소능 선사 어록’의 실제 수행법을 통해 이렇게 증험하였다.

“이 대목은 수행인의 몸 안으로 그 진성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문사수로 살펴서 점차 명궁(命宮: 단전)까지 유도하여 성(性)과 명(命)이 합해지면서 설산의 맑은 물(수행 중 입속에 고이는 침)이 쏟아져 내려오는 소리와 함께 인체 내의 모든 맥(脈)이 소통됩니다. 동시에 체내의 모든 경락(經絡)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점차 활성화 되고, 인체 내의 모든 기혈이 가동되면서 몸이 매우 가볍고 경쾌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기혈이 막혀서 혈액순환의 방해를 받아 병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성과 명이 합해지는 찰나, 우리 몸의 움직임이 급진전하여 막혔던 모든 기혈을 이 마니보주(摩尼寶珠: 지장보살의 손에 쥐고 있는 구슬)가 뚫고 다니게 되는 감각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성과 명이 합해서 일어난 증험이었다. 이후 만성질환으로 쇠약했던 스님의 몸이 건강체로 거듭나게 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었다.

“성품이 나타날 때와 성과 명이 합해질 때 양 눈 사이의 인당혈(印堂穴)에서 번뜩하고 섬광이 나타나면서 입속에 고였던 맑은 침이 위장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뱃속에서 뇌성과 같은(우글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성(性)이 명궁에 들어가는 양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를 당해서 주인공은 이 핵(眞性)을 문사수로 유도하면 몸 안의 모든 경락을 휘젓고 다니면서 잘못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이상이 없으면 임 · 독맥(任督脈)의 통로를 통해 다니다가 다시 본궁에 돌아와 조용히 쉬곤 합니다. 명과 성이 합해지면 오래도록 잊어버렸던 고향 집을 찾아 온 것과 같습니다.”

개운 조사의 능엄선은 이처럼 마음(性)과 몸(命)이 하나 되어 이뤄지는 내밀한 수행이기에, 스승 없이는 참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개운 조사의 <능엄경>을 접한 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아직도 스승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성원 스님이 이러한 개운 조사의 능엄선을 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58년 석굴암에 출가한 이래 30여 년간 종무행정을 보는 바쁜 일과 중에도 기도정진과 간경 · 참회수행 등을 쉬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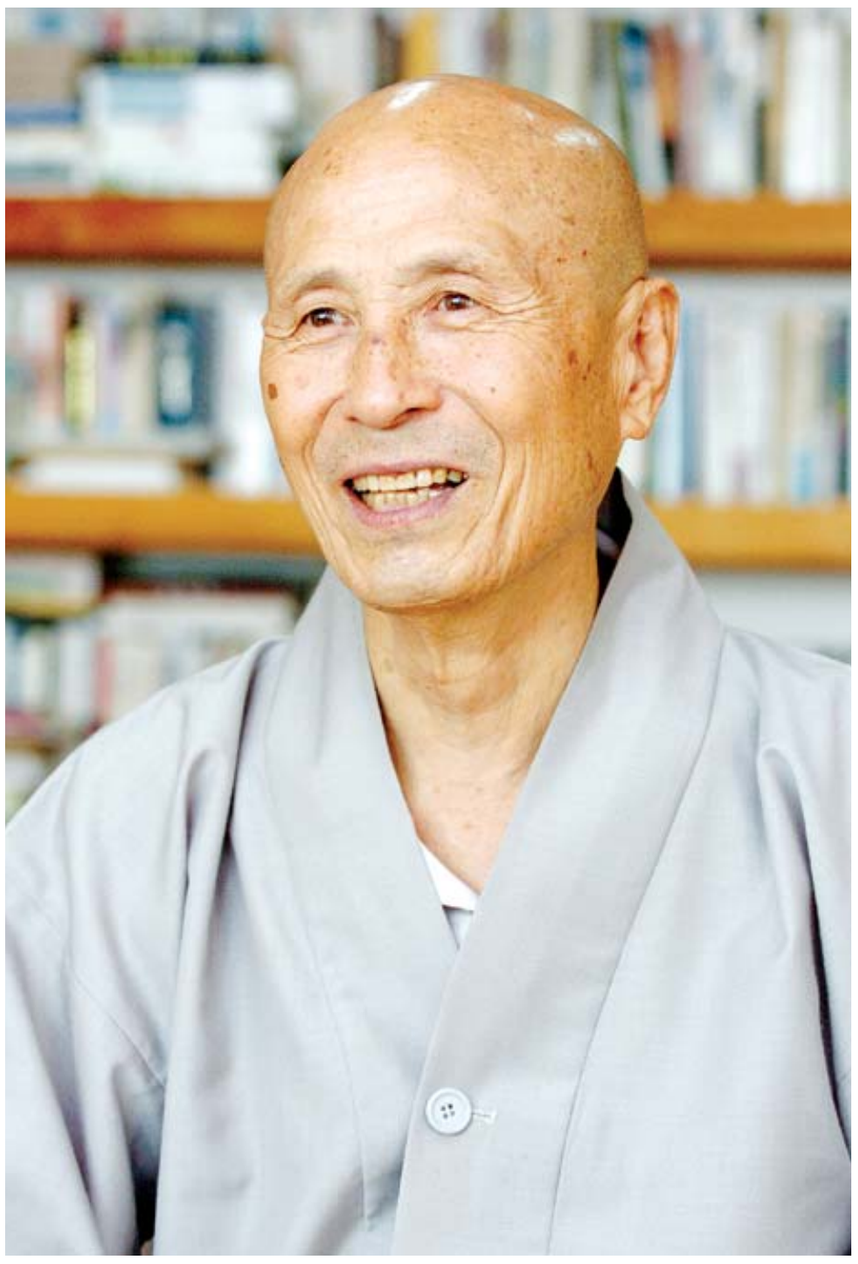
“나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면서부터 30년간 사원관리 소임을 맡아 그동안 심혈을 경주하여 사원의 공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수행의 덕목을 잃지 않으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 독송을 해왔습니다. 일종식에 장좌불와로 목숨 걸고 백일간의 관음기도를 할 때는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른 끝에 관음보살을 친견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이후 천일동안 <반야심경>을 묵서로 사경하여 인연 닿는 곳에 나눠주면서 지장기도도 하였다. 또 금분(金粉)으로 <금강경>을 2년에 걸쳐 수십 권을 사경하여 제방의 본사와 적멸보궁, 관음기도 도량 등지를 찾아가서 불전에 올리고 참회기도도 하였다. 최근에는 <법화경> 7권 전질을 금분으로 사경하여 불전에 올려두고 ‘나와 더불어 모든 승려가 세세생생 인신(人身)을 거듭 받아 태어나서 출가사문이 되어 구경(究竟) 성불을 향한 수행정로에서 마장 없이 정진할 수 있기를’ 불 · 보살님 전에 발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진과 원력이 있었기에 1988년부터는 제방 선원에서 정진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백년의 출가수행을 되돌아 볼 때, 스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막행막식(莫行莫食)하는 파계행과 실참이 없는 말재주이다.

“도를 이룬다는 것은 말이나 글재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거나 행해도 꾸준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월만 낭비합니다. ‘일체가 허공꽃(空華)이거늘 무슨 육신에 얽매이느냐’는 등 계행을 무시하는 삿된 아만심으로는 참된 진리와 스승을 만나기란 요원한 법입니다.”

나무는 고요히 쉬고 싶지만 바람이 멎어주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 싶지만 어버이는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내 마음은 선정에 들고 싶지만 지어둔 업(業)이 태산 같은데, 이것을 통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원 스님의 사형인 성철 스님이 생전에 능엄주 독송과 절 수행을 강조했듯이, 업장소멸과 발원은 수행의 토대이다. 기초를 든든히 다진 진솔한 수행은 결코 수행자를 속이지 않는 법이다. 포교와 수행에 각각 최선을 다해 정진해 온 성원 스님은 이제 청산(靑山)에서 푸른 학과 노니는 ‘날마다 좋은 날’을 누리고 있다고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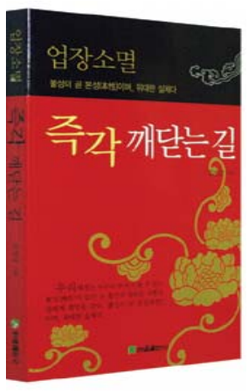


늦기는 하였으나 청학(靑鶴)에 앉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랴
진종일 푸른 산만을 대하니 마음 스스로 한가해져
청학선인(靑鶴仙人)을 이에서 보는 것 같구나
구름 흩어지고 비 그치니 푸른 산 예와 다름 없어라.

마음을 비워서 모든 물욕과 사심이 텅텅 비워지고 대상도 공허한 경지에서 크게 깨달아 달관하게 되면 악심과 선심도 없어지고 일체의 시비 · 분별심도 사라져 무심의 경지에서 세상일을 초탈하게 된다. 깨달음의 빛을 숨긴 채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성원 스님을 뵙고 개운 조사의 가풍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요즘도 지리산 묘향대에서 종종 모습을 나툰다는 개운 조사처럼, 스님 역시 살아있는 전설로 능엄선의 가풍을 이어갈 것이라 기대하며 망운산을 내려왔다.

남해=김성우 객원기자/사진 고영배 기자





즉각 깨닫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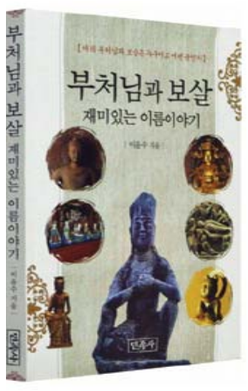
불성이 곧 본성(本性)이며, 업장 소멸 위대한 실체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佛性)이 있다' 는 불전의 말씀은 수행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불성이 곧 본성(本性)이며, 업장 소멸 위대한 실체다.
'간화선의 화두' '남방의 위빠사나'도 아니다. 오직, 묘촉을 만나야 하며 관음을 득해야 한다. 묘촉(妙觸)은 업장의 현주소이며 밝음의 바로메타,관음(觀音)은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으로 천상의 음악이다.

"좋은 불들께 선물, 감동을 주는 책"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값 10,000원

관음출판사 전화 02-921-8434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이야기

여러 부처님과 보살은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

부처님과 보살에 얽힌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를 담은 책

불자들은 집이나 절에서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고 기도하면서 산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밝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부처님과 보살이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알기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불자라고 해도 쉽지 않다.

방송작가인 저자가 불심으로 엮은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등 불교경전 속에 나타난 부처님과 보살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일화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잔잔한 문체의 해설을 붙여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윤수 지음 / 신국판 / 295쪽 / 값 9,000원

민족사 전화 02-723-2403



산빛 이야기

당신과 내안의 거룩한 불성에 경배를!

오랫동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정목 스님의 『산빛 이야기』

이 책은 저자가 16세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맺은 인연들을 돌아보며 쓴 편지를 담고 있다. 스님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스님이 되어서 만난 인연들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수행자로서 얻은 깨달음 등을 들려준다. 아울러 집착과 분별심에서 벗어날 때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목지음/ 신국판 / 221쪽 / 값 9,500원

바움출판사 전화 02-714-2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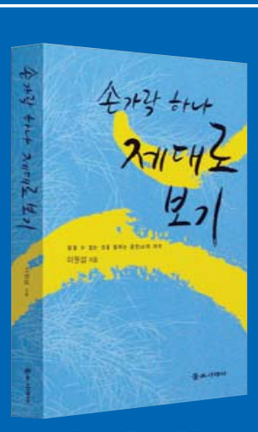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세트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완결편
불교의 핵심을 가르는 명구, 명쾌한 해설
한 편 한 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린다

한국불교의 강맥을 잇고 있는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범어사 승가대학 학장)께서 경전과 선어록 등에서 불교의 핵심을 가르는 명구를 가려 뽑고 명쾌한 해설을 덧붙인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를 출간,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완결하였다. 명구집 4권을 한데 모은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특별 세트는 마음을 밝히고 불교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무비 스님 / 4×6판 양장본 / 4권 1세트 / 값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320-4200



손가락 하나 제대로보기

손가락을 봐라!

손가락 하나를 세워 눈앞에 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살핀다. 발견되는 중대한 사실 하나, 아무리 손가락을 이리저리 굴려 보아도 한 측면밖에는 볼 수 없다. 표면을 볼 때에는 이면 쪽이 안 보이고, 이면을 볼 때에는 표면이 숨겨진다. 왜 우리는 제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을까.

선의 공안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왜 사물의 진상을 볼 수 없는지, 어떻게 하면 사물을 전체 그대로 볼 수 있는지를. 이 책은 바로 공간, 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잡이, 손가락이다. 자, 손가락 하나를 세워 눈앞에 대고,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원섭 지음 / 신국판 / 435쪽 / 값 14,500원

불교시대사 전화 02-730-2500

| 부처님 전생이야기 |

자타카의 노래

신간

자타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뜻하는 말로, 자타카에 나오는 부처님의 모습은 왕, 신하, 장자, 서민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코끼리, 사슴, 원숭이, 토끼, 공작, 물고기 같은 동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타카의 노래〉는 부처님 전생이야기 스무 편을 가려 뽑아 만화로 엮어서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재미를 더해 줍니다.

김장열 글 · 그림 | 크라운판 | 올컬러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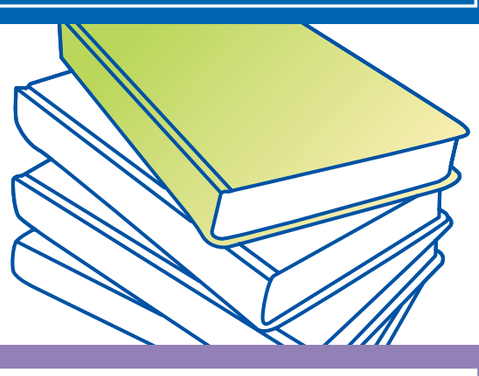


http://www.sol-baram.com 솔바람 Tel. (02)720-0824 Fax. (02)722-8760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3주년 선정

지면에 나온 출판연합서적 구입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 3만원이상 구매 고객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테입세트 Ⅲ (오디오 테이프 4개입) 선착순 100세트
- 7만원이상 구매 고객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테입세트 Ⅱ (오디오 테이프 8개입) 선착순 50세트



BEST 추천도서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닷컴 book.buddhapia.com
주문 : 02-2004-8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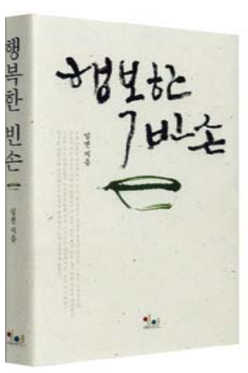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미소가 아름다운 지현 스님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

지현 스님은 세상에 대한 애정을 시종일관 잃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베푸는 삶과 나누는 실천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이 가르쳐주는 삶의 여유를 배우는 것은 물론,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현 지음 / 신국 변형 / 272쪽 / 값 10,000원

아름다운 인연 전화 02-733-6390



행복한 빈손

"너희는 주불해라, 나는 후불탱화 하련다."

《행복한 빈손》은 척박한 포교현장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일면 스님의 모습과 생각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행복한 빈손》에는 행동하는 이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간절한 마음가짐과 자취를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권할 만하다

일면 지음 / 신국 변형 / 320쪽 / 값 12,000원

아름다운 인연 전화 02-733-6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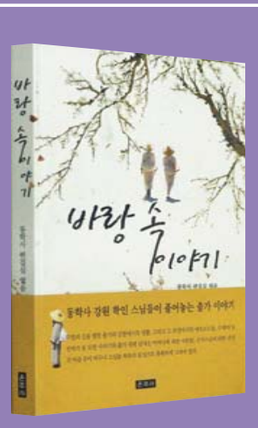
신불교천자문
(쓰기편, 자전편)

불교경전에 수록된 한자 1천자를 망라 해설한 책!!!

한문공부와 불교공부 및 쓰기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불교천자문>
자전 · 용어풀이 · 중요귀절해설편. 한, 중, 영, 일 4개 국어로 번역해 수록하였다. 한문 글자의 음은 중국 발음, 일본 발음을 적고 영어는 뜻과 음을 모두 담았다. 불교 경전 중 8종 경전에 처음 나온 한자를 뽑아서 자전편에 실었으며, 8종 경전의 대의 정리와 술어 해설을 제공한다.

저자 덕진/감수 백운 / 쓰기편 131쪽, 자전편 291쪽 / 각권 값 7,000원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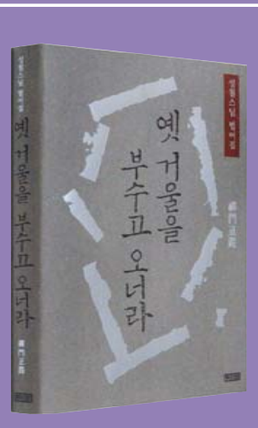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 강원 비구니 스님들이
은근슬쩍 풀어놓는 마음자리와 출가 이야기

구법의 길을 향한 출가와 강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에피소드들, 수행의 동반자가 된 도반 이야기와 출가 뒤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은사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등이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감성으로 담백하고 풋풋하게 그려져 있다.

감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값 10,000원

운주사 전화 02-926-8361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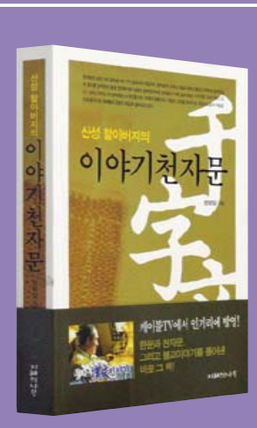
출간된 지 25년 만에 새롭게 만나는 성철 스님의 법어집, 〈선문정로〉!

한국불교계의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성철 스님의 대표작,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불교계는 돈점(頓漸) 논쟁에 휩싸였다.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저자가 1981년 출간한 〈선문정로〉로,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개정판』에서는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 해석 등을 첨가했으며, 한자는 괄호 속에 넣었습니다. 또한 저자 성철 스님이 1983년부터 〈선문정로〉를 교재로 해인사에서 강설한 내용을 추가하 여 이해를 도와줍니다. 원문 출처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성철스님 지음 / 신국판 / 424쪽 / 값 10,000원

장경각 전화 02-2198-5372



산성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케이블 TV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 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 !!

이책은 불지견(佛智見)으로 천자문을 해설하는 책이다.
천자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 세상을 세간법, 출세간법, 최상승법의 세 가지 차원으로 보는 붓다의 지견에다 저자의 체험적 소견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케이블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를 엮은 것으로, 한문과 천자문 그리고 불교이야기를 함께 전해준다.

천명일 지음/536쪽/신국판 / 값 18,000원〈고급양장 값 25,000원 〉

지혜의 나무 전화 02-730-2211



무문관 그 수행 현장과 숭고한 구도 이야기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한 선승(禪僧)의 무문관(無門關) 수행일기 최초 공개

밥구멍 하나 빼고는 사방에 막힌 방에 오직 화두 하나만 들고 참선하는 무문관 수행,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무문관 생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일기가 공개 – 조선일보

무문관 수행자가 참선 중에 겪은 내면의 체험을 가감없이 기록한 일기체의 글은 유례가 없었다. – 문화일보

김성우 엮음
신국판 304쪽 / 값 12,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T. 02) 2198-5151 / 051) 244-1251



아토피, 여드름 어성초로 고친다

생즙과 배독법을 이용한 자연주의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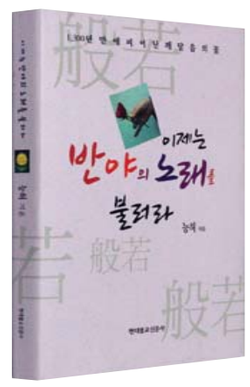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를 이겨낸 이 시대의 최고의 해독초인 어성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 어성초를 먹어야 한다.

오래되고 어려운 질환들도 어성초를 쓰게 되면 증상과 질병이 호전되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된 병도 불과 1-2달 안에 대부분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런 치료속도 또한 놀랍다.

– 본문 중에서 –

어성초한의원 원장 박찬영 지음 / 신국변형판 / 304쪽 / 값14,900

하남출판사 전화 02-720-3211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바라밀선원장(能虛)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

능허(能虛)거사 지음 / 양장본 신국판 / 238쪽 / 값1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2004-8234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 8)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7년 10월 17일 수요일 제 649 호

특별기획

대선, 선택이 미래다

A15 특별기고- '불교와 정치'
A16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불교
A18 미리 보는 대불교계 공약

"적극적 개입 경계·공정한 선거 힘써야"

12월에 치러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불교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특히 서울시봉헌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라 불교계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자 대통령 또는 불교에 우호적인 대통령의 선출이라든가 이에 따른 불교계의 위상향상을 주장하는 정도이다.



경기대 정치교육원
손혁재 원장

불교계, 12월 대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 한 동안 불교는 선거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 정치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만 잡으면 불교계는 끝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후보들이 불교계에 약속한 정책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불교계 스스로가 자초한 업보다. 불교계가 불국토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특정 정권, 특정 개인 정치지도자에게 매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인들로 하여금 불교를 쉽게 보고 불교정책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든 것이다. 정치인을 탓하기에 앞서 불교계의 책임이 크다.

불교에서는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수행자가 속세에서 벌어지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가 계속 산중에만 머무르면서 사회 정치 문제에 등을 돌릴 수만은 없다. 불교의 기본 교리가 고통 속의 중생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중생이 앓으므로 나도 앓는다"는 <유마경> 구절에서 불교의 정치사상이 잘 드러난다. <법구비유경>에서도 "여래가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약사여래의 본원도 남에게 매여 자유롭지 못하거나 감옥에 갇혀 고통 받는 이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뜻이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에서도 불교의 정치관을 찾을 수 있다. '상구보리'를 위해서는 세속적 사회를 떠나야 한다. 그러나 '하화중생'을 위해서는 세속적 사회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우리 불교는 오랜 호국불교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호국불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불교와 정치권력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호국불교란 국가 발전을 불교 발전으로 보는 현실불국토 완성의 의지가 나타난 호국사상이다. 호국불교가 결코 왕권에의 굴복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제시대 이후 일부 권승이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불교가 타락하게 되었다. '닭 벼슬보다 못한 것이 중 벼슬'이라는 것이 불가의 오랜 가르침이었다. 권승의 무리가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권력에 빌붙어 종권을 제멋대로 휘둘러왔다. 종권을 둘러싼 종단 내부의 다툼이 정치권력의 부도덕한 음모와 맞물려 불교를 타락시킨 것이다.

총독부는 우리 불교를 장악하기 위해 사찰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친일 주지를 임명했다. 권력에 예속된 불교는 해방 뒤에도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과정에서 친일파를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친일 승려들이 득세함으로써 왜색불교 친일불교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보살의 화현'이라고 추켜 주는 작태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를 정화시킨 공은 평가가 엇갈린다. 불교정화를 통해 비구의 전통을 회복하고 승려들의 타락과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화방식이 타율적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 불교정화가 시작된 시기는 1952년 7월 1일 피난수도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 발췌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킨 직후였다.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불교정화를 시작한 측면이 있다. 불교정화가 자율적이 아니었고 권력에 의지함으로써 권불유착의 소지가 마련되고 고질적인 종단 내분이 시작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인구는 1995년 현재 2260

과거 권불유착으로 이미지 실추
종단서 특정후보 지지 '안될 말'

만 명 정도이다. 전체 인구의 50.7%에 해당된다. 불교신자가 1032만 명(23.2%)으로 가장 많고, 개신교 876만 명(19.7%), 천주교 295만 명(6.6%)의 순이다. 2003년의 통계청 조사는 구체적인 인구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종교인구 비율은 1995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구 비율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불교계의 영향력이 가장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 비중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공략하기 쉬운 표밭 정도로만 인식되었을 뿐이다. 불교계가 선거에 이용되면서 불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위상이 흔들렸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4대 대선 때의 신성한 사찰이 검은 돈 세탁장소로 이용당했던 상무대 80억원 비리사건이다.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과 조기현 전국신도회장이 개입한 이 사건은 불교계가 권력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나를 증명해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부끄러운 일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다. 불교 내부의 갈등이었던 이른바 봉은사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봉은사 사태의 본질은 권승 무리들이 여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빌붙어 벌인 충성경쟁이다. 권승들은 사찰 법당에다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한 기도'라는 현수막을 공개적으로 내걸고 법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반발하자 권승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던 것이다.

14대 대선에서 불교계 지지는 여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쏠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자 후보가 없었던 탓도 있지만, 지역성이나 기존의 친여적 속성을 뛰어넘지 못했고, 또 당시 권력과 밀착해 있던 서의현 총무원장의 역할이 컸다. 서의현 총무원장은 이전에도 "3당합당은 구국의 결단이며 김영삼 대표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소생시킨 지도자"라느니 "불교중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원래 불교계는 반(反) 김영삼 정서가 강했다. 개신교 장로인 김영삼 후보가 지나친 기독교적 편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영삼 후보는 13대 대선 때 "청와대에 찬송가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 "주일날 유세를 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래서 13대 대선에서 불교계의 김영삼 후보 지지율이 노태우 후보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반김영삼 정서가 14대 대선 때 친김영삼으로 바뀐 것은 권불유착때문이었다. 또 당시 김영삼 후보의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는 민족불교중흥회라는 선거 조직을 만들어 전국 사찰에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시주금을 내놓았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했다. 김영삼 후보 측의 불교계 표 공략이 주로 돈 잔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은 불자 대통령의 탄생에 있지 않다. 불자 대통령의 탄생은 좋은 일이다. 불자 대통령을 통해 불교가 확산될 수 있다면 그것도 굳이 막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자 후보라고 무조건 지지하거나 불교관련 공약이 그럴듯하다고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섣불리 불자 대통령이나 불교확산을 꾀하는 것은 자칫 불교를 통속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불자의 당선이 불교발전에 꼭 도움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불자 대통령도 있었고 불자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불교의 개혁과 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봉은사 사태 때 권승 무리들이 내세운 명분이 노태우 후보가 불교신자라는 것이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불교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없었다는 것이 교계의 평가이다.

불교가 종단 차원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 자칫 권력의 불교 간섭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른 대통령 만들기 운동이나 부정선거감시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불자들은 불자 후보라든가, 불교 공약을 따져보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밝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께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가로5cm 폭2cm 줄길이15cm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

“종교, 불교계 표심에 큰 영향 없을 것”

특별기획

대선, 선택이 미래다

A15 특별기고- ‘불교와 정치’
A16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불교
A18 미리 보는 대불교계 공약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불교정책과 종교관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종교는 ‘개신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종교는 ‘가톨릭’이었다.

세 후보 모두 올 대선에서 후보의 종교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후보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도 또한 ‘높은 편’이라고 장담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국가가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한 일”, 정동영 후보는 “등산로 단독 이용권과 등산로 이용+문화재관람료 동시 이용권 2가지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권영길 후보는 “국가와 시민단체, 조계종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 후보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정동영 후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 권영길 후보는 “규제의 형식은 간소화하되,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설문지를 발송한 시점(10월 2일)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설문 상세 내용은 buddhanews.com에서>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설문조사 내용

1. 후보님의 종교와 종교관은?
2. 불교와의 인연은?
3. 올 대선에서 후보의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①매우 크게 작용 ②큰 편이다 ③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④전혀 상관없다
4.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풀 해법이 있다면?
5. 종교계에 대한 ‘과세’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6.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높다 ②높은 편 ③그저 그렇다 ③낮은 편 ③매우 낮다
7.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로 많은 전통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다면?
8.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종교정책을 펼 계획입니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종교간 화합·국민통합 도모할 것”



1. 진정한 종교인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전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열반하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많은 대덕스님들과 현재까지 좋은 인연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지관 큰스님과는 제 개인 사무실이 조계사 바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 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4. 정부가 사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문화재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유산관리 문제, 예산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 높은 편

7. 전통사찰의 보존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여론을 수렴해 중첩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국민이 종교를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종교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율을 바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불교는 16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 사상,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종교간 화합과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범종교적 활동과 종교간 교류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종교계 봉사활동 적극 지원할 것”



1.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부처님오신날에 종정 큰스님께서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자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2. 결정적인 정치적 고민이나 결단이 필요할 때, 백양사, 조계사, 통도사 이런 곳에서 큰스님들을 뵙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직을 그만두고, 지선 스님을 뵙고, 민심 · 하심 · 초심 글귀를 받아 정치적 좌우명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3. 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4. 사찰 사유지를 등산로로 개방한 사찰 측의 입장도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등산로 단독 이용권과 등산로이용+문화재관람료 동시 이용권 2가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 더 좋은 방안이 제시한다면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5. 이 문제는 여론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이 아니며, 종교계 자체의 성찰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 높은 편

7. 유구한 역사의 보물들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무차별적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 편의시설 설치 등은 간소하게 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8. 지난 군사독재정권시절 그 누구보다 앞장서 종교인들이 민주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미처 도움의 손길을 펴지 못하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종교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것이며, 더불어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 그리고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전통사찰 규제 형식 간소화 해야”



1. 가톨릭. 입적하신 어느 큰스님께서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의 역할을 정확히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종교라고 하면 이승의 삶보다 저승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세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2.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많은 스님들과 자주 만나서, 정치인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과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4. 1차적인 해결은 조계종이 스스로 징수해온 문화재관람료의 용처를 명백히 밝히고 공개적,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매표소의 위치를 사찰 입구로 이전함으로써, 불필요한 통행료 시비를 스스로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국가와 시민단체, 조계종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운용과 징수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5. 민주노동당은 부를 축적한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일반적인 세금징수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징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높은 편

7. 규제의 형식을 간소화하되, 사찰들이 자연 속 조용한 공간에 숨은 듯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8.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극소수 인사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잠시 질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풀어 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채Q(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거북이표 흙침대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가락시장 가락APT 엄마손 백화점 성남 가락시장사거리 구송파사거리 잠실 송파역 일신여상 1번출구 잠실여고 전시장 백제고분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올림픽선수촌APT 둔촌사거리 둔촌주공 화훼단지 동북고교 거여동 서하남입구사거리 보훈병원 양반촌 전시장 타이어 서하남 I.C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각 60th 1946-2007 진각 60년, 그 역사의 가르침

즉신성불 현세정화

즐거운, 함께하는, 하나되는 신행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 印 道 欣

統理院長 悔 淨 宗議會議長 惠 印

教育院長 敬 淨 查監院長 曉 云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엄지공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상임이사 혜광
이사 혜운
이사 지공
이사 도기
이사 화엄
이사 일명
이사 법광
이사 담화
감사 혜천
감사 혜원

장로의장 금봉
장로부의장 명종
장로위원 수암
원경
청송
송은
원각
혜운
무찰
고시위원장 청송

종회의장 화엄
종회부의장 경원
사무처장 도안
종회의원 덕봉
법재 자명
법안 도허
지운 혜관
선행 삼주
법정 고봉
도정 남혜
보광 덕산
운각 경담
호암 혜원

호계원장 용암
교육원장 원각
감사원장 법성
포교원장 정수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호계초심위원 용주
도혜
동청
영우

총무부장대행 유정
교육부장 법해
재무부장 유정
교무부장 지언
재무부장 일명
사회국장 영우

서울교구 총무원직할
부산교구 총무원직할
대전교구 용주
인천교구 유정
울산교구 도현
대구교구 석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석은
경기북부 도혜
경남교구 정수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혜성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청표
제주교구 경운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27 / 엄지빌딩 4층
www.llbung.org 전화 02)998-8161, 2 / 전송 02)998-8384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 혜 안

종도일동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055)883-7771, 7790 / 팩스 883-7796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자 봉

총무원장 해 월

종도일동

총무원 : 경기 평택시 세교동 569-8 구문빌딩 4층
전화 031)653-1250,1 / 팩스 031)653-1253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3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을 모아 축하드립니다"

세계불교 일붕법왕종

의료재단 동자원(요양원) 건립 불사 中

사부대중 일동

총본산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494-4 원흥사 전화 031)585-2090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국 지국장
미륵암 주지

청 운

신도회장 이 종수
어촌계장 이 성렬
어촌계 감사 김 생표
남송식품 김 봉조
뷰 모텔 김 성국
남송가족호텔 이 기평
주안컴퓨터 늘봄대리점 차 상현
SK 동진주 주유소 스피드메이트 차 영두
대구 빙구조물 금영산업 김 용수
꾸바꾸바치킨 박 인옥
미송식품 김 수명
삼양식품 황 세진

미륵암 신도일동

현대불교 경남남부지국 / 미륵암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전화 055)746-3778 / 011-870-0021

특별기획

대선, 선택이 미래다

A15 특별기고- '불교와 정치'
A16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불교
A18 미리 보는 대불교계 공약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불교계의 움직임이 바쁘다. 정치권은 '불심'을 잡기 위해 불교계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불교계 또한 대선 기간을 이용해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발족한 '불교정책기획단(공동대표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 허경만 불교인재개발원 이사장)'이다. 본지는 올 대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불교계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불교계 10대 공약

- ☑ 가야산 등 수행환경문제 해결
- ☑ 전통사찰 중첩 규제 완화
- ☑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법 제시
- ☑ 농지법 개정
- ☑ 북한 사찰 복원 등 대북교류 활성화
- ☑ 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정책 강화
- ☑ 수목장 문제 해결 장사법 개정
- ☑ 불교계 복지시설 지원책 마련
- ☑ 폐사지 관리 및 복원 시스템 구축
- ☑ 불교문화 콘텐츠 내실화 대책 수립

전통사찰 중첩규제 풀고
문화재 보호대책 내놔야

'불심' 잡는다



사진 위는 시민환경 단체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거부 운동. 아래는 개성 영통사 복원 낙성식. <현대불교 자료사진>

◆가야산 등 수행환경 문제 해결=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와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 문제로 불교계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불교계 10대 공약으로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강행했기 때문이다. 사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보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부터 가야산을 통과하는 순환도로와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한 가야산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수행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야산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차량용 관광도로 대신 사람이 걷는 명상길로 만들고,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는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사찰 중첩 규제 완화=올해 초 수도권지역 사찰주지스님들이 주축이 된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개정추진위원회' 출범과 지난 4월과 6월 개최된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불교 규제 법령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관통하는 것은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다. 수도권지역 전통사찰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묶여 증·개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불교규제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전통사찰 △증개축 면적 규제 완화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개발훼손 부담금 부과 철폐 △각종 국가 법령의 중첩된 규제 조항을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규제로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문화재관람료 해법 제시=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불교계를 괴롭혔다. 일부 시민환경단체도 문화재관람료 징수 거부 운동을 벌여 조계종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는 지난 7월 '국립공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정부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조계종측은 △자연공원법상 '역사문화지구' 설정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범위 확대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 홍보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불교계 기관 양성에 대한 제도적 인정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농지법 개정=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별표1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사를 짓는 실습지여야만 소유를 인정받는다.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은 아예 농지를 소유할 수조차 없다.

사찰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삼보정재가 망실되고 도덕적 일탈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3자를 내세워 농지를 샀을 때 땅을 판 사람이 명의수탁자가 본 소유주가 아님을 안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교시설 신축 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또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법도 손봐야 한다.

◆북한 사찰 복원 등 대북교류 활성화=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낙성식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계사 일대에서 진행됐다. 남측의 조계종과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신계사를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대웅보전 외 11개 전각과 삼층석탑을 복원한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 교류에 많은 관심과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지난 6월 내금강을 답사한 후 "내금강은 불교성지가 많기 때문에 마땅히 복원해야 한다"며 "신계사 낙성식 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하연사 등 북한 사찰 복원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남북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문제도 천태종 측과 풀어야 할 숙제다.

◆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정책 강화=우리나라 문화재 중 70% 가량이 불교문화재일 정도로 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정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불교문화재 도난과 소실 등으로 보존관리 정책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 불교문화재 도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사찰문화재 일제 조사 및 이를 통한 문화재 지정 확대, 문화재청 강화(사법단속반 확대), 검찰·경찰에 문화재전담반 설치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을 만하다.

화재로 인한 성보문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산림청으로 제각각 분산돼 있는 책임단위를 통합하고, 통합된 기관과 사찰과의 유기적인 연대도 필요하다. 또 사찰이나 문화재 화방예방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문화재청 승격, 문화유산국에 불교문화재과 신설 등도 고려할만 하다.

◆수목장 문제 해결 장사법 개정=지난 5월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이 개정안은 장사(葬事)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시행해 환경훼손을 막는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수목장은 불법시설물로 규정된다.

불교계에는 2004년 전국에서 처음 수목장을 만든 영천 은해사를 비롯해 경주 기림사, 강화 전등사 등이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이들 수목장은 불법시설물로 낙인찍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수목장을 조성할 수 없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특별한 경우(문화재청장의 허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불교계에서는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을 사찰 경내지나 사찰림에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나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교계의 요구가 담겨질지 불투명하다.

◆불교계 복지시설 지원책 마련=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영유아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불교계가 수탁·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 공공 의료기관 부설로만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유휴 부지를 가진 민간 시설 신·개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찰은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깊은 산중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찰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공시설과는 다른 사찰건축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폐사지 관리 및 복원 시스템 구축=폐사지는 현재 법등(法燈)이 끊겨진 사찰을 말한다. 조계종이 1999년 조사한 '전국 불교사원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141개의 폐사지가 있다.

최근 폐사지 운영과 관리방안 및 복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사지와 관련한 국가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써 정부가 주도해 종단과 시민이 함께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폐사지 조사, 법률적 제도화, 사지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단독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찰 출토 문화재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사지 보호를 위해 조계종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문화 콘텐츠 내실화 지원책 수립=문화형성에는 정신적으로 종교가 근간을 이루고 있어 1600역의 역사를 가진 불교를 배제하고서는 이야기 전개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문화 원형 사업에 불교계 인사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 질 저하뿐만 아니라 불교 왜곡 가능성도 있다.

불교 관련 콘텐츠 내실화를 위해 불교계 및 전문산업인, 학계인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로드맵이 구성돼야 한다. 또 문화원형사업 및 불교관련 국가사업을 불교계가 주도해 과제선정, 심사, 결과물 등을 채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는 절 기원사 산사음악회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 기원사와 함께 하는 노래가 있는 저녁



기원사의 30년 역사는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주민들이 함께 일궈 온 따뜻하고 보람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노고와 다가올 시간의 희망을 함께 가꾸어 보는 노래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 멋들어진 시간에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화음과 유진박의 화려한 전자바이올린 선율이 함께 할 것이니 우리 동네는 하루저녁 극락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이 기쁜 자리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원장 지연 합장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일 시 : 2007년 11월 17일(토) 오후 5시
장 소 : 기원사 경내
출연진 :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가수 정태춘 박은옥, 파파스, 국악가 안희진 외 3명, 대금 조석호, 기원사 합창단

식순

1. 개회-사회 : 김병조
2. 주지스님 인사말씀
3. 큰스님 축사
4. 공연

출연진소개

• 사회 : 김병조
- 정태춘 박은옥 - 유진박
- 조석호(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
- 안희진(경기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이수자)
- 파파스(전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 기원사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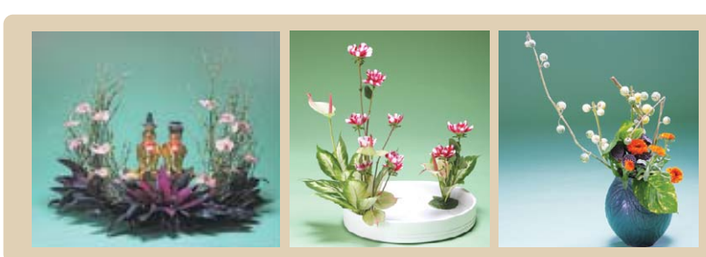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TEL 02)918-0034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통 꽃예술의 실기와 이론

한국 꽃예술과 불교





보림 지연 편저/ 도서출판 인아
263쪽 / 값 20,000원

꽃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 그 누구든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 과정을 분류하여 수록했습니다.

■ 꽃예술 과정 1~2 : 1)소재에 대한 기초기법 2)화기의 선택
3)수반꽂이와 병꽂이의 요령
4)수반 꽃꽂이의 19가지 형과 병꽃꽂이 14가지 형 外 각 화형에 대한 작품과 상세한 해설
■ 꽃예술 과정 3 : 자유 창작의 기본 원리인 선·면·매스 등 다양한 구성 기법을 21가지로 분류
■ 꽃예술 과정 4 : 1)불전공화의 역사적인 유래와 함께 이해를 돕는 설명
2)의식 및 재래명절을 세분하여 작품과 함께 해설





보림 지연스님
• 한국 꽃꽂이 협회(금연중앙회) 1972년 입문
• 현재 국내전 및 국제전 30회이상 출품
• 전국 불교꽃꽂이 연구 및 불교꽃예술원 원장(현)
• 전국 불교꽃꽂이 연합회 1988년 창립 및 초대회장 역임
• 봉녕사 승가대학 10년간 출강
• 2005년 7월 European Floral Art Course 과정 수료
• 한국화예디자인학회 이사(현)
• (사)한국꽃꽂이협회 이사 및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현)

구입문의 : 기원사 02)919-0034

꽃꽂이 강의 (초, 중, 고. 사범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기원사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불교꽃작품연구
※책을 구입하시는 분은 3개월 무료로 강의 수강 할 수 있습니다.(재료비 본인 부담)

현대불교 창간 13주년 특별이벤트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증전

[구입문의:02-2004-8200]



김광식선생 경면주사 반야심경

◆기증자 : 김광식 선생 ◆가격 : 150,000원
◆작품크기 : 36×41cm



현해스님 달마도

◆기증자 : 현해스님 ◆가격 : 130,000원
◆작품크기 : 26×34cm



현해스님 복하도

◆기증자 : 현해스님 ◆가격 : 130,000원
◆작품크기 : 26×34cm



벽암스님(전 신원사 조실)금니 글씨 1점

◆기증자 : 이란 ◆가격 : 1,000,000원
◆작품크기 : 32×113cm



원법스님(태고종 원로의원) 글씨 1점

◆기증자 : 원법스님 ◆가격 : 500,000원
◆작품크기 : 26×100cm



묵산스님 글씨

◆기증자 : 묵산스님 ◆가격 : 350,000원
◆작품크기 : 33×115cm



수증스님 그림 족자

◆가격 : 150,000원 ◆작품크기 : 19×45cm



금강경 금니 10폭 병풍 ◆가격 : 2,000,000원



도건스님 달마도

◆가격 : 150,000원
◆작품크기 : 38×6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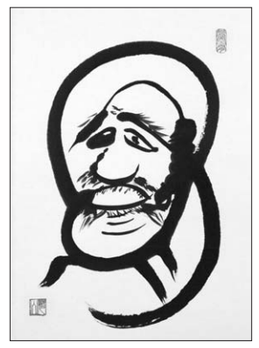
도건스님 달마도

◆가격 : 150,000원
◆작품크기 : 38×67cm



도건스님 금니달마도

◆가격 : 150,000원
◆작품크기 : 38×67cm



묵산스님 달마도1점

◆가격 : 150,000원
◆작품크기 : 35×50cm



지쪽스님기증 진언 2점

◆가격 : 500,000원
◆작품크기 : 34×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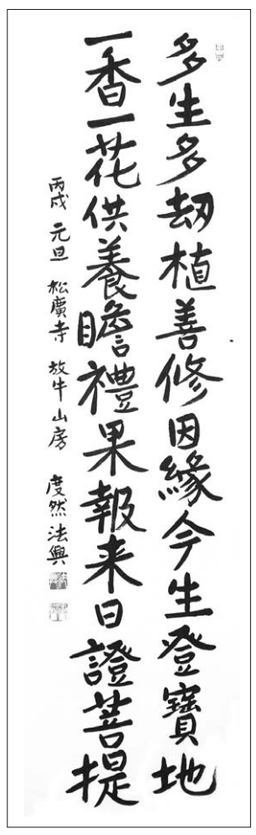
지쪽스님기증 글씨

◆가격 : 500,000원
◆작품크기 : 33×116cm



활안스님 오도송2점

◆가격 : 1,000,000원 ◆작품크기 : 33×103cm



법흥스님 글씨2점

◆가격 : 500,000원
◆작품크기 : 33×138cm



지쪽스님 기증 화엄경 약찬게 8폭 병풍

◆가격 : 1,000,000원 ◆작품크기 : 33×63cm

현대불교 창간 13주년 특별이벤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자수 30% 할인 한정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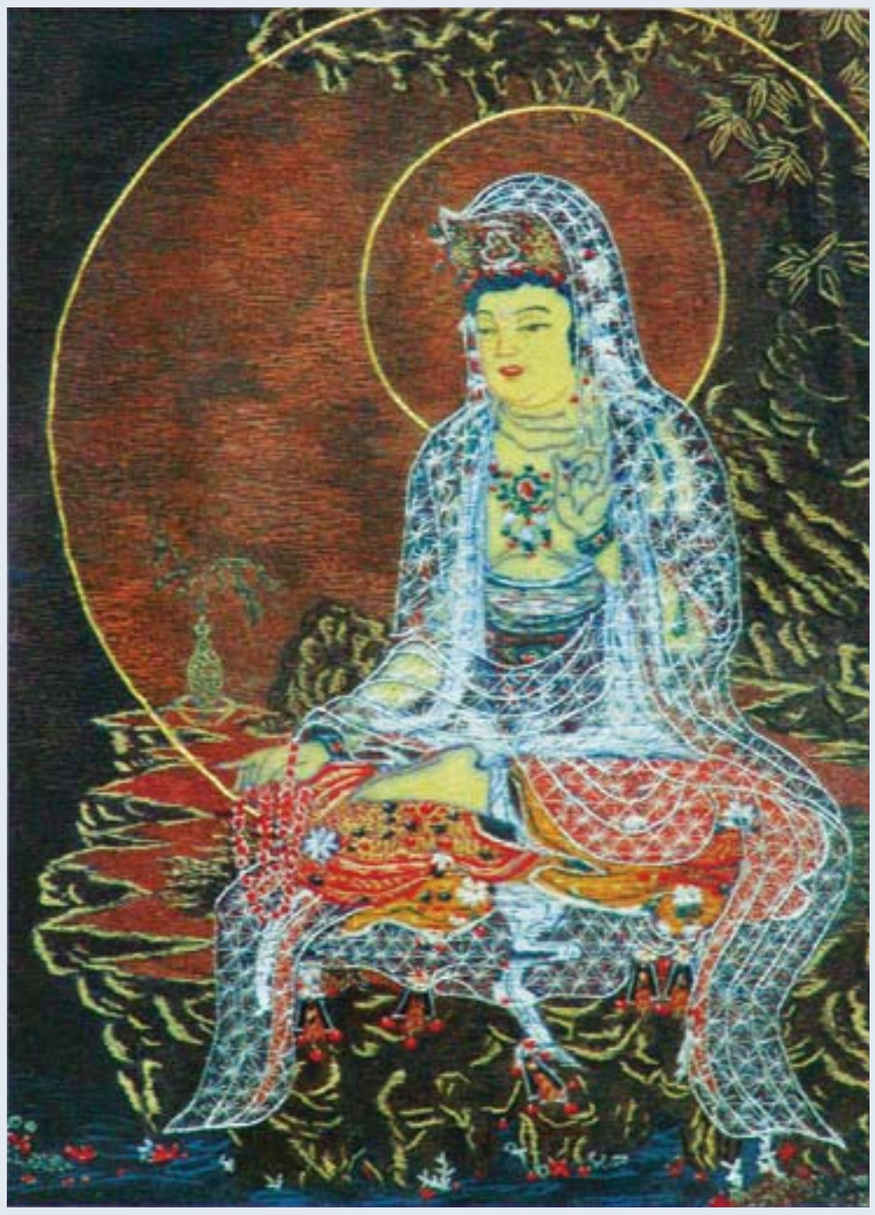
[구입문의:02-2004-8200]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 시간 지날수록 그 진가는 더해

국내의 전통자수는 고임금 고효율의 사회변화로 70년대 이후 한복자수와 특수한 목적의 종교화 등 몇 안 되는 분야에서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자수는 만수대 창작사 소속 1천2백여 수예창작단이 전통자수 외에 핸드포토(초상자수), 종교화, 소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산시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근세예술의 극치' 라고 인정받고 있다.

손자수의 예술적 가치

핸드포토는 한가지 대상을 놓고 100점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자수를 놓는 장인의 해석과 개성에 따라 각각 다른 감각과 질의 성품을 지닌 작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동양의 사상문화가 다시 조명 받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동양의 문화예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만수대 창작사' 의 초상자수는 외국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더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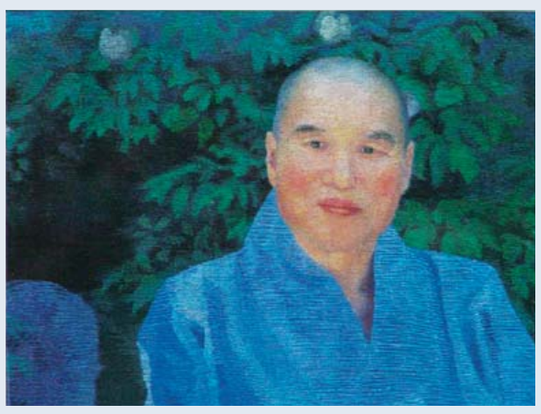
수월관음大(1점)
- 자수 크기 : 82.5(가로)×152(세로)cm
- 액자 크기 : 110(가로)×178(세로)cm
- 정상가격 : 3,000,000원 → 할인가격 : **2,100,000원**



백의관음(4점)
- 자수 크기 : 14(가로)×19(세로)cm
- 액자 크기 : 41(가로)×46(세로)cm
- 정상가격 : 150,000 →
  할인가격 :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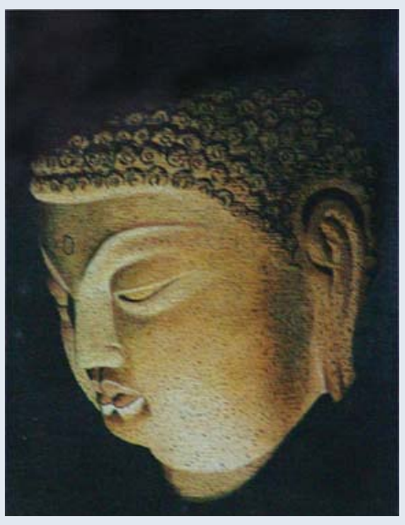
지장보살(5점)
- 자수 크기 : 9(가로)×23.5(세로)cm
- 액자 크기 : 31(가로)× 36(세로)cm
- 정상가격 : 150,000 →
  할인가격 : **105,000원**



성철스님1-정원(4점)
- 자수 크기 : 19(가로)×14(세로)cm
- 액자 크기 : 46(가로)×41(세로)cm
- 정상가격 : 150,000 → 할인가격 : **105,000원**



수월관음小(8점)
- 자수 크기 : 14(가로)×19(세로)cm
- 액자 크기 : 41(가로)×46(세로)cm
- 정상가격 : 150,000원 →
  할인가격 :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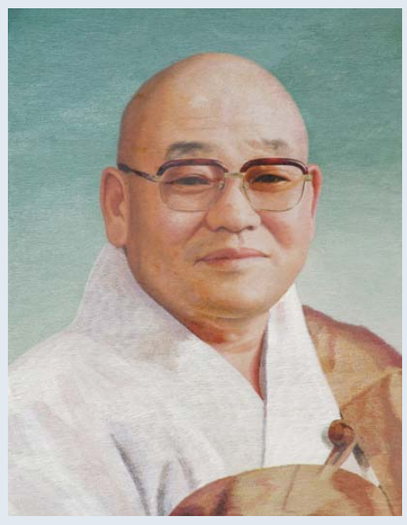
석굴암 불두(13점)
- 자수 크기 : 14(가로)×19(세로)cm
- 액자 크기 : 41(가로)×46(세로)cm
- 정상가격 : 150,000원 →
  할인가격 : **105,000원**



한용운스님(1점)
- 자수 크기 : 58(가로)×78(세로)cm
- 액자 크기 : 78(가로)×98(세로)cm
- 정상가격 : 1,000,000원 →
  할인가격 : **700,000원**



성철스님2-양산(10점)
- 자수 크기 : 14(가로)×19(세로)cm
- 액자 크기 : 41(가로)×46(세로)cm
- 정상가격 : 150,000원 →
  할인가격 : **105,000원**



법장스님(1점)
- 자수 크기 : 58(가로)× 87(세로)cm
- 액자 크기 : 76(가로)×106(세로)cm
- 정상가격 : 1,000,000원 →
  할인가격 : **700,000원**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女): 스님, 저는 제가 체험한 걸 좀 얘기할까 싶어서요. 얼마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부엌에 개미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개미가 물에 씻겨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지라,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휴, 개미야. 제발 부디 네가 살 데서 살아다오. 여기서 살지 말고 네가 살 곳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엌에 들어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아휴, 개미야!' 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거기서 나가줘!'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심(無心)에서 그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를 들어가 보았더니 부엌 씽크대 위 같은 데 개미가 참 많았는데 개미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왜 개미가 한 마리도 없지?'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상해서 개미가 좋아하는 설탕이니 빵 부스러기니 하는 거를 일부러 놓아보았어요, 부엌에다가. 그랬는데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개미가 안 오는 거예요. 부엌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서 거기도 개미가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아! 이 마음과 풀 한 포기가 본래 하나로 다 연결이 돼있다고 스님은 말씀하셨는데 아! 그런가봐. 내 마음이 개미와 통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깝고 가슴 아파했던 게 개미하고 한순간에 통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건가 아니면 개미가 여기가 살기 싫어서 갔는가….

▲스님: 좀, 좀 믿어 봐요. 하하. (대중 웃음)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고거 하나를 체험했을 때는 그 줄을 잡고선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야 돼요.

▲질문자3(女): 네.

▲스님: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 또 진드기 하나,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전부가 다 부처님의 뜻이니까. 전부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주와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 가설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어느 스님이 중단을 다 치워버렸어요, 부처님 한 분만 모셔놓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몸을 막 때려서 그냥 죽었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치우되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나한테로 다 넣고 그 물건만 치워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도 않는 데서 너는 너고 나는 나인 데서 치우니까 그 쪽에서는 내 몸을 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되면 모든 각처 각급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벌써 무심 도리(無心道理)에서 중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도 모두가 응집을 해가지고 같이 이끌어주는 중생들이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현(普賢)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3(女):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 마음이 그 많은 개미에게 다 마음이 전달이 될 수가 있구나!' 하니까 이제는 풀 한 포기를 보아도 함부로 뜯지도 못하겠고요, 어느 벌레 한 마리나 사람 누구를 보아도 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스님: 그러기에 옛날 선지식들은요, 짚신을 신고 방울을 달아서 저렁저렁저렁 하고 딛고 다녔어요. 미리 달아나라고, 그 소리를 듣고 밟히지 말고. 음, 이 식물 하나 무정물 하나도 전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 내면의 세계에서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도 낫게 되는 동기가 이 모든 걸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 죽일 수는 없거든. 이래서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막히게 할 수는 없거든, 또. 그러니까 길을 틔워주지. 남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여기선 벌써 알고 자기가 자기를 사기당하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싹 돌아서 옆으로 가게 만들지.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칼을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몸뚱이 있을 때 알아야지 몸뚱이 없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습니까. 죽어서도 중생의 의식이 그냥 있어서 여기서 그냥, 그림자 쫓아 다니듯이 나와서 와글와글하니 한 발짝도 떼놓을 수 없지. 또 강을 건너가려 하니 그 영혼이 자기가 이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의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봐 건너가질 못하잖아.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몇천 년을 그 강가에서 거닐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라는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 되는데 타 죽을까봐 못 들어가죠. 마음이라는 게 타 죽는 게 어딨고 타 죽지 않는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개미 하나 그러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만물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놀게 되고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하늘을 보고 기가 막혀서 앙청을 하고 땅을 보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질문자4(男): 제가 금방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을 때에는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현재 제가 느끼는 거는 심장 뛰는 것만 느껴지고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한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뭣고?'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지마는 '이게'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여기 오게 된 그 어떤 인연은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걸 의심을 하면서 화두처럼 참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주인공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는지 법을 설해주십시오.

▲스님: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뭣고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이 뭣고'라는 말에 착이 붙으면 끊어질까봐 두렵고 또는 무기공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뭣고? 이게 뭘까?' 하는 것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당당히 '네가 있으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것하고 '이게 뭣고?' 하는 것하고,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칼로 탁 잘라서 먹어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깐 놈의 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것을 칼로 잘라서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왕지사 배낭 지고 한번 나왔다가 이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갈 건데, 맛을 봐야 먹고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 맛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일체 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자기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 받아가지고 세상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이치를 꿰뚫어서 알기 위해서는 또 놓고 뭉쳐 놓고 뭉쳐 놓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나라는 존재를 세우고 그렇게 보임(保任)을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미(迷)해지니까요. 세상의 도리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세상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가다가 정히 그것이 사사로이 쓰이는 게 아니고 남이 불쌍해서 쓰인다거나 또는 피치 못할 일이 있

☞22면으로 계속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제1198돌 개산대재

미타도량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에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원효(元曉)스님, 우리 문자의 기틀을 마련하신 설총선생, 민족의 자족. 자존. 자주역사를 최초로 선양한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선사(一然禪師) 등 삼성현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도량입니다.

현 은해사는 종립 승가대학원과 3개의 선원을 운영하여 인재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는 개산일에는 개산대재 법요식.보살계.만등불사 그리고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하오니 꼭 동참하시어 지혜와 복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년 10월

은해사 수림장(樹林葬) 안내

수림장은 고인의 유골분을 지정된 나무 아래에 봉안하는 가장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본사가 시행함으로써 선진 장례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영생을 의미하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효행목이 되어 가족들이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는 천년 성지이다.

전화상담 : 054)335-0566 www. surimjang.co.kr

● 개산대재 보살계 · 만등불사 대법회 안내

■ **2007년 10월 20일 (음 9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제 - 부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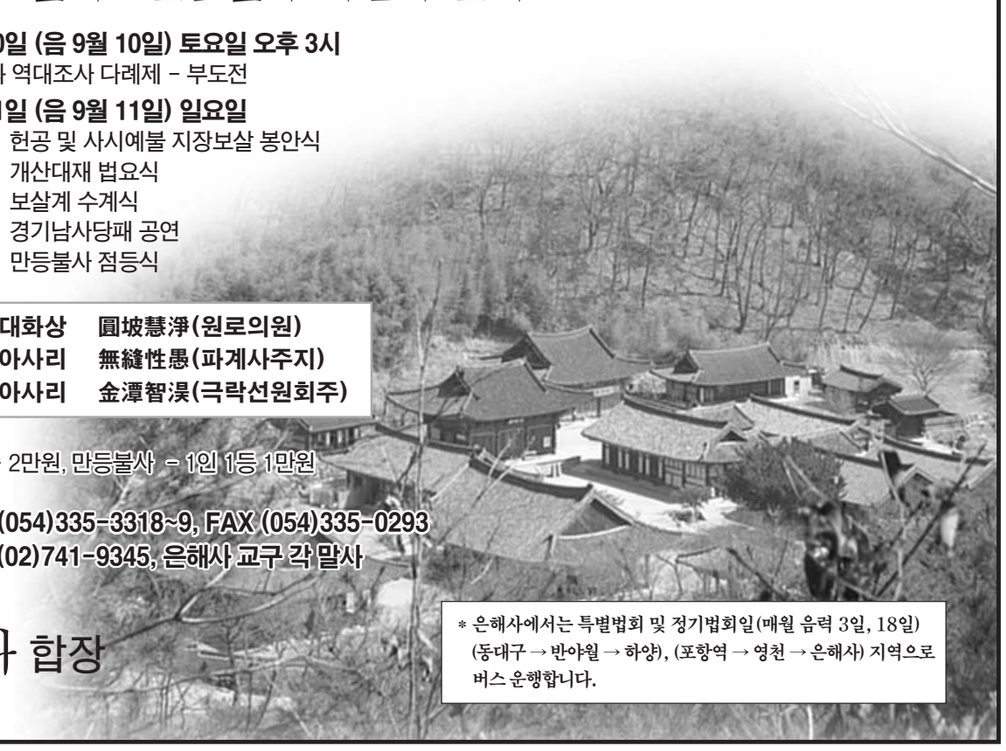
■ **2007년 10월 21일 (음 9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헌공 및 사시예불 지장보살 봉안식
오전 11시		개산대재 법요식
오후 1시 30분		보살계 수계식
오후 4시		경기남사당패 공연
오후 7시		만등불사 점등식

三師	전계대화상	圓坡慧淨(원로의원)
	교수아사리	無縫性愚(파계사주지)
	갈마아사리	金潭智湜(극락선원회주)

■ **동참금** : 보살계 - 2만원,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접수처** : **은해사 (054)335-3318~9, FAX (054)335-0293**
평불협 (02)741-9345, 은해사 교구 각 말사



* 은해사에서는 특별법회 및 정기법회일(매월 음력 3일, 18일) (동대구 → 반야월 → 하양), (포항역 → 영천 → 은해사) 지역으로 버스 운행합니다.

제10교구 본사 팔공산 은해사 주지 중화 법타 합장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

식물 하나, 무정물 하나도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

☞21면에서 계속

어서 쓰인다거나 이런다면 가차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이사를 가는데 비가 오면 그게 다 그냥 젖는 겁니다. 이게 잘사는 집이 이사를 가는 것 같으면 괜찮아. 못사는 사람이 이삿짐을 그 차에다 실어가지곤 거기에 사람도 타고 이래야 할 텐데 비가 오면 엉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하는데 이사 갈 동안만이라도 비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러기에 "날더러 '해주세요'가 아니다 네가 해라. '나 갈 동안까지 비가 안 오게 해야지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텔레비전에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했다는데 이사할 동안은 비가 안 와서 잘 갖다 놓고 나니 그날 저녁에 비가 오더랍니다. 하하하. 이렇게 사람이 비를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비가 사람을 피해주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걸로 한 가지를 체험한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질문할 사람 또 없습니까?

▲질문자5(男): 이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공부 삼아서 이사에 관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분처럼 가난한 이사인데 그 세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이사 가는 것을 빨리 들어가기는 해야겠는데, 제 마음에 어떤 결정이 안 나고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뜻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스님이 지도하신 대로 주인공에다 이제 턱 맡겨놓았는데, 저한테 이사를 권했던 분들이 "이사를 언제 가려느냐? 갈래 안 갈래?"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 제가 잘 몰라요, 맡기고만 있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노릇인가? 저 스스로도 주인공한테 맡겼는데 이거 잘못 맡겨졌는가? (대중 웃음) 그 여러 가지로 좀….

▲스님: 맡기는 도리도 이렇습니다. 맡기기만 해서도 이게 딱! 침을 딱! 정면에 찌르는 소리가 못 됩니다. 정히 급하면 '당신만이, 당신만이 가게 할 수 있고, 또는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 마음이 정돈되어서 정할 수 있도록 당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맡기세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 그대로 눌러앉는 게 좋겠느냐, 가는 게 좋겠느냐?' 하고 잘 생각해봐서 눌러앉고 싶으면 그냥 눌러앉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는 거보다도 댁에서는 눌러앉는 게 더 좋을 거 같지 않아요? 하하하. (대중 웃음) 아는 사람이 더러 이렇게 서로 마음도 알아주고 돌보아주니깐 말입니다.

▲질문자6(男): 스님, 저는 이제 스님을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 7월에 우연히 『도(道)』라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무(無)』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뵙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묻는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주인공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개구리 찾아 나선 아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엄마 곁에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주인공을 몰라서 그런지 또는 아이들이 주인공을 몰라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무슨 애들이?

▲질문자6(男): 대구에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아마 100일

>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
>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 전부가 다
> 부처님의 뜻이니까,
> 전부 불성이 있으니까,
> 부처님 아니 되는 게
> 하나도 없어요!
> 그렇게 연결이 돼서
> 돌아가니까요.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 중에는 혹시 스님을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을 전부 믿는다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지금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인연 따라서 온 업보라고 볼 수 있겠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불들어서 방에다 앉혀놓았는데 목말라서 죽겠다고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다주니까 코를 박고 죽었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거, 또 영계성이니 유전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공부. 물론 세상이 바뀌어지고 온통 땅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 애들은 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두가 잘 있다기만 하면 되느냐 이러겠지만, 하여튼 잘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죠. (대중 박수)

▲질문자7(女): 전번에 스님께서 KBS에 오셨을 때 먼 빛으로 뵈었고 가깝게 뵈오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스님: 예.

▲질문자7(女): 다름이 아니옵고 어느 자식이든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한 10개월째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고 그런데 제가 금방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제가 한 20년 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불에 태운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머리에 싹 스쳐가면서 가슴이 막 떨리고 이렇거든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뭘 태웠다고요?

▲질문자7(女): 저 바퀴벌레요, 그런 걸 제가 태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머리에 스쳐가는….

▲스님: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죠. 허허허. 그게 인간의 양심인데, 바퀴벌레 몸은 비록 없어졌으나 그 바퀴벌레가 타 죽을 때 그 애틋한 쓰라림 그런 것도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8(女): 저는 스님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저의 남편이 어쩌다가 그런 직업을 붙들었어요.

▲스님: 무슨 직업요?

▲질문자8(女): 돼지 새끼를 잡아서 식당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런 직업이거든요. 이제껏 그런 일을 해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죄를 받아서 그랬는지 항상 마음에 그렇게 걸려요. 저는 통 건강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째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 그럴 거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돼지 새끼가, 모습을 돼지로다가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시키면 외려 잡은 것이 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생각 차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깐 주인공에다 맡기시면서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인도환생을 할 수 있게끔, 당신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병에도 영향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질문자8(女): 장어 같은 거 먹어도 괜찮습니까?

▲스님: 장어 같은 거 잡으랬습니까, 어디? 하하하.

▲질문자8(女): 장어 같은 거 그런 거 고아서….

▲스님: 예, 고아서 그 물을 먹어도 좋은데 절대로 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 거를 토막 칠 때에 토막 쳤던 그 자리를 먹으면 누구든지 병이 들어요. 그건 전부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절대로 산 거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분열이 된 사람들을 보면 산 짐승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손들을 갖다가 둘씩 셋씩 정신병자로

>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 물러서지 않는
> 담력이 필요합니다!
> 밤중에 두려움 없는 것도
> 내 마음을 발견해야
> 두려움이
> 없어지는 겁니다.
> 둘이 아닌 까닭에
>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만들고 또는 불구자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현실에 알고 그렇게 했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질문자8(女): 그러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스님: 직업에 귀천이 어딨습니까? 돼지를 갖다가 사람으로 만든다면 좋죠. 그런데 돼지를 백 마리를 죽였다고 해도 한 사람만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하하. 그런 법이 부처님의 묘법이죠. 영은, 이 영혼이라는 건 그냥 백, 이백, 천 개를 갖다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가 불가사의한 문제들이지만 그거는 무심(無心)의 도리, 도법이기 때문에 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죽일 때마다 모든 거는 주인공에 맡기시고, 잘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천도를 시켜달라는 둥, 뭐 환생을 시켜달라는 둥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신만이 처리를 해주실 수 있다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관하세요.

내가 애들더러는 그럽니다. "친구야! 이 친구만이, 네 친구만이 이거를 해줄 수 있다. 한마음만이 이거를 해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이거를 해줄 수 있다." 만날 이렇게 사람 봐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하는 거 일러준 대로 하세요.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그럼, 그만하면 한 얘기만 하고 그만두죠.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한 스님께서 아마 3월달이 생신인데 어느 날인지, 그것도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여앉아 있는 데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첫째, 대장부가 방귀씨 눈을 왜 틔우지 못하는가? 둘째, 대장부가 귀신 방귀털을 더하고 덜함도 없이 먹여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가? 셋째, 대장부가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왜 끊어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 사람도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산천은 두루 푸르른데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한 손 들어 하늘을 꿰어 돌고
한 발 들어 땅을 디디니
일곱 발짝 떼어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더랍니다. 허허허. 그럼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두려움이 없는 것도 내 마음을 발견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두려움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담하게 나설 수도 있는 건데, 하하하.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모두 웃고만 계시니깐 모두 도인들만 계신 모양이야. 하하하.

그럼,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며) 요다음에는 내가 설법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자청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위 법문은 1991년 10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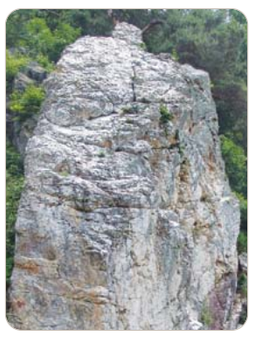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요.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다층 탑인,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전설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쌀바위)이라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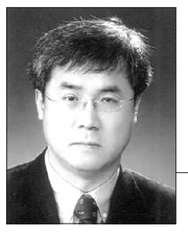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북경협과 불교계의 과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선언과 이산가족 확대 그리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 등 분단국가로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의선 철도운행,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 등 대규모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경협사업에 대한 자금규모나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차기 정부로의 순조로운 이양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울러 북핵 등 북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완전하지 못한 점 등도 불안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이행만 된다면 통일로 가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성공은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남한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이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불교계도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주요 골자인 공동어로구역 설치, 해주항의 민간 선박 직항로 통과 등은 군사적으로 예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듯이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우리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인데 이러한 의지는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계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화합하여 남북의 신뢰회복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간의 종교인의 만남을 정기화하여 종교계가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불교연구사업, 인력교류 및 불교학술회의 개최, 북한 주민의 식량과 질병 등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불자대북협력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여 남북간의 벽을 허무는데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한 남북경협협력기금조성에 불교계가 동참하여 기금확대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합리적인 재원조달방법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민간자본 유치활동에도 친불교계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녘땅에 사찰건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북녘땅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남북간 신뢰를 하나하나씩 쌓아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불미스런 사건 하나로 온 나라가 어지럽고 무분별한 언론의 폭력에 불교계가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불교계가 다시 장엄한 위용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계가 구국을 위해 항상 동참하여왔듯이 이번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 불교계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다.

‘종교자유’ 칼럼 31. 역사적 판결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강의석씨 대광고에 승소, 학내 종교자유 신장 계기 돼야

지난 10월 5일 서울지방법원(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은 “대광고는 강의석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가 종교의식을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2004년 6월 당시 대광고 학생회장이었던 강씨(현재 서울법대 3학년)가 단식농성과 1인시위를 통해 ‘예배선택권’을 달라며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한지 3년 반, 그 후 2005년 10월 7일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지 꼭 2년만이다.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종교의 교리를 주입하고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상위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요지다.

종교사학의 관행적 강제선교가 위법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 데 수십 년이 걸린 셈이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이유 없이 당해온 심적 고통을 걷어낸 순간이며, 가히 역사적 판결이라 할 만하다.


대광고에 승소한 강의석씨(가운데).

지난 3년은 참으로 긴,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때로는 현실에 대한 인식 차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의 안타까운 반응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원군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대광고측의 지연작전으로 두 해나 넘기면서 이 사건은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했으나, 강씨의 굳은 의지와 종교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인권사에 남을 만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더구나 예배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이유로 당시 교장과 지도교사가 학생들에게 몽둥이로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그동안 강제성이 없었다는 대광고측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대광고측이 1심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도 1~2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종교사학들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1974년부터 시작된 평준화 제도에만 돌린다는 점이다. ‘선지원 후 추첨’ 제도를 확대 실시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입학했으니 이의 없이 종교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선지원 후 추첨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미봉책으로는 학교선택의 형평성과 개종의 자유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모든 학교에게 선지원 제도를 적용하면 특정종교의 사립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타종교 또는 무종교인들에겐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차별을 피할 길이 없다. 더 본질적으로는 설사 특정종교인으로 학교를 선택했더라도 신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전학이라는 번거로운 방법 외에 개종의 자유가 보장될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학습권 이전에 종교가 우선인 공교육기관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종교와 교육, 그리고 헌법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다른 아쉬움도 있다. 법원이 “교육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집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함으로써 서울시 교육청의 감독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고의나 과실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에 반하는 판결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수십 년 간 수백만 학생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은 거의 교육부의 무감각과 무책임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배 부장판사도 선고 직후 부연 설명을 통해 “양측이 서로 접점을 찾도록 교육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심의 한마디로 들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는 구체적인 입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권 · 평등권 · 행복권 등의 시민권을 확대하는 추세다. 설문조사 결과 헌법학자들의 80% 이상이 종교사학일지라도 종교 강요는 위헌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계 학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처럼 무리한 종교교육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종교가 소모적인 인권침해 공방에 휘말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불자의 눈

행복한 삶의 동반자 깨침의 길 여는 선구자 되리

– 창간 13주년을 맞으며 –

1994년 10월 15일 불교계에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을 표방하며 현대불교신문이 창간됐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걸고 인류의 행복과 깨침의 길을 여는 선구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다. 그리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현대불교가 하려고 노력했고 언제해도 할 일이면 그 즉시 실행하려 했다. 또 기왕 하는 일이면 최고로 하고자 정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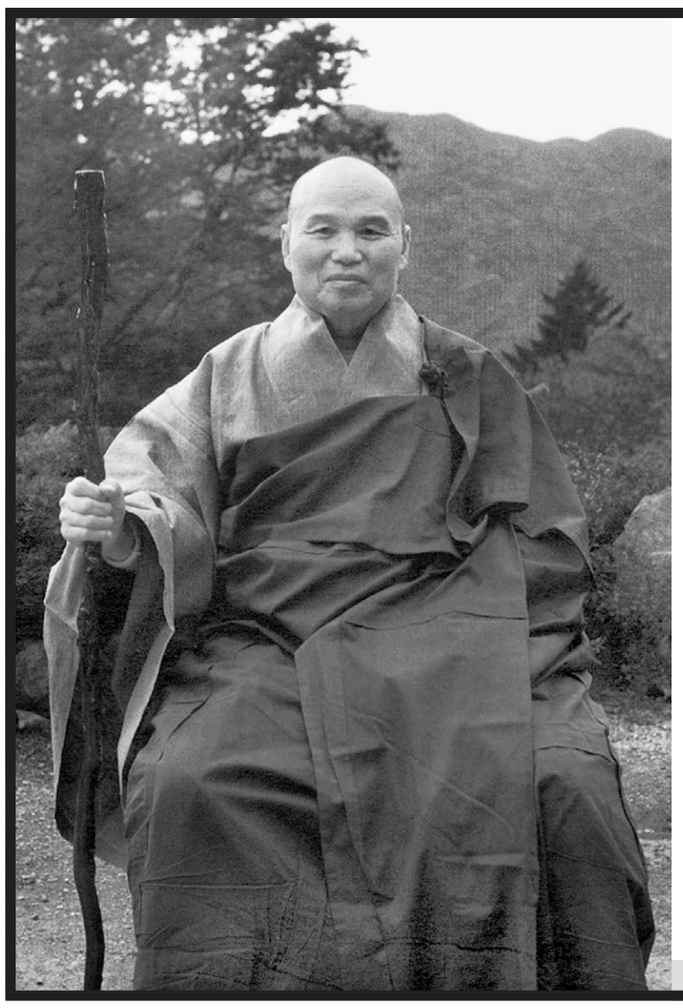
그런 다부진 각오로 시작한 현대불교는 불교계의 언론 환경을 몇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을 들으며 불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신문에 비해 편집과 기사의 중량이 돋보였고 각종 사업을 통해 포교와 불자의 문화생활 증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세상이 열리는 때를 미리 감지하고 온라인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 뉴스 매체를 운영했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도 단연 앞장 서 왔다.

현대불교는 불교의 현대화와 세계화의 길을 확실하게 예감했고 그 길을 닦는 일에 상당한 공력을 기울였다. 지면의 한계를 온라인(붓다뉴스 · 부다피아)을 통해 뛰어 넘었고 불자들의 시각을 거시적으로 교정하는데 앞장섰다. 그러한 선구적 역할에는 각 종단의 격려와 지원, 불자 대중의 관심과 동참이 큰 도움이었다. 그래서 각 종단과 불자대중의 권익을 위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위해 현대불교는 보다 더 크고 효율적인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다. 감히 말하건대, 현대불교는 지난 13년 동안 불자대중들이 보내 준 사랑을 앞선 감각과 성실한 결과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다.

시련도 있었다. 경영 사정이 여의치 못해 폐간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물론 그 위기는 불자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에 집착했던 스스로의 탓이었다. 그래서 현대불교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피를 줄였고 대주주와 독자 그리고 불교계 전체를 향해 참회와 새로운 다짐을 바쳤다. 넘어진 땅을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고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던 것이다. 위기는 기회였고 새로움의 시작이었다. 눈물겹게도, 황공스럽게도, 가슴 벅차게도 현대불교를 아끼는 사부대중의 열의가 엄청나게 크고 뜨거움을 깨치는 계기였다.

이제, 현대불교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도 충분히 다졌다. 독자와 불자대중의 사랑, 그 큰 도약대를 우리는 십분 활용할 것이다. 그 사랑은 불교계를 위한, 혼돈의 한국사회를 위한, 인류와 세계를 위한 견고한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현대불교는 불자만을 위한 언론이기 보다는 범 인류의 행복을 열어가는 언론이고자 한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채워주는 그릇이기 보다는 온 인류에게 깨침의 길을 열어 주는 선구자가 되고자 한다.

현재 불교계 언론으로서는 유일하게 흑자운영 체계를 수립한 만큼, 보다 당당하고 보다 건실하게 불자대중의 사랑을 인류의 행복과 깨침으로 회향하는 현대불교가 될 것을 다짐하는 바다.



성철대종사 열반 14주기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 /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철 대종사 열반 14주기를 맞이하여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2007년 성철대종사 열반 14주기는, 해방 후 ‘부처님 법대로 살자’ 고 모인 봉암사 결사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불교의 자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니, 남을 위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참회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 생전의 그 큰 가르침은 세월이 더할수록 마음의 눈을 닦아가려는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위안이요 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는 올해도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주일 동안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종교를 나의 종교처럼 존중하고,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두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나의 일천배가 뭇 중생을 위한 팔만사천배의 회향이 되도록 모두 동참하시어 이 땅이 불국토의 자비와 복덕이 두루 넘치기를 바랍니다.

● **첫째날(10월 23일) 마음이 불행하고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 세상 곳곳에 마음이 불행하고 몸이 아픈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고통입니다.
● **둘째날(10월 24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기도**
- 어둡고 험한 곳만을 찾아다닌 부처님처럼, 소외받는 이웃에게 작은 마음을 바치고자 합니다.
● **셋째날(10월 25일) 자유와 권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기도**
- 천상천하 유아독존, 삶의 자유와 권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누려야 할 최상의 선입니다.
● **넷째날(10월 26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기도**
-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서로의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다섯째날(10월 27일) 북녘 동포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 이념의 벽,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 **여섯째날(10월 28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
- 나는 새, 서 있는 바위, 흐르는 물 할 것 없이 자연의 온갖 생명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 **일곱째날(10월 29일) 영원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
- 팔만 사천 번뇌를 홀홀 털고 영원한 행복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발원합니다.

【 】

▶**입 재** | 2007년 10월 23일(음 9월 13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회 향** | 2007년 10월 30일(음 9월 20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3천배 참회기도** | 2007년 10월 29일, 오전 10시~오후 6시, 큰스님 사리탑
▶**추 모 재** | 2007년 10월 30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
※정념당에서는 칠일칠야 동안 참선정진을 합니다.

▶**기도방법** | 매 두시간 단위로 천 배씩 이어집니다.
▶**준 비 물** | 상하 법복(고름 있는 것), 수건, 세면용품 등을 준비하십시오.
▶**동참방법** | 1인 5만원. 농협 843174-51-013873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문의전화** | 백련암(055)932-7300, 고심정사(051)464-0068~9, 장경각(02)2198-5372
※**부산 매일 관광버스 운행** · 출발 | 오전 6시 30분 중앙동 고심정사 앞 · 백련암 출발 | 오후 4시

| **해인사 백련암 성철스님 문도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문의 전화 055) 932-7300 / 인터넷 http://www.songchol.net

“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



雲巖 임시정부 국무위원
사단법인 운암김성숙(태허스님)기념사업회
www.kimsungsuk.or.kr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2 우정에쉐르B/D 3층
Tel:(02)391-9100, FAX:(02)391-5600

2008년 4월
이 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운암 김성숙(태허스님)
(1898.3.10 ~ 1969.4.12)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쟁하고 정의와 대중복리를 위해 모든 사회악과 싸우며 한 평생 가시밭길에서 오직 이상과 조국을 위해서 살다간 임시정부 국무위원 출신의 운암 김성숙(태허스님 1898.3.10~1969.4.12)을 2008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2008년 4월의 독립운동가 운암선생 캘린더가 나옵니다.
필요하신분은 기념사업회로 연락주세요.(02-391-9100)

국가보훈처 · 광복회 · 독립기념관

현대불교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2007년 10월 17일 수요일 제 649 호 B1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피나투보 봉사 현장

작은 정성이 큰 기쁨으로…

지난 10월 1일 새벽 4시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내에서 출발, 10여 시간을 자동차로 달려 도착한 피나투보산 아래 마을 바랑가이. 기계 문명을 일부러 외면이라도 한 듯한 바랑가이는 이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낭만적인 마을이 아닌 세상과 외떨어진 산 밑에 대충 꾸려진 농촌이었다.

전력시설이 아예 없어 해가 뜨는 낮 이외에는 사람을 거의 식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주지 법관) 봉사팀 10여명은 서둘러 낮에 이 마을에 도착했다. 의료 혜택은 고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마땅치 않은 이 곳 주민들에게 보시행을 펼치기 위해서다.

국민의 70% 이상이 가난에 허덕이는 이 나라에서 하필 이들은 왜 이 곳을 택했을까? 우선 궁금했다. 이유는 이랬다. 1991년 6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해 산의 절반이 날아갔다.

50억톤에 달하는 용암이 흘러내려 이 일대를 폐허로 만들었다. 이 화산 폭발로 4만호의 가옥이 잿더미로 변했다. 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9000여명이 숨졌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이재민들은 산 아래 풀이 나는 곳을 찾아 움막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며 근근히 살아간다. 필리핀에서 가장 빈민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봉사팀은 매월 1~2회씩 이 곳을 찾는다. 마을은 산을 중심으로 10여 곳 이상이 형성돼 있다. 요즘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라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 마을은 물이 많이 불어나 찾아갈 엄두도 못낸다.

이날 봉사팀은 며칠 전 불어 닥친 태풍 때문에 길이 없어져 도로 사정이 그나마 좋은 바랑가이 마을을 행선지로 정했다. 도로 사정이 좋다지만 마을 아래까지만 차가 갈 뿐 그 곳에서 20여분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마을이 나왔다.

봉사팀이 마을에 도착하자 이들을 기억하는 듯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어린이와 청년 몇 명이 달려오더니 차에 있던 구호품들을 산 위 마을로 나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마을 중앙에 봉사캠프를 차린 봉사팀 앞에 여기저기 산 아래 흩어져 있던 마을 주민 100여명이 순식간에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들었다. 외부에서 누가 찾아오면 이들 나름대로 비상 연락망이 있다고 했다.

〈B2면에서 계속〉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3주년 을 축하합니다."



현대건축과 고건축 의 새로운 지평을
(株)泙建 이 열어드립니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泙建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construction & design PYECONGKEON

전기·수도세까지 아껴가며 보시행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피나투보 봉사 현장


이미용팀의 윤윤선 보살이 어린아이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 아이가 겁을 내서 할머니가 잡고 있다

〈B1면에서 계속〉

봉사팀은 크게 의료팀과 이미용팀으로 나눠졌다. 의료팀은 김진식(51 · 케손 그린치과)원장과 하환(52 · 알라방 고려한의원)원장이 주로 맡는다. 또한 이미용팀은 윤윤선(38 · 마카티 아라레스토랑)사장 · 박숙(38 · 비치여행사 사장)보살이 가위를 잡고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준다.

봉사팀들이 각자 맡은 봉사를 시작하자마자 20대 아줌마가 뛰어와 연실 머리를 조아리며 "마라밍 살라맛 뽀(Maraming salamat po-매우 감사합니다)"를 외친다. 그녀의 이름은 걸리(24)인데 자신의 딸 다닐라(3)가 지난달 뎅기(열말라리아의 일종)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것을 하환 원장이 침을 놔 준 뒤 온 몸에 열이 가라 앉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눈물을 글썽이며 무척 감사해 했다. 생활이 어려워 아파도 참고 살아야 했던 주민들에게 봉사팀의 진료 활동은 매우 값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


2

3

봉사를 시작한지 3년동안 한번도 빠진적이 없다는 김진식 원장은 "짧은 시간내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치를 뽑아주는 단순한 치료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면서 "이렇게나마 응급처치를 해주지만 아픈 것이 나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솟구치며 환희심을 느낀다"고 보람 있어 했다. 하환 원장은 한의사인 두 아들과 함께 번갈아 가며 가족이 봉사에 참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처음에는 '한방침'이 뭔지 몰라 생소해 했던 마을 주민들이 간단한 침시술로 아픈 곳이 낫자 이제는 한의사인 이들 세 부자만 오면 아픈 곳을 가리키며 서로 먼저 봐달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침술로 치료가 안 되는 중병도 많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의료 봉사가 펼쳐지는 옆에선 윤윤선, 박숙 보살이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발은 별로 인기가 없어 보였다. 줄을 서는 아이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윤 보살은 "아이들이 머리 깎는 것을 싫어해 머리를 다 자르고 나면 빵을 하나씩 주는 등 호객(?) 행위를 해서 이발을 해주고 있다"며 "이런 마을에는 물이 귀해 아이들이 머리를 자주 안 감기 때문에 머리마저 자르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이가 생겨 건강에 좋지 않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식량과 의류 및 보시 물품을 나눠 주는 것이었다. 이날은 쌀 10가마, 옷 5박스, 빵 200봉지, 라면 5박스, 과자 2박스, 과일 2상자 등이 마을 주민들 손에 쥐어졌다. 이영실 보살(50)과 홍성길 거사(51)가 법관 스님을 도와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 주었다.

홍성길 거사는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봉사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큰 기쁨과 행복을 한아름 받아들고 가는 것 같다. 그 맛 때문에 힘들지만 매달 이 봉사행이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옆에서 물품을 받아든 마을 이장 제임슨(65)은 "만성 질병에 속수무책이었어요.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산에서 나는 풀을 삶아 먹고 사는데 가끔씩 봉사팀이 와서 너무 좋아요. 이제는 멀리서 차 소리만 들려도 봉사팀인줄 착각이 들 정도로 기다려집니다"고 감격해 했다.


4

낮 12시부터 시작된 봉사는 오후 6시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끝이 났다. 반나절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팀이 이들에게 주고 가는 것은 단순히 치료와 부족한 물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자비의 정신이었다.

이영실 보살은 "이 곳 교민신도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아 후원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을 비롯해 우리 봉사 단원들은 절에 전기세와 수도세 등을 아껴가며 보시 물품을 마련하지요"라며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안써 절약하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혼연일체가 돼서 긴축재정을 펼칩니다"고 말했다.

피나투보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이 말을 듣자마자 경우는 다르지만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업가인 쉰들러가 독일군 장교에게 수용소에서 빼내는 사람 숫자대로 뇌물을 주며 1100명의 유태인을 구해낸다는 '쉰들러리스트'다. 그때 쉰들러는 이렇게 혼자 속삭인다. "내가 차고 있는 이 금반지와 자동차 하나를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글 · 사진/필리핀 피나투보=김주일 기자

1.바랑가이 주민들과 함께 법관 스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이영실 보살(사진 왼쪽)이 주민들에게 쌀과 빵 등을 나눠주고 있다.
3. 침술 봉사를 하고 있는 하재진 한의사.
4. 필리핀 경주 불국사 포교원 봉사팀의 주역들. 왼쪽부터 윤윤선 · 박숙 · 이영실 보살, 법관 스님, 홍성길 거사.

"봉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주지 법관 스님

"피나투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과 옷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생 및 의료 상식에 대한 교육, 글을 가르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지요."

포교원 개원 이듬해인 2001년부터 피나투보 자원 봉사에 나선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주지 법관 스님(사진)은 당장 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교육이다.

봉사행을 펼치는 스님에겐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봉사하면서 절대 불교를 믿으라고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봉사팀은 순수하게 봉사가 좋아서 시작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김진식 원장님은 불자지만 가끔씩 교회 봉사 현장에도 가지요. 최근 한국의 모 교회서 아프카니스탄에 가 선교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문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봉사 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 더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빵과 옷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며 봉사의 참 정신을 강조했다.

한편 법관 스님은 2006년 조계종 해외포교상을 받기도 했으며, 올해에는 라모스 前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구찌 평화상도 수상했다. 또한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의 봉사활동은 민영방송인 '스튜디오 23TV'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기도 했다.



대한불교삼론종

봉행 좋은 환경 물려주기 대승보살 실천수계 대법회 행

삼 화 상 : 전계아사리 - 석 혜공 종정 갈마아사리 - 석 혜승 부종정 교수아사리 - 석 대안 승정원장

대 회 장 : 석 진봉 총무원장 칠 증 사 : 석 지운, 석 인봉, 석 은곡, 석 지심, 석 승봉, 석 향운, 석 초원

봉행위원장 : 석 지경 종회의장 집행위원장 : 석 해불 기획위원장 : 석 도우

지도위원장 : 석 지성 봉사위원장 : 석 지향 의 식 집 전 : 석 성희, 석 도일

• 일 시 : 2007년 10월 25일 12시 • 장 소 : 대전 평송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 전화 02)937-0343 / 팩스 02)937-0344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불자의 길에 나이·국경 상관 없어요"

조계사 이색법회 '눈길'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에 이색법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10월 6일에는 유아 수기(授記) 법회가, 7일에는 이주노동자 수계법회가 각각 봉행됐다. 조계사 창건기념주간으로 열린 두 법회는 포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유아에게 마정수기 의식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이주노동자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동우 기자>

주지 원담 스님, 유아 150여 명에 '마정수기' 형식 재현
이주노동자 300여 명 청화 스님에 계 받고 '불자의 길'로

▲유아 수기법회="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뜨게 하옵시고 배움에 철저하고 언행이 일치하며 지난날을 거울삼아 오늘에 충실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미래를 개척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신념 있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소서."

10월 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유아들이 대거 등장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는 유아들도 있었지만 품에 안긴 유아들도 보였다. 이날 150여 유아들이 전계사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에게 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여명의 임산부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계를 받아 화제가 됐다.

법회는 〈본생담〉 등에 나오는 마정수기(摩頂授記) 형식을 재현했다. 마정수기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그대는 미래에 뭐가 되리라"고 예언하면서 제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진다는 뜻이다.

원담 스님은 유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뒤 "좋은 불보살님이 되세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일 새벽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받아온 청수(淸水)를 이용해 검지로 유아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세 번 눌렀다. 또 손가락 끝에 묻은 청수를 머리에 가볍게 뿌렸다. 몇 명 유아들은 새로운 경험에 놀라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계사 스님들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을 기념해 계를 받은 유아들에게 오색실을 손목에 감아주었다. 원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유아들에게 부처님의 선근 인연을 맺게 해 줘 기쁘다"며 "1년에 두 차례 정도 유아 수기법회를 봉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수계법회=10월 7일 서울 조계사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했다. 이주노동자 수계법회에 참여하는 이들이다.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몽고 티베트 방글라데시 등 300여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았다.

주지 원담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말씀처럼 신앙의 힘으로 거칠고 고된 일들을 버텨내고 또한 정진과 근면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명실 공히 한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불교 지원단체협의회 회장 보림 스님은 "오늘 수계법회를 통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져 계행이 청정하고 마음이 안정돼 한국 생활에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대신했다.

이날 스리랑카 우뿔 라네완사, 네팔 나왕 텐진, 방글라데시 헤밀튼, 몽골 뭉크 낫산, 미얀마 뮤텐좌씨가 참석자들 대표로 계첩을 받았다.

나렌드라 구릉 네팔 불자모임 회장은 "항상 고향의 가족과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부처님의 제자됨을 기뻐하게 해 줄 것"을 발원했다.

수계법회 후 조계사 경내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 진료, 미용서비스, 은행계좌 서비스 등이 이뤄졌으며 체험마당, 공연마당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이주노동자 손도장 찍기 행사가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 새 부장단 임명

총무 원학·재무 장적·사회 세영·호법 정만 스님

조계종 새 총무부장에 원학, 재무부장에 장적, 사회부장에 세영, 호법부장에 정만 스님(사진 맨 왼쪽부터 차례로)이 10월 9일 임명됐다.

원학 스님은 1965년 사미계, 7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연화사와 용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77년 사미계, 78년 구족계를 수지한 장적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다. 12·13·14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세영 스님은 1976년 사미계, 8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만기사와 수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여주 신륵사 주지.

1977년 사미계, 79년 구족계를 수지한 정만 스님은 불국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제12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종단 안팎으로 시끄러운 만큼 기도하는 정신으로 종단을 안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원학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종단을 안정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 개설

10월 29일부터 4일간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안암동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제1회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을 개설한다.

연수는 고우(조계종 원로의원)·무여(봉화 축서사 선원장)스님의 특강과 설우(청주 법인정사 선원장)·월암(함양 벽송사 선주)·원철(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스님을 교수사로 한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총10품)을 위주로 진행된다.

연수 참가를 원하는 스님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교육원(02-2011-1807~9)으로 접수하면 된다. 4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연수비는 10만원.

연수를 이수한 스님 중 현직 사찰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경우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를 대체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이번 연수는 신도지도(간화선 지도)를 하고자 하는 본·말사 주지스님 또는 종단스님들께 체계적인 지도프로그램과 지도방법을 제시하며 스님들의 수행정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연수 목표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제19회 포교대상 후보자 접수

조계종 포교원은 제19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분야는 △계층(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직능(군, 경찰, 직장직능 등) △문화체육(미술,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사회(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매체(방송·언론, 출판, 인쇄, 인터넷 등) △신행(교육, 수행, 신도조직 및 활동 등) 등.

추천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장 및 교구본사 주지스님이나 종단등록 포교·신도단체장이 할 수 있다. 종단 소속 기관 및 단체와 종단 소속 스님, 종단 신도등록대상자로서 5년 이상 20년 이상 활동한 불자면 추천 가능하다.

남동우 기자

미륵종 승려교육 수료식 개최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제9차 승려교육 수료식 및 제9기 사미(니)계 산림법회를 10월 10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봉행했다. 2박 3일간 진행된 교육에는 120여명이 동참했으며 사미(니)계 산림법회에서는 사미 20명과 사미니 5명이 입교해 소정의 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미륵종은 총무원 직제를 개편, 신설된 사서실장에 거창 학천사 주지 백산 스님을 임명했다. 또 부산 교구 종무원장에 혜광사 부산포교원 주지 혜성 스님을, 경기 강원 교구 종무원장에 경기도 광주 대불사 주지 혜능 스님을 임명했다.

영민 경남 서부지사장

I Love Buddha /방하착

용정운(www.zentoon.com)







태(胎)중 아기(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약천사 양력 10월 20일(토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11시 (음, 9월 10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20일 (음, 9월 10일)
- 3재 : 양력 11월 3일(음, 9월 24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2월　1일 (음, 10월 22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불자들 '자정·혁신·단합'의 자리로"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 10월 19일 봉행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47년, 구산선문의 하나인 문경 봉암사에서 수행결사가 조직됐다. 청담, 성철, 자운, 보문, 우봉 스님 등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자며 해방직후 일제식민지 불교 폐습 혁신을 결의한다. 이 정신은 이후 승단 정화운동과 조계종단 재건으로 이어졌다. 특히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 화두참선과 포살법회 정례화, 대중 원융살림 등의 수행종풍을 복원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

조계종이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10월 19일 오전 11시 봉암사에서 봉행한다.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로 명명된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대중은 기념법회를 통해 결사의 의미를 계승해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신행혁신을 다짐한다. 특히 최근 종단 내외의 상황을 반영해 '자정과 혁신, 불자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

법회는 봉암사 결사 경과보고, 공주규약 낭독, 기념사, 종정 법어, 각계 메시지, 결사 60주년 기념선언문, 참회정진, 좌선 등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암사 결사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기념세미나도 개최된다.

1부에서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봉암사 결사의 조명'을,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봉암사 결사의 개념'을, 송현주 교수(순천향대)가 '봉암사 결사와 의례'를, 서재영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봉암사 결사와 성철'을, 혜정 스님(서울 문수사 주지)이 '봉암사 결사와 청담'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2부 '내가 본, 내가 들은 봉암사 결사'에서 혜명 스님(청담기념관 관장)이 청담 스님, 천제 스님(법규위원장)이 성철 스님, 혜총 스님(포교원장)이 자운 스님에 대해 회고와 증언을 한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의 사회로 목정배 前 교수(동국대), 김선근 교수(동국대), 신규탁 교수(연세대), 장석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논평을 한다. 남동우 기자

Tip 공주(共住)규약이란

스님들이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행동지침이다. 前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이 친필로 썼다. '엄중한 부처님 계율과 숭고한 조사의 유훈을 부지런히 닦고 힘써 실행해 깨달음의 경지에 원만하고 빠르게 이를 것을 기약한다' '어떠한 사상과 제도를 막론하고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 이외의 사견은 절대 배제한다' 등 모두 18개 항에 이른다.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조선일보 구독 거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 본격화

조계종, 본말사에 지침 하달

조계종 총무원이 '조선일보' 구독 거부 지침을 10월 8일 본말사에 시달했다.

총무원은 지침에서 "'조선일보'는 신정아 건을 보도함에 있어 관련성 유무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불교계 관련 기사를 추측 왜곡 보도함으로써 불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언론"이라며 "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법회와 사찰 행사 등을 통해 종단 차원의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조선일보 구독거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찰 입구에 별첨의 현수막을 부착한다 △사찰을 찾는 방문객에게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사찰 차원의 구독 거부는 물론, 사찰 소속 또는 유관의 기관 단체(복지관, 어린이집 등)와 신도 개개인 단위의 구독 거부 실천을 독려한다 등을 각 사찰에서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보색 입힌 자연경관 화폭에

법관 스님, 인사아트센터서 '비산비수展' 개최

선화가 법관 스님이 '비산비수(非山非水)'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10월17일~23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인사아트센터 제1전시장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에선 자연경관을 스님 나름대로 독특한 화법으로 해석한 작품 50여점이 벽에 걸린다. 얼핏 보면 비구상화라는 느낌이 들지만 스님은 명백히 화판에 자연경관을 담았다.

삐죽삐죽 솟은 것은 숲이거나 산봉우리일 것 같다. 또 옆으로 이어지는 굴곡은 계곡이거나 논밭, 강, 호수 또는 구릉으로 이해된다.

스님은 화려한 보색대비 채색기법을 이용해 산수화의 새로운 장르를 보여준다. 하지만 결코 억지스럽지 않다. 작품을 꼼꼼히 뜯어보다보면 색다른 시도에 '저런 식의 산수화도 가능하구나' 하는 탄성을 자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3)643-4537


법관 스님의 '비산비수'

김주일 기자

총지종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총지종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국제청소년회관을 비롯한 국내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기존 출가승 위주의 불교지도자 대회와는 달리 미국, 유럽, 호주 및 아시아 등 세계 10개국에서 15명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진행한다.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회관에서 재가불자들의 위상 정립과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회가 개최된다. 이어 다음날인 21일에는 설악산 만해마을로 자리를 옮겨 세미나와 토론이 열리며, 22·23일 양일간은 경주 불국사를 비롯해 설악산과 신흥사 일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총지종 부산 정각사에서 종단 공식불공법회와 한국전통불교문화를 소개하는 공연도 연다. 김주일 기자

미얀마 민주화지원 대책위 발족

스님과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불교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미얀마(버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삼보 훼손의 실태 파악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윤천수, 이하 비상대책위)'는 10월 10일 서울 조계종 중앙신도회관 2층 교육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비상대책위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9개 단체가 참여했다.

비상대책위는 앞으로 국제적인 불교단체의 성명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미얀마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얀마를 방문하고 현지 상황과 불교 삼보의 훼손 상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태허 스님 탄신 103주년 수계식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0월 5일 '개산조 태허 조사스님 탄신 103주년'을 맞아 총본산인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정예하인 죽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갈마아사리에 원로원장 인봉 스님, 교수아사리에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3사로 모셨다. 또한 7증사는 호법원장, 부원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등 종단 중진스님이 참석해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자는 구족계 15명, 사미(니)계 11명, 법사 22명 등 총 48명이다. 김주일 기자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연기

불교계 "지속적 대응할 것"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했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이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에 힘입어 법안 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가 됐던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보호구역을 기존 500m에서 200m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입안 추진되자, 용주사와 봉선사 등 지역 불교계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문화재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호·인묵, 이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 10월 8일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일에는 140여개 사찰 신도 및 시민단체 회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집회로 개악 저지를 막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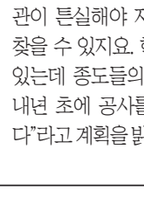
10월 9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조례 개악 반대 집회를 연 비대위. <사진=박재완 기자>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상대책위측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의안 상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가 연대한 비상대책위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대한 압박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상대책위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은 "입안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 같은 일이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행정심판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비상대책위 차원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발로 뛰는 종무행정 펼 것"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총무원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는 종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분담금도 획일적이 아니라 각 교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서울 상계동 도선사 주지·사진)은 요즘 전국 각 교구를 돌아보느라 총무원 청사에는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단지 교구 시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지역 포교 현실을 체험하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포교 방안도 연구중이다.

앞으로 덕우 스님은 종도 교육도 강화할 생각이다. 이번에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리는 종도연수교육을 통해 이를 종도들에게 알리고 실천에 옮길 예정이다.

덕우 스님은 "내년에는 경기도 남양주나 강원도 강촌에 총무원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중앙 종무행정 기관이 튼실해야 지역 교구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요. 현재 부지는 확보돼 있는데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문의 : 02-2004-8279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재단법인 대한불교미타종

봉 제8대 총무원장 융호당 회암 종사 취임 축

재단이사장 권성우

중앙종회의장 서법진
감 찰 원 장 임은주
교 육 원 장 남석진
중앙포교원장 김진표

◆일시 : 2007년 10월 17일 (음, 9월 7일)
◆장소 : 미타종 총본산 봉암사 불교회관

미타종 종도 일동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총무원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4층 전관 전화 02)2242-1049

"수해 피해 입은 제주 佛心 달랜다"

약천사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개최

요즘 제주도 불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제주 관음사 사태로 긁힌 상처가 채 가시기 전에 태풍 '나리'로 인해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가 제주 불자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고 발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를 개최하기로 해 주목을 끈다. 법회는 10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월 24일 오전 6시까지 봉행되며, 수재민 및 불자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3일 열리는 법회 1부는 오후 6시 30분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법사로 예불을 봉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부 순서는 흥겨운 산사음악회.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산사음악회는 김종환의 대금산조, 채수정의 판소리, 서정호의 아쟁 등 국악 예술공연과 영산회상 예술 포교단(단장 지우)의 마술쇼, 오북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 불자탤런트 전원주씨와 선우용녀씨도 초대된다.

3부 '철야용맹정진 대법회'는 오후 11시 정진 법문에 이어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진행한다. 스님들과 참가 대중들이 함께 하는 철야 용맹정진이며 참가하는 수좌 스님은 지리산 원각사 해동선원장 태응 스님,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 前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 스님, 청주 용화사 주지 월탄 스님,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한국 미얀마 선원장 산디마 스님, 정혜사 입승 선전 스님, 수덕사 총무 무애 스님 등이다. 이어 4부에서는 혜인 스님과 영산회상 포교단의 집전으로 24일 오전 4시 예불과 천도재로 회향한다.

약천사 부주지 성원 스님은 "도량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정진하기 위해서이다"며 "법당을 완공한지 11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함께 정진 수행하는 시간을 열고 또한 수재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며 제주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권유했다.(064)738-5000

하성미 기자

부산지역 사찰 창립행사 '풍성'

부산·경남지역 사찰과 단체들의 창립기념행사가 잇달아 개최된다.

올해 개원 4주년을 맞은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원 기념행사를 연다. 25일 '대웅전 상단탱화 및 야외 석조불상 점안식'을 오전 10시에 봉행하고 점안 의식에 이어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법문과 극단 자갈치의 가족극과 풍물공연이 마련된다. 또 홍법사 신도들이 참여하는 사경, 조각보 및 '걸망을 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 순례' 사진전을 25일부터 28일까지 열고 '마을상좌 수계식'은 28일에 개최한다. '마을상좌'란 출가하지 않고 스님을 은사로 모셔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의미한다. (051)508-0345

남해 화방사(주지 효천)는 화방복지재단 개원 5주년을 맞아 화방축제공연 '신심(信心)'을 개최한다. 10월 20일 오후 7시 화방사 앞마당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서는 하유 스님의 법고공연과 가수 한혜진씨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효천 스님은 "그동안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를 초청해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개최 동기를 밝혔다. (055)863-5014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창건 기념행사를 참회 대법회로 마련하여 정진의 자리를 처음으로 펼친다. 10월 27일부터 11월 5일 10일간 재가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참선, 사경, 1080배를 진행한다. (051)242-0691

또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창건 38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삼광사는 "1만 명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에서의 성공적인 포교활동과 활동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1)808-9252

하성미 기자



마하보디센터 개관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 왼쪽)이 법문을 하고 있다.

"죽음 앞둔 환자 자비로 돌본다"

호스피스 양성 마하보디센터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공간, 실질적인 경험과 실천을 통해 진리를 아는 수행처가 바로 마하보디센터입니다."

불교 호스피스 활동가를 양성할 교육도량인 정토사관자재회(이사장 능행) 마하보디센터가 10월 7일 문을 열었다. 마하보디센터는 연면적 1240㎡에 교육관, 법당, 회의실, 숙소 등을 갖춘 2층 건물로 완공됐다. 앞으로 불교호스피스교육과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 위탁교육, 노인요양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명상 수행 및 웰빙웰다잉(wellbeing-welldieing), 자아성장과 자기개발 등 각종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능행 스님은 개원식에서 "마하보디센터는 단순한 교육관이 아니라 죽음과 행복, 연기법을 실천하며 깨어 있는 삶을 배우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및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지관 스님은 "아픈 이들의 병고를 간호하는 것은 가장 수승한 복을 짓는 것"이라며 "마하보디센터를 통해 많은 호스피스 활동가가 배출되길 바란다"고 법문을 설했다.

한편, 정토사관자재회는 사부대중을 위한 '관자재요양병원' 불사를 추진 중이다. 관자재요양병원은 서민과 승가를 위한 복지병원으로 일반재가환자병동, 승가요양병동, 중환자병동 등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규모는 95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70% 설계가 마친 상황이다. 총 50억 원이 소요될 병원불사와 복지운영을 위해 정토사관자재회는 1인 1만원 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052)264-1007

울주/글 · 사진=하성미 기자



백운사 보살계수계산림법회 봉행·목탱화 점안식

운봉산 백운사(주지 마하)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보살계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 목탱화 점안식을 개최했다. 태종사 조실인 도성 스님, 범어사 전계대화상 흥교 스님, 충북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이 보살계 법문을 설법했고 백운사 주지 마하 스님은 "큰 공덕의 복밭을 이루시고 바라시는 소원성취와 근심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원한다"며 참가한 사부대중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동아시아학회 추계학술대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김용환)는 10월 20일 양산 통도사에서 '불교 계단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제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이 '불교 계단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것을 비롯해 동국대 김경집 교수와 금강대 백도수 교수가 각각 '자장율사와 금강계단', '인도불교에서의 계단의 구조와 의미'를 발표한다. 또 통도사 율원장 덕문스님을 비롯한 한중일 학자들이 각 나라의 계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사명대사 추모 대법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10월 6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사명대사 열반 제397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대성 스님은 "일부 무분별한 종교인들이 국가의 안위는 뒤로 하고 자신의 종교와 종파의 이익만을 위해 광분하는 모습을 수시로 목격 한다"며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 살신성인의 대승보살심을 나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대구 동화사 점찰대법회 봉행

개산 법요식·유물 전시관 개관 등 행사 다채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가 10월 20일 개산 1514주년 기념 개산대재 및 점찰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점찰(占察) 법회란 주술과 점복 등의 토속신앙이 불교의 참회법과 결합된 것으로, 길흉 · 화복을 점찰해 업보를 깨우치고 참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장보살이 나무쪽을 던져 길흉 · 선악을 점하는 법과 참회하는 법을 말한 <점찰경>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원광법사가 처음 봉행했다.

동화사는 점찰산림대법회를 통해 전통적인 점찰법회를 재현하고,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과 보은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13일 유리광전에서는 점찰세미나와 점찰산림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20일 열리는 개산대재는 오전 9시 통일대불광장에서 헌공다례를 시작으로 극달조사 영정이운식, 개산 법요식, 유물전시관 개관식, 가사불사 회향식, 보살계 수계식, 산사음악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개관하는 유물전시관은 통일대불법당 지하 총 1096평 면적에 전시실과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유물전시관은 앞으로 관람객들에 대한 불교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교전문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관특별전으로는 '사명대사 유물전과 진신사리 전시'가 준비됐다.(053) 985-4404

여수령 기자

'난치병 돕기 자비실천' 법회

한국불교대학 ·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10월 7일 대구 두류공원 내 두류야구장에서 '난치병 돕기 자비실천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15만 동문신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한마당 대축제가 된 이날 대법회는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헌혈, 장기기증 서명을 비롯해 동문신도 체육대회, 남녀노소가 즐기는 효도경기, 어린이경기, 집단축구, 줄다리기, 계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체육대회 종합우승은 칠곡도량 보현반이 차지했다. 우학 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헌혈과 장기기증 신청에 참여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우학 스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난치병 어린이들은 치료비가 없어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자비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비실천 대법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경북지사장

단청북·수월관음도 전승공예대전 본상

10월 16일~29일 수상작 전시회

제32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백은종씨의 '단청북(사진)'이 문화재청장상을, 이수예씨의 '수월관음도'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10월 9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열린 본상 심사 결과 김정곤씨의 '감지금니묘법연화경변상도 7권'이 특선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김경미씨의 '지장보살본원경12폭병풍'과 김석곤씨의 '아미타극락회상도'가 입선에 이름을 올리는 등 불교회화와 불교전통문양을 접목한 작품들이 다수 선정됐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는 총 207명의 작가가 222종 831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16~29일까지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11월 1~4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전시 개막식 및 시상식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여수령 기자

민들레밥집, 부산불교연합회서 운영키로

최근 두타 스님의 기금 유용 등으로 문제가 된 부산 민들레밥집이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에 의해 운영을 계속하게 됐다.

민들레밥집을 운영하던 두타 스님은 "모든 인수 인계를 마치고 민들레 밥집에 일체 관여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운영을 부산불교연합회가 맡게 된 것이다. 현재 민들레 밥집은 각 사찰의 보살들과 불교 적십자로 구성된 불교 연합회 직할봉사단(가칭)이 구성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앞으로 민들레 밥집을 부산 동래구 뿐 아니라 부산 각 지역에 확산 발전시키고 노인 복지에 앞장서며 자체 운영하는 복지관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두타 스님은 최근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인 부분도 있으나 전후 사실도 듣지 않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며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편집해서 방송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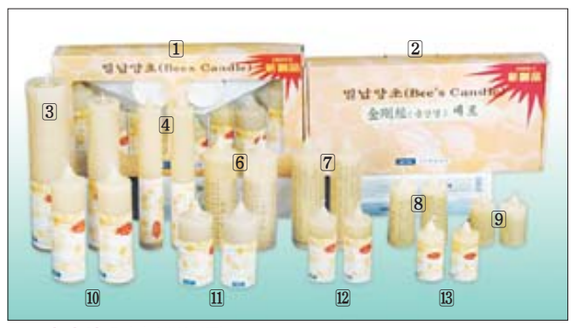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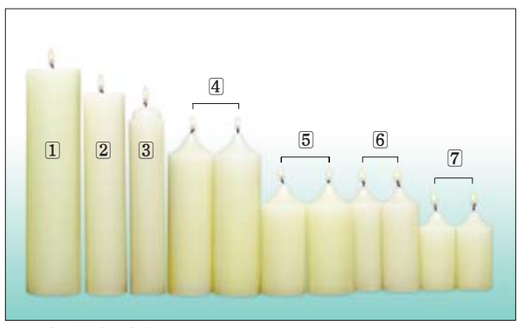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 주소(D) 양초.net

일주문



가을 정기 대중법회 법문

前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은 10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동 길상사 극락전에서 열리는 가을 정기 대중법회에서 법문한다.(02)3672-5945



성북장애인복지관 개관식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10월 10일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독거노인·어르신 경로잔치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개산 1213주년을 기념해 10월 16일 강남구청과 함께 지역 독거노인 및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02) 3218-4825



자원봉사 기본교육 참가자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념 스님은 10월 15일부터 개최되는 제11기 자원봉사 기본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02)723-5101



법화산림 특별법회 회향식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10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비구니회관 법룡사 대법당에서 법화산림 특별법회 회향식을 봉행한다.(02)3411-8103



대한불자가수회 장학금 전달식

대한불자가수회 김흥국 회장은 10월 14일 서울 강남구 자비원에서 '2007 대한불자가수회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찰생태 진단표 배포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은 사찰생태환경 자가진단표를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cafe.daum.net/templeeco)를 통해 보급한다.(02)745-5813

"부처님 '리더십'은 성공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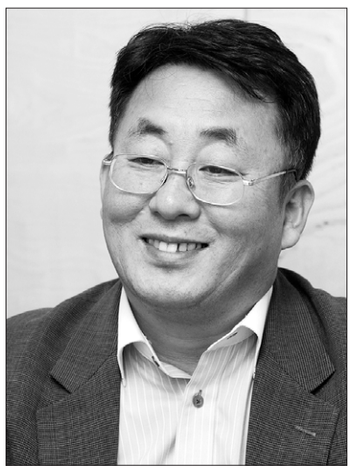
'리더십, 불변의 법칙' 펴낸 인천 한누리 교회 이동연 목사

리더십이 강조되는 사회다. 서점에는 각종 관련 책자들이 쏟아지고, 리더십 관련 강좌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나 "부처님이야 말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이며, 그 가르침은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동연 목사(44, 인천 한누리교회 · 사진)다.

이 목사는 최근 펴낸 <리더십, 불변의 법칙>(인물과사상사)을 통해 '붓다의 리더십'을 설파한다. 이 목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친 성인"이라며 "부처님의 리더십을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다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붓다 리더십' 혹은 '붓다 경영학'은 서구의 목표 지향적 이론과는 달리 '과정'을 중시하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리더십'이라는 데 차이점이 있다.

"서양의 리더십 이론은 외부에서 스승을 찾고 그에게서 얻은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 안에서 지혜와 스승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自燈明法燈明)'는 가르침이 곧 부처님 리더십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리더십 이론이 생겨나고 유행과 함께 사라지는데 반해, 리더십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경영 지혜이자 자기 계발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사이코패스라 할 수 있는 연쇄살인마 앙굴리말라까지 대화와 법으로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설득의 리더십이야말로 남을 누르고 내가 성공하는 오늘날의 리더십의 진정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님이나 불자가 아닌 목사의 신분으로 불경을 읽고 부처님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인들이나 주위 목사님들도 제가 책 얘기를 꺼냈을 때 말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이웃 종교의 지도자로만 본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소중한 지혜들을 간과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의 성인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응용 · 적용한다면 참 행복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집필을 위해 수 개월간 <금강경> <법화경> 등에 파묻혀 살았다는 이 목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 현대인들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종교지도자와 불자들의 일독을 권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생명나눔, 장기기증자 위한 천도재 봉행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7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시신 및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에는 유족 및 생명나눔 회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재로 장엄하게 진행됐다. 이날 천도재는 장기 및 시신기증 영가 116위 등 총 225위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생명나눔의 뜻과 공덕을 기리며 봉행됐다.

전국 일붕문도의 날 법회·정기총회



전국 일붕문도중앙회(회장 도기)는 10월 10일 서울 하림각에서 일붕문도회 임원진과 각 종단 종정스님 ·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 일붕문도의 날 법회 및 제18대 정기총회'를 봉행했다. 이날 18대 회장으로 도기 스님(영주 관음사 주지)이 선출됐다.(02)777-0901

광진노인복지관 개관 4주년 기념식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이 10월 9일 개관 4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 금산사 부주지 원광 스님, 광진구청 박희수 부구청장, 추미애 前 의원 등과 약 1000 여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 어르신과 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광진민속예술단 '지게달래'팀의 풍물공연, '윤종희에어로빅시범단'의 시범 등으로 진행됐다.

불교여성개발원, 신행수기 출판기념 법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0월 9일 서울 법련사에서 제2차 여성불자 108인의 신행수기를 모은 <불교와 나의 삶 두 번째 이야기>(조계종출판사)의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김인숙 원장을 비롯해 개발원 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발전 위해 써주세요"

재가연대에 17억원 쾌척

불자 기업가 김태재씨



인터넷 도메인 기업인 (주)아이네임즈의 김태제(사진)대표이사가 16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참여불교재가연대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의 불교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0만 달러를 별도로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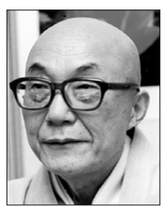
김태제 대표이사는 "재가연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항상 안타까웠다"며 "재가연대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김태제 대표이사의 기부금을 '제3세계 소외계층지원 및 국제참여불교센터 조성기금'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김태제씨는 '2006 사회공헌기업대상' 국제구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0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불교사회공헌활성화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주일 기자

석정·범하 스님 대한민국 문화포장 수상





석정 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사진 왼쪽)과 범하 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 · 사진 오른쪽)이 올해 <한국의 불화> 40권을 완간한 공로로 2007년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상한다.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석정 스님은 문화포장 보관훈장을, 범하 스님은 옥관훈장을 각각 수상한다. 시상식은 10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전당 내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된다.

동국대 강법주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강법주 교수(정보통신공학부 · 사진)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5주년 발행 기념판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의 '21세기 저명한 지식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에 선정돼 2008년판에 등재됐다.

강 교수는 2001년 3월부터 동국대에 재직하면서, 무선통신 분야에서 여러 편의 SCI 논문과 국내외 특허등록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학문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고 동국대 측은 설명했다.

여수령 기자

명법스님·강소연씨 등 5명

불교학 연구·번역 지원 학자



사단법인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주관하는 제4회 불교소장학자 연구 · 번역 지원 사업에 명법 스님(사진)을 비롯한 5명의 학자가 선정됐다.

우수 박사학위 논문 지원에는 명법 스님의 '송대 예술관에 미친 선종의 영향', 강소연씨의 '조선왕조전기 왕실주변의 불교회화', 황정일씨의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이어 불교학 관련 번역 지원에는 박건주씨(전남대 사학과 강사)의 <돈황 선종문헌 역주 Ⅰ · Ⅱ>가, 외국인 연구자 학위논문 지원에는 재미교포 강호형씨의 '미국사회에서의 선문화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공모 전 분야에 걸쳐 수상자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사학위와 외국인 연구자 학위논문 지원에는 500만원씩이, 번역 지원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며, 수여식은 10월 16일 서울 강남 포교원에서 개최됐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2004년 '한국불교학연구기금'으로 발족한 이후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불교소장학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02)539-2631

여수령 기자

"원인이 있습니다"

* 관세음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몸소 체험하시고 훌륭한 불자님 되세요

* 모르고 잘못행한 행동과 습관이 떠도는 영을 불러들여 몸의 이곳 저곳에 숨어지내는 마구니는 그 나쁘고 음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 소승은 빙의되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천도재) 전문 기도

※ 가출청소년귀가기도 ※ 이사후 사건,사고 잦으신 분 ※ 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합격기도(각종시험에 계속 낙방 되시는분)
※ 병원치료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아토피 (바르면 가렵지 않음) 한정분 무료보시

◆ 소승의 소개글
- 성관세음, 백의 관세음보살님 친견
- 친견인연 공덕으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달마존상도 등을 친필수작 불사포교
- 1998년 7月 24日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 미술 탱화 사사수행, 한국미협회원

"이사후, 밤이되면 심하게 놀라거나 크게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신묘한 기운이 깃든 상서로운 그림..."
① 친필수작 가내길상 "수목관세음 보살도"와 달마대존도, 족자 중 1점 택일
② 친필 수작 경면주사 "소지용" 달마대존도 3점
[합4점] 보시금 50만원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예금주 : 김병룡)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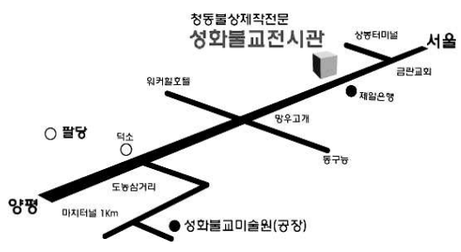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송친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⑥

(修習止觀坐禪法要)

總說 3 止是禪定之勝因 觀是智慧之由籍

이 두 구절에선 '지관' 수행법은 서로가 동시적으로 밑받침이 되는 상호관계성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지' 수행을 닦아야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쉴 수 있다. 따라서 '지' 수행은 선정삼매를 이루는 뛰어난 원인이며 선정삼매는 '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훌륭한 결과이다. 선정은 바로 삼매를 의미한다. '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삼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삼매(三昧)'는 범어이다. 이를 한문으로 의역하면 '정정(正定)' 또는 '조직정(調直定)'이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 원만하게 성취해야

자타 함께 이익 나눌수 있어

우리 중생들은 하루 종일 허겁지겁 동분서주하면서 조화롭고 곧은 마음을 쓰지 못한다. 이는 마치 요동치는 항아리 속의 탁한 물은 고요하게 안정시켜야만 맑아지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탁하고 시끄러운 마음을 담연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수행한다면 자연히 청정해질 것이다. 옛사람은 이 점에 대해 "삼라만상이 목전에 나타난다 해도 나의 중심은 시끄럽게 요동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우리가 만물에 무심할 수만 있으면 만물에 항상 에워싸여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이는 마치 무쇠로 만든 감정없는 소는 사자의 포효소리에도 두려워 하지 않고 나무로 조성한 장승은 아름다운 꽃이나 재잘대는 새를 본다 해도 전혀 느낌이 없는 것과 같다.

삼라만상이 목전에 어지럽게 나타난다 해도 자신의 마음은 담담하고 적적하기만 하여 산란심으로 요동하지 않고 항상 선정 속에 있다. 우리가 이 같은 선정삼매를 아직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지' 수행을 닦아야만 산란하게 움직이는 망상을 정지할 수 있다. 때문에 "지를 닦으면 그것이 선정삼매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씨앗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관수행을 하면 지혜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 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혜는 무엇을 따라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지혜는 반드시 '관' 수행을 통해서만이 얻어진다. 때문에 "관수행을 의지해 지혜가 일어난다" 고 하였다.

'관'의 의미를 말해본다면 관조(觀照)이다. 이는 선종(禪宗)에서 '화두를 돌이켜 관조한다' 한 경우와 '반야심경'에서 '조견오온개공' 했을 때의 '관조'의 의미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 수행을 따라서 '관' 수행에 도달하며 '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선정을 바탕으로 '관' 수행을 따라 일어난 지혜가 발현한다.

다시 말해서 '관'은 '지'를 따라서 일어나고 '혜(慧)'는 '정(定)'을 통해서 발현한다.

이를 두고 '지관쌍운(止觀雙運)' '정혜등지(定慧等持)' 라고 한다.

부처님 경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걸림 없는 청정한 지혜는 그 모두가 선정삼매를 통해서 일어난다" 고 하였다.

'관' 수행을 통해서 지혜관조의 작용이 환하게 나타나야만 일체제법이 허깨비와 같음을 통달하고 일체제법은 있다 해도 그 실체가 없음으로 공(空)이며, 실체 없는 제법이 다시 인연을 따라 일어났으므로 현상세계는 목전에 있다 해도 가(假)이다. 이 둘은 '공'이면서 '가'이고 '가'이면서 '공'이므로 '공'과 '가'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닌 '중도'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정과 그에 따른 지혜를 얻으려면 '지관'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종파의 수행인들이 각양각색 다른 모습으로 수행을 한다 해도 그 모든 수행은 '지관'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 통해 자리의 선정 얻어 복덕으로 장엄
'관' 수행으로 이타의 지혜 얻어 지덕 겸수

일반적으로 염불수행과 좌선참구로 부터서 간경을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수행이 실제에 있어선 '지관'의 이치를 의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경전을 독송할 경우 지극일념으로 경전의 도리에 집중하여 마음이 혼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이고 경전을 통해서 얻어진 도리를 의식으로 분명하게 관조하는 것은 '관'이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든다면 우리가 염불수행을 할 때에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일심으로 지니면서 마음이 혼란하지 않는 상태가 '지'이고 마음이 혼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 명호를 더욱 분명하게 부르는 것은 '관'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예불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등등이 모든 수행문이 '지관'이라는 두 법문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관'수행의 효용이다.

若人成就定慧二法 斯乃自利利他法皆具足

여기에서는 '지관'을 수행하면 뛰어난 이익이 있음을 밝혔다. '지'는 선정(定)을 이루는 근본(因)이고 지혜(慧)는 '관'수행의 결과(果)이다.

가령 수행인이 정혜(定慧)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이타행을 일으킬 수 있다. 자리는 모든 중생에게 안락함을 부여하는 대자(大慈)의 마음이고 이타는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대비(大悲)의 마음이다.

수행인이 자리의 선정과 이타의 지혜를 만족하게 갖춘다면 자비와 지혜를 치우침 없이 쌍으로 운행할 수 있고 자타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지관수행을 겸수함으로써만이 이루어진다.

故法華經云 佛住大乘 如其所得法 定慧莊嚴 以此度衆生

여기서는 '법화경'에서 인용하여 지관수행으로 얻어진 뛰어난 이익을 증명하고 있다.

이 문제를 법화경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처님은 지관이 둘이 아닌 대승법 가운데 머물면서 거기에서 얻은 법에 걸맞게 지관정혜의 힘으로 장엄하지 않음이 없으시다. 지를 통해 선정을 얻어 복덕(福德)으로 장엄하고 관수행으로 혜를 얻어 지덕(智德)으로 장엄하였다. 부처님은 이처럼 복덕과 지덕 이 두 가지 덕으로 자심본성을 장엄하여 복덕 지덕과 그 자성이 둘이 아닌 오묘한 장엄을 하였다. 지금 부처님은 자신이 장엄한 선정과 지혜로 다시 모든 중생까지 장엄하여 이로써 모든 중생을 제도하신다.

부처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덕과 지덕일 뿐이며 이는 지관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當知此之二法 如車之雙輪 鳥之兩翼 若偏修習 卽墮邪倒

여기서는 지관수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그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마땅히 알아야만 된다[당지(當知)]이 두 글자는 경책하고 훈계하는 말이다. 그 의도는 지관을 쌍으로 닦아야 한다는 의미를 모른다면 올바른 불도로 쉽사리 승진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지관 두 법을 비유한다면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 또 새의 양 날개와도 같다. 수레는 양쪽 바퀴가 있어야만 천리 먼 길을 갈 수 있고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만 드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관 두 법을 하나로 합하면 둘 다 아름답겠지만 서로를 따로 분리한다면 양쪽 수행 모두가 손상되므로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도 결손돼선 안된다.

가령 선정에만 치우치고 지혜를 소홀히 한다면 바짝 마른 선정에 떨어지고 반대로 지혜만 소중히 여기고 선정을 파기한다면 미친 지혜를 이루게 되어 이 둘의 경우가 똑같이 병통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문장에선 경전에서 인용하여 이 의미를 증명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業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유정들이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괴로움이냐 혹은 즐거움이냐 하는 것의 그 실제적 원인은 그가 지은 행위의 선악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유정들의 행위에는 선업 · 악업 · 무기업이라는 각자 다른 형태가 있다면, 이 가운데서 선업의 행위에 따른 즐거움의 과보도 있어야만 온당한 일인데도 무엇 때문에 일체중생의 현실은 오직 괴로움의 과보만 있을 뿐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생활에서 감정[受]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괴로움[苦受]과 즐거움[樂受], 그리고 무감각의 상태[捨受], 이 모든 감정형태의 차이를 그 근원적인 중도제일의제(中道第一義諦)에서 보면 그 모두가 오직 괴로운 감정에만 포섭될 뿐입니다.

유루선업의 즐거움 '괴고'에 포섭
세간 참모습 일체개고서 안벗어나

이른바 삼고(三苦)라고 하는 고고(苦苦) · 괴고(壞苦) · 행고(行苦)와 이를 부르는 원인에 해당하는 선악업도(善惡業道)는 이를 중도제일의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일하게 생사의 모습인 하나의 유루법(有漏法)에 해당됩니다.

유루선업(有漏善業)은 설사 즐거운 감정의 과보를 받는다고는 하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란 그 즐거움이 항상 즐거움 자체로 고정불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린 만큼 괴로움은 정비례하여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유루선업의 즐거움은 삼고 가운데 즐거움이 무너지면서 받는 고통인 '괴고'에 포섭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감정만 그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의 부동업(不動業), 즉 고락(苦樂)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루삼매에 있어서도 이는 완전한 무루해탈이 아니라, 단지 극도로 미세한 의식분별이 진행하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이루어지고 있는 무감각상태일 뿐이므로 이도 역시 삼고 가운데 '행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업마저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고 가운데서 '고고'는 괴로움 그 자체는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괴로움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즐거움을 부르는 복업이나 또는 유루삼매를 부르는 부동업까지도 '괴고'와 '행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세간의 참모습은 '일체개고(一切皆苦)'인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값진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으로 인하여
모교를 아끼는 동문들과 2천만 불자를 포함한 국민여러분께
뜻하지 않은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번 상황을 뼈아픈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
크게 뉘우치고 크게 깨닫겠습니다.

100년사학 동국대의 역사는 동국대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자랑스런 전통의 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막중한 소명감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해갈 저희 동국대의 미래를
애정어린 격려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무한동력 무한동국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주말마다 가까이서

부처님 만나는 기쁨!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 전체에 대한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향기롭게 합니다.

정각원 토요법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대상 : 일반인 및 동국가족

■ 법회 및 강연 일정

월	일	주 제	강 · 법사	비 고
10	6(토)	기도 · 생활법회	혜거 스님	금강선원장
	13(토)	부처님의 이해Ⅲ – 출가와 수행	해주 스님	불교대학 교수
	20(토)	부처님의 이해Ⅳ – 깨달음과 내용	정승석	불교대학 부학장
	27(토)	부처님의 이해Ⅴ – 교화와 열반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11	3(토)	성지 순례 – 불교 문화유적 답사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10(토)	불교의 수행Ⅰ – 간경과 독송	김호성	불교대학 교수
	17(토)	불교의 수행Ⅱ – 불교와 수행	성본 스님	불교문화대학 교수
	24(토)	불교의 수행Ⅲ – 수행의 구조	해원 스님	불교대학 교수
12	1(토)	기도 · 생활법회	진옥 스님	석천사 주지
	8(토)	불교의 수행 Ⅳ – 염불수행	보광 스님	불교대학 교수
	15(토)	불교의 수행Ⅴ – 선 수행	법산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2(토)	불교문화 –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	김상현	문과대학 교수
	29(토)	세계 속의 불교 – 현대 세계불교	김용표	불교대학 교수

수험생을 위한 입시 기도

■ 일 시 : 2007. 10. 20(토), 27(토), 28(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접수방법 : 정각원 방문 또는 전화로 미리 접수
■ 접 수 처 : 정각원 사무실 (☎02-2260-3016~7)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매월 첫째 토요일 저녁 8시 30분 ~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02)2260-3016,3017 F.02)2260-3744 홈페이지 http://jeonggak.dongguk.edu

동국대학교 정각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2007년 하반기

8도 명산 산신재 및 성지순례 안내

제2차 태백산 산신재
일 정 : 10월 20일~10월 21일 (무박 1박 2일)
· 오대산 상원사
· 사자산 법흥사
· 태백산 정암사
출발시간 : 오후 6시
출발장소 : 월명사 앞

◆ 제3차 팔공산 산신재 <11월3일 ~ 4일> 무박 2일
◆ 제4차 금강산 산신재 <11월17일 ~ 18일> 무박 2일
◆ 제5차 지리산 산신재 <12월 1일 ~ 2일> 무박 2일
◆ 제6차 삼각산 산신재 <12월15일 ~ 16일> 무박 2일

<산신재와 성지순례에 꼭 동참하셔야 할 분>
- 결혼 · 인연발원
- 공무원 · 임용고시 · 취업성취
- 2007년도 수능 및 특목고
- 승진 및 사업번창
- 가족 건강과 화목
- 기타 소원성취

기도동참금 입금 계좌 (예금주 : 김철홍)
우리은행 1002-502-321459
국민은행 006001-04-122958
농 협 053-12-176863

2007년 "수능 고득점" 100% 합격을 위한 산신재 및 성지순례

★ 수능 "+ 50점" 따기 위한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예상문제 배부 ★

★계룡산 산신재
10월 27일(토) [음력 9월 17일]
· 오전 7시 · 당일 〈동학사, 갑사, 신원사〉

★팔공산 산신재
"제1차" 10월 17일 ~ 18일(수,목) [음력 9월 7일 ~ 8일]
· 오후 8시 · 무박 2일
〈팔공산 갓바위, 팔공산 관음사, 팔공산 불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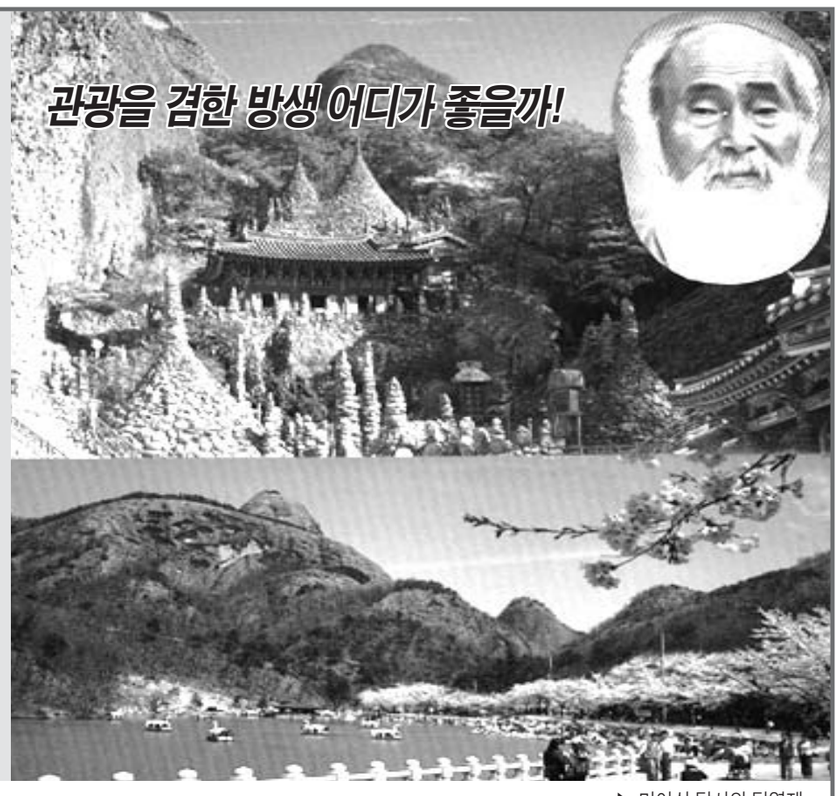
"제2차" 11월 3일 ~ 4일(토,일) [음력 9월 24일 ~ 25일]
· 오후 6시 · 무박 2일
〈팔공산 갓바위, 팔공산 관음사, 팔공산 불굴사〉

월명사 성지순례(10월)

날 짜	기도 도량	시 간
10월 28일 (음 9월18일)	고창 도솔암 김제 금산사 논산 관촉사	오전 7시 회비 : 3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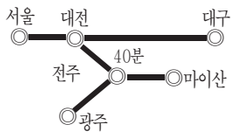
밝은마음 웃는얼굴 복된생활 관음기도 도량 **월 명 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2 우정에쉐르 11층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방향 70m 시내버스 정류장)
전화 : 02)732-0835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삼사순례 및 방생안내

본 용연사는 태조왕건의 기도처로 알려져오다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는 도량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길 왕건이 개성으로 진군할 당시 몸이 쇠약하여 이곳 서흥사지에 머물러 기도한 곳입니다. 도량앞엔 800만평의 호수가 있어 예로부터 방생터로 이름난 곳이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불편없는 용왕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20분내에 좌불상 각원사와 보탑사, 성불사, 광덕사로 삼사순례의 최적지입니다.

■ 예약전화 : 041)554-8080
■ 오시는 길(방생터)
경부선 목천 TG → 독립기념관 → 용연저수지 대주차장

안 내
- 방생터내 버스 100대 동시 주차가능
- 도량내 버스 20대 주차가능
- 사전예약시 무료공양 (별도공양비없음) 일주일전 예약
- 방생터내 상과향로촛대 설치, 스님좌복구비
- 외래어종방생금지



태조산 서흥사지 용연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240



소백산 무량사 **人蔘 홍삼 오가피 액기스**

시중의 상품과는 차별화 했습니다.
순수 지방 신토불이 6년근 인삼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공했습니다.
드셔보시고 효능으로 평가 받고 싶습니다.

90ml×60포(1개월분) 전화 주십시오.

※ 판매 수익금은 일체 **미 타 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현대과학에서 본 인삼의 효능,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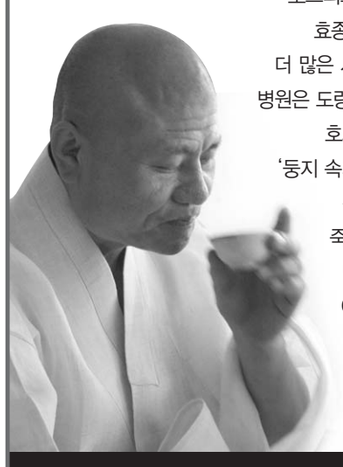
인삼을 신비의 영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질병의 치료와 병의 회복 촉진에 놀라운 효험을 발휘하는 효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대표적 효능으로는 신체조절기능의 향상성 유지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에 근거하여 항피로 및 항스트레스 작용, 항당뇨 작용, 혈압조절 작용, 항암작용, 동맥경화 및 고혈압의 예방, 두뇌기능 강화, 위장기능 강화, 면역기능 증강, 항바이러스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기도도량 **무 량 사** 문의전화 **054-631-9974**
※ 농협계좌 751019-51-095001 예금주 : 무량사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둥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둥지 속의 대화' 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북스 [現代] (051) 244-1251 (02) 2198-5151

언어와 인종의 벽 책으로 넘다

현장 중계

2007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Frankfurt Buch Messe)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2007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가 열렸다. 책을 통해 인류의 언어와 이념 인종 등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책축제로 자리 잡은 이 책 잔치에는 한국의 60여 출판사도 참가했다. 불교 관련 도서는 그리 많이 출품되지 않았으나 한마음선원이 대행 스님의 법문집 등을 내놓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다국어로의 번역 출간의 길을 열었다. 한마음 저널 부편집장 정혜영씨가 현장 소식을 전한다. 〈편집자주〉



한국관의 차 관련 서적과 다구 전시



각국의 출판 바이어들이 한마음선원 부스를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각 국의 부스 모습

책으로 만나는 세계와 세계인

세계 최대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열리는 10월 10일 아침. 전세계 각지에서 몰린 수많은 사람들로 프랑크푸르트 메세(Frankfurt Messe)역은 아침 일찍부터 붐비기 시작한다.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참가하는 세계 최고의 책 시장. 출판기획과 디자인, 서적 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 등 새로운 출판 동향은 물론이고 부스(booth) 인테리어부터 이벤트, 판촉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선의의 판매경쟁이 벌어진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판권계약은 물론이고 각종 이벤트와 기념회, 세미나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도서전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세계 각국의 책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은 지구촌 인류의 사상과 문화의 총체이다. 실로 다양한 책들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그 속에서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며 교류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일 터. 이러한 국제적인 도서전을 통해 세계는 언어와 인종을 넘어서는 최고의 매개체로써 '책'이 지닌 고유의 매력과 역할을 또다시 확인하는 셈이다.

아시아 출판업계의 눈부신 비상

올해로 59회를 맞이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역사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의 타이틀에 걸맞게 해마다 거듭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3개국 7천 여 개 출판사가 참가했고, 28만 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출판시장의 활성과 더불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은 이번 도서전에서 심혈을 기울인 듯하다. 행운을 상징하는 붉은 색으로 장식한 중국관은 세계 출판시장에 적색경보를 알리는 듯 대륙의 을 과시하고 있다. 1961년부터 매년 참가해온 한국은 2005년에는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으며, 올해에는 6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하였다. 문학과 지성사, 문학동네, 창작과 비평사, 사계절 출판사, 디자인하우스 등 13개 대형 출판사가 함께 모여 한국단체관을 채우고 있다. 출판기획과 디자인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 출판사들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세계 무대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12일과 13일 '한국의 시' '한국의 사회과학' '한국의 문화예술' '한국의 만화' '한국의 아동도서' 등을 주제로 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 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행 스님의 가르침 전 세계 언어로

북페어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 종교 관련, 특히 불교 서적 전시관은 미미한 편이다. 서구의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한 동양권의 종교 및 예술 문화에 관련된 책들이나, 불교 문화권에 속한 몇몇 국가의 출판사에서 발행한 일부 서적들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이와는 다소 대조적으로 개최국 독일의 전시관에서는 인간의 정신 세계와 영적 분야에 관한 탐구력이 느껴지는 심도 깊은 책들이 전시되어 있어 풍요로운 미래를 엿보게 한다.

그 중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었던 2005년부터 도서전에 참가한 한마음선원 국제문화원(Hanmaum International Institute)은 제6 국제관에 독립된 부스를 마련하여 3년 연속 도서전에 출품, 대행(大行)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10여 종의 책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고 있다. 이번 도서전에 출품된 책은 <글쎄요(It's Hard to Say)> <깨어나 웃어라(Wake Up and Laugh)> <건널 강도 없는데 건너 줄 뗏목이 있으랴(No river to Cross, No Raft to Find)> 등 10여종이다. 도서전에 참가한 첫 해부터 대행 선사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긴 법문집을 미국 위즈덤 출판사(Wisdom Publications)와 출판계약을 맺어 2007년 9월 <No river to cross>라는 제목으로 영문판을 출간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대행 선사가 들려주는 우화집 <내 마음은 금부처(My heart is a golden Buddha)>의 판권 계약이 독일 랜덤하우스(Random House-Goldman Arkana)와 체결되어 내년 초 독일어판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쾌거는 국적과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의 내면과 근본을 향하게 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정신적인 세계에 목말라하는 인류에게 밝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신도인 베티나(Bettina M?nch Epple, 42)씨는 "첫 해에는 우리가 여러 출판사를 찾아 다녔지만 올해는 위즈덤, 랜덤 등 세계 각국의 출판사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며 그동안 겪어온 변화를 일갈한다. 한마음선원 국제문화원과 독일지원 신도들은 도서전을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언어와 종교를 초월해 진리를 설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이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글 · 사진/독일 프랑크푸르트=정혜영<한마음저널 부편집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4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5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8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9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10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현대불교신문 창간13주년을 축하합니다"
佛敎用品 선우
선우 전시장 모습
불교용품 전문 제조업체인 저희 선우는 1980년대 중반 창업이후 현재까지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 그리고 참신한 마인드로 고품격, 고품질의 다양한 불교용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으며 신념을 바탕으로 한 첫마음 그대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전시장 02)998-7940 서울 도봉구 쌍문동 378-28 / TEL : 02)998-7930 / FAX : 02)994-1947 / www.swbud.com

2007 통영바다
어류방생 유등축제
■ 일 시 : 2007년 10월 27일(토) 17:30~21:00
■ 장 소 : 통영시 도남동 도남관광지
■ 주 최 : 통영시
■ 주 관 : 통영불교사암연합회
■ 행사내용
• 쌍계사 조실 고산 큰스님 법어
• 소원적어 유등 띄우기, 어류방생, 수륙대재
• 심진 스님, 인기가수 김태곤, 머루와 다래 축하공연
■ 문 의 처 : 두타사 Tel : 055-646-1477, 011-704-2701
Fax : 055-648-1366
※유등은 선착순 3,000명을 접수하오니 연락하여 주십시오.





흥망의 역사 속 파괴된 유물들 '무상' 설법


훈자는 플라타너스나무가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저 멀리 흰구름이 내려 앉은 레이디스 핑거산이 보인다.

실크로드란 옛날부터 중국의 주요한 교역품이던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역품들이 오고갔던 동서교통로를 말한다. 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교역품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와 문화가 오고 갔다. 특히 이 길을 따라 동아시아 전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불교가 들어왔다.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오아시스 실크로드를 23일 일정으로 여행하였다.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시작하여 탁실라, 이슬라마바드, 칠라스, 길기트, 훈자를 둘러보고 나서 쿤자랍패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깨달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부처님처럼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내가 묵고 있는 곳은 자동차 대리점이 몰려 있는 곳이라 그런지 눈을 돌리면 온통 자동차 광고판이다. 오토릭샤들이 아침 출근자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인지 라호르의 아침은 인도의 아침풍경을 연상케 하였다. 짜이를 파는 노점상이 있기에 짜이 한 잔을 주문했다. 이곳 또한 인도와 다를 바 없이 새벽부터 짜이 가게에는 남자들이 몰려 있었다. 어찌나 더운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줄줄 흐를 정도다.

라호르는 파키스탄 제 2의 도시이며 상업중심지로서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무굴의 3대 황제 악바르가 수도를 정하고 14년간 라호르성을 짓고 구시가지를 세운 도시이다. 1981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라호르성과 살리마르 정원이 무굴제국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던 1864년에 세워진 라호르박물관이 유명하다. 간다라 미술의 최고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고행하는 부처상>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라호르 박물관을 찾는 것이다.

박물관에는 간다라지역에서 출토된 많은 불교유물들을 비롯하여 인더스 유역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유물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 온 중국의 도자기와 비단 등도 전시되어 있다. <고행하는 부처상>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싯다르타 태자는 그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이 행하던 어려운 고행만을 골라 수행하였다. 몇 톨의 쌀알이나 깨알과 한 모금의 물로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어느 날 문득 싯다르타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은 오히려 육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가지는 일에 소홀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가고 뺨은 가죽만 남았다. 몸은 점점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변해갔다. 이러한 단식을 행하던 모습을 조각한 것이 <고행하는 부처상>이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듯한 곱슬머리의 불상, 하얀 대리석에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조각된 부처님의 족적, 부처님의 일대기가 조각된 스투파 등을 보면서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부처님의 생애를 떠올려보았다.

박물관을 나와 라호르성으로 발길을 돌렸다. 타지마할을 건축한 샤자한은 아그라보다도 라호르를 더 좋아하였다고 한다. 샤자한의 왕비 뭄타지마할이 하늘의 별을 따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었던 샤자한은 그녀에게 거울궁전을 지어주었다. 네 벽면을 온통 거울로 장식한 거울궁전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힘들고 슬픈 노역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라호르성과 아우랑제브가 지었다는 바드샤히모스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신발을 맡기고 모스크에 들어서자, 너무나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이 모스크는 건물 내부에 1만 명, 넓은 뜰에 9만 명이 예배를 볼 수 있는 무굴 최대의 모스크이다. 햇빛에 달구어진 정원을 걸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어떤 모양과 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인지라 아무 것도 없다. 예배시간이 아니어서 그 넓은 공간에 오후의 햇살과 적막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좋았다.

탁실라, 불교문화와 진리탐구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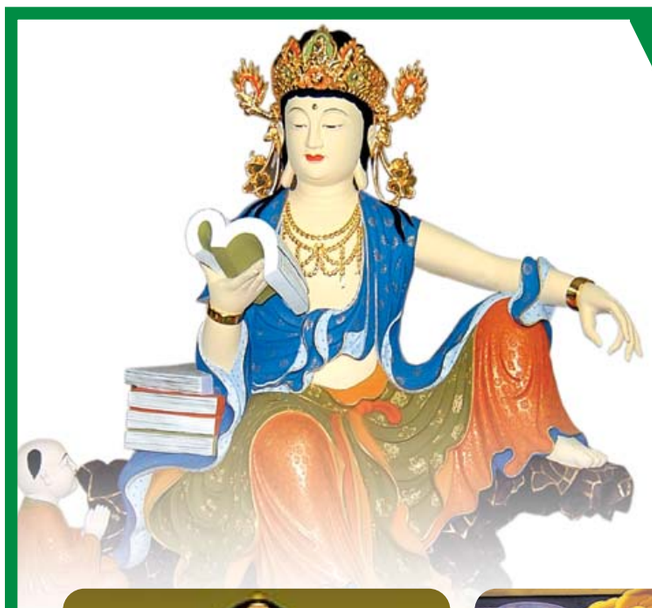
어젯밤에 내린 비로 탁실라 박물관 가는 길은 흙탕물로 넘쳐났다.

탁실라는 불교문화의 중심이었으며, 진리탐구와 지식 전수의 중심지로서 오늘날의 대학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기원전 4세기에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간다라지역에 들어와 주둔했던 알렉산드로스대왕은 이곳을 떠날 때 많은 병사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남겨진 병사들은 이곳에서 그리스문화를 전파하면서 자손을 낳고 뿌리를 내렸다. 이곳을 침략한 알렉산드로스대왕은 토착민들의 문화를 파괴하는 침략자들과는 달리 그리스 문명을 동방에 이식하였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대왕이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아크로폴리스언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그리스인들은 우상과 신전이 없는 이 새로운 종교를 위하여 공예가들은 다투어 불상을 만들고 건축가는 장엄하고 화려한 사원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화려한 간다라 불교예술이 탄생한 것이리라. 탁실라는 비르마운드, 줄리안사원, 모흐라 모라두, 잔디알사원, 시드캄 등 수많은 유적지가 있으며, 1980년 유네스코로부터 대단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탁실라 박물관의 정원은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고, 분홍빛 부겐빌리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탁실라 주변에서 발굴된 불상과 동전, 고대 항아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모흐라 모라두에서 발굴된 일곱 스투파의 복제품이 사람들을 반겨준다. <잠자는 악공>과 <고뇌하는 악공>을 보았다. 연주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이는 잠자는 악공의 그 무거운 눈꺼풀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악공의 고뇌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박물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줄리안 사원이 있다. 줄리안 사원에는 여러 기의 작은 스투파들과 불상들이 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힐링 부처(HEALING Buddha)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의 약사여래불이 아닌가 싶다. 불상의 가슴에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에 손을 넣으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소원을 빌면서까지 무엇을 구하려하기 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버리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원에는 스님들의 거처인 요사 채가 있는데, 2층으로 된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경이'



❶

라호르 '고행하는 부처상' 간다라미술 대표작
아쇼카왕 다르마라지카사원에서 부처 유골 모셔
암각화로 유명한 칠라스 간다라 미술 전통 이어

구조물이며 한 층에 29개의 방이 있었다고 한다.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어 올라가 보았다.

이 줄리안 사원에서 옛 수행자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사방을 돌로 쌓아 만든 방인데, 한 사람이 기거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방이다. 이 방에서 두런두런 소리 내어 경전을 읽었을 것이며, 참선도 하였을 것이다. 두 세 벌의 가사와 바루, 그리고 몇 권의 경전이 소유한 물품의 전부였을지도 모를 어느 수행자의 방에 앉아보았다.

아쇼카의 홍법을 계기로 간다라 지역에서는 불교가 점차 흥성했다. 마우리야왕조를 이어 이곳을 지배한 그리스인들도 불교에 상당히 매료되었다. 메난드로스라는 왕이 나와서 카불분지, 페샤와르 분지, 스와트, 탁실라를 거점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불교경전에는 그리스인 왕 메난드로스와 인도의 승려인 나가세나가 서로 문답을 주고받았던 것을 기록한 <밀란다팡하>라는 경전이 있다. 한역으로는 <나선비구경>이라고도 한다.

줄리안사원의 입장권으로 다르마라지카사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산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풀로 뒤덮인 스투파가 보인다. 아쇼카왕이 다르마라지카 스투파를 만들면서 석가모니의 유골을 모셨다고 한다. <잠자는 악공>, <고뇌하는 악공>이 출토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많은 불상들이 파괴되었으며, 거대한 부처님의 두 발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너무나 정교하게 조각해 놓은 발톱, 그 발에 입 맞추고 싶었다. 평생을 길에서 보낸 부처님의 일대기를 떠올리면서 그 발이 바로 법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의 요사채도 2층 구조물인데, 한 층에 52개의 방이 있었다고 하니 큰 사원이었음에 틀림없다. 빨래를 하던 커다란 돌판도 남아 있다.

쿠샨왕조의 카니슈카왕과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눈부시게 발전한 불교는 5세기에 등장한 에프탈왕조의 미히라쿨라왕에 의해 절멸하고 만다. 현장법사는 미히라쿨라왕에 의해 사원이 파괴되고 승려들을 비롯한 9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육됨으로써 불교가 거의 절멸되었다고 <대당서역기>에 적고 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리다

페샤와르와 스와트를 가고 싶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갈 수가 없었다. 페샤와르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길목이며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터전이라고 한다. 페샤와르에서 탁티바희사원과 파슈툰족이 여는 시장을 보고 싶었다. 또 스와트에는 반가사유의 자세를 취하고 왼손으로 커다란 연꽃을 든 연화수보살상이 있다고 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일정은 카라코람 하이웨이(KKH)를 타고 칠라스로 해서 베삼까지 가는 것이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도가 높은 도로를 말한다. 원래는 사람이나 말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좁고 가파른 길이었다. 이 길은 동서교역의 통로였기에 비단, 도자기, 향신료를 비롯한 많은 물품들이 오고갔다. 또 혜초 스님을 비롯하여 천축으로 법을 구하러 가는 많은 구법승들이 넘나들었던 길이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1966년에 착공하여 1978년에 완공하였으며 총 길이 1300Km인데 900Km는 파키스탄에서 400Km는 중국에서 만들었다. 공사기간동안 900명의 파키스탄과 80명의 중국인이 희생되었다. 특히 중국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쿤자랍 패스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개를 '피의 고개'라고 한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잘 닦여진 길이지만 아래로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절벽이요, 위로 쳐다보면 커다란 바위덩이가 아래로 굴러 내릴 것만 같다. 계속해서 인더스강을 끼고 달리는데 그 강물은 잿빛을 띤 흙탕물이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지는 못하였다.

혜초 스님은 카라코람 고개를 넘으면서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였다.

"그대는 서쪽 이역이 멀다하고/ 이 몸은 동쪽이 멀다고 탄식하느라.// 길은 험하고 산마루는 눈으로 덮여있는데 /험한 골짜기에는 도적떼가 길을 트는구나.// 하늘을 나는 새도 깎아지른 산에 놀라고/사람은 기우뚱거리는 다리 건너기 힘드네.//평생에 눈물 흘린 일이 없었는데/ 오늘만은 하염없이 눈물 뿌리도다."

평생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혜초 스님의 두렵고 암담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카라코람 하이웨이에는 수백 개의 암각화로 유명한 칠라스가 있다. 칠라스는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동서교역의 중요한 루트로 이용되어 왔다. 동물이나 사냥꾼 등 선사시대부터 새겨진 암각화가 있으며, 기원전후 1세기사이에 불교를 주제로 해서 조성된 암각화들도 있다. 그 뒤 5세기부터 8세기까지 또다시 수많은 암각화들이 새겨졌는데, 이 암각화들은 간다라미술의 전통을 잇고 있다. 암각화를 보기 위해서 다리를 건넜다. 산도 아니요 언덕도 아닌 그곳에는 가시가 많은 사막의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윤기가 도는 갈색 바위들은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났고, 바위 표면에는 부처님과 법륜(法輪), 불탑들이 얇게 새겨져 있다. 불탑의 양식이 우리나라나 중국의 양식과 닮아 있기에 천축으로 가는 구법승이 그렸을 것이라 추측해 보았다. 사무치게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오롯이 새겨진 불탑에 삼배를 올렸다.

칠라스를 지나 베샴에 도착하니 밤이다. 베삼은 전기사정이 좋지 않은지 온 동네가 어둠에 잠겨있다. 다음날 이른 아침을 먹고 또 다시 길을 떠났다. 어제 하루 종일 보고 온 풍광이 또 다시 눈앞에 펼쳐진다. 길기트에 가까워올수록 검문이 잦아진다. 길기트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며 파키스탄의 중요한 군사지역이다. 길기트 또한 옛날부터 실크로드의 도시이며 불교의 중심지였다.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잘도 달린다. 가도 가도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산들이 이어진다. 도로 중간 중간에 넘어진 트럭들과 마주치기도 하였다.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데도 양을 몰고 가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거나 나무 한 짐을 해서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런 척박한 곳에서도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이곳에서는 겸손과 조화와 순응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❷



❸

구법승들의 간절함 밴 칼가부처

길기트의 시장은 참으로 은성하였다. 옛 도시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듯하였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향신료와 과일 등 먹거리가 주를 이루었다. 길기트 사람들은 사납기 때문에 함부로 여자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칼가붇다(Kargah Buddha)를 보러가기 위해서 산길을 걸었다. 누군가가 칼로 잘라 놓은 듯한 단애에 새겨진 마애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잘룩한 허리에 허벅지가 강조된 것이 간다라 불상의 양식임을 알 수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에 어떻게 새겼을까? 이런 척박한 곳에 부처님의 향기라도 남겨두고 싶어 했던 구법승들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길기트를 거쳐 훈자로 갔다. 훈자는 400년경부터 남부아시아와 중간 사이에 비단, 차, 도자기, 상아 등을 교류하였던 무역로이다. 이 길을 따라 13세기에 마르코 폴로도 지나갔다고 하니, 실크로드의 한 지류임에 틀림없다. 훈자는 장수마을로 유명한데 그 비결이 마을을 끼고 흐르는 검은빛을 띤 강물에 있다고 한다. 지금은 살구 수확기라 집집마다 살구를 말리고 있었다.

훈자는 알티트, 카리마바드, 가네쉬 부족이 모여 만든 왕국이었다. 13세기쯤 티베트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발티트성에 올랐다. 이곳에 오르자 흰눈을 이고 있는 라카포시가 보이고, 손가락을 쫙 펼친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레이디스 핑거(Ladys Finger)가 보인다. 3층으로 된 성에는 미르왕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왕실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날 지프차를 타고 빙하 트래킹에 나섰다. 옛날 대상들이 다녔던 실크로드가 보이고 그 부근에 삼층 돌탑이 보인다. 어린이가 쌓아 놓은 듯한 돌탑이지만 이것 또한 불교의 자취라 여겨서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빙하로 가는 길은 온통 돌멩이 투성이다. 햇살은 피부를 태울 듯이 뜨거운데, 빙하는 수만 년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자연의 그 깊은 속내를 알 수 가 없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는데 몸이 휘청거려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자연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인간 세상을 한 번씩 뒤흔들어 놓고 가나 보다. 교만하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여행을 통해 이러한 것을 배운다는 것이 슬픈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다. **본지 논설위원 · 수필가**



❹

❶ 칠라스의 암각화
❷ 훈자의 발티드성
❸ 길기트의 칼가 부처
❹ 줄리안 사원의 스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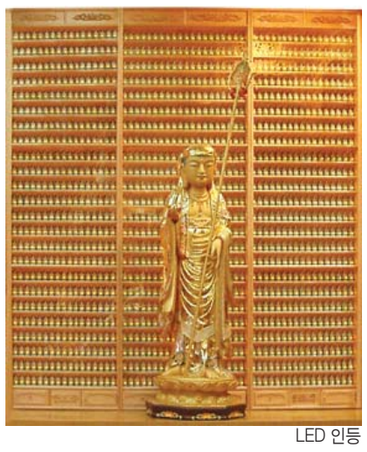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 합니다.


LED 인등


영구위패

찬덕연등 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사초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신나는 놀이터, 즐거운 법회

요즘 어린이법회, 정말 재미있다. 축구교실 · 비보이댄스 강습 · 마술교실을 비롯한 프로그램들과 공부방 · 논술교실 · 영어법회 등 교육 콘텐츠도 나무랄 데 없다. 따라서 어린이법회 참여도도 꾸준한 증가추세다. 하지만 청소년법회로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청소년법회 자체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 2006년 조계종 포교원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법회가 전국 240여 곳이라면 청소년법회는 80여 곳이다. 그나마도 5~10명 나오는 사찰이 상당수다. 이대로 가면 청소년법회, 정말 위험하다.

내 아이 불자 만들기
사찰의 역할

#1 나영이(16)는 요즘 고민이다. 집 주변에 다닐만한 사찰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불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교회가 많아 요즘은 그쪽으로 가볼까 고민 중이다.

#2 대학생 윤선아(24)씨는 청소년법회 지도를 하려다 좌절했다. 윤씨가 다니는 사찰에 청소년불자 수가 감소, 청소년법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법회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교원이나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 이하 파라미타) 같은 기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청소년법회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청소년법회의 문제는 크게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 사찰을 찾는 청소년들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소년불자 문제는 불교계가 인재불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파생된 결과가 바로 청소년불자 수 감소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청소년법회를 이끌어나갈 인재 부족 문제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어린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사찰로 데려올 수 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가 중요해진다. 어린이법회보다 청소년법회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아이들이 사찰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 빠져있는 청소년법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사찰을 찾도록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사찰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 아이들은 알찬 것을 원한다!

청소년법회는 재미있는 것이 우선이다. 온갖 자극적인 놀이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아이들은 특히 지루한 것에 약하다. 하지만 마냥 '노는 것'만 주가 되면 아이들이 불안해한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의 경우, 이 점을 철저하게 파악했다. 현재 봉은사 청소년법회에서는 '불교와 교육연극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꽤 괜찮다. 연극적 요소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보고, 법회를 함께 하는 친구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봉은사 파라미타 회장 김선미(혜원여고 2)양은 "솔직히 교회를 다닌 적도 있지만 절의 설법과 프로그램이 좋아 사찰로 돌아왔다"며 "다른 법우들도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불과 2년전 까지만 해도 7~8명만이 찾았다는 화계사(주지 수경) 청소년법회. 현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화계사를 찾도록 만들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청소년법회 호응도를 이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화계사는 2년 전 겨울 스키캠프로 청소년법회의 전환기를 맞았다. 캠프는 스키 체험과 사찰 순례 등으로 진행됐고 아이들에게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 여기에 매주 영어 · 수학 등의 '무료 과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문화재보호 · 독거어르신 돕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화계사 청소년법회 담당 이미숙 포교사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해 놀이와 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회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아이들은 편안한 것을 원한다!

청소년법회가 어린이법회와 다른 점은 아이들 자체가 '혼돈기'에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법회가 철저히 재미있어야 한다면 청소년법회는 아이들의 방황을 줄여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어린이법회처럼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청소년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기 마련이다.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는 편안함으로 승부하고 있다. 정각사의 가장 큰 장점은 자모회와 청소년법회의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학을 전공한 지도법사 정엽 스님과 자모들이 면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폭넓게 대화한다. 주지 정엄 스님의 원력도 보통이 아니다. 사찰 아이들 일이라면 아낌없이 지원한다. 영화관람, 야외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청소년법회 성공의 관건이다. 서울 옥천암(주지 정범)은 청소년법회 지도법사 운산 스님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찰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다잡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법회를 이끌어간다.

운산 스님은 "아이들을 편안하게 쉬도록 하는 것이 사찰의 미덕인 것 같다"며 "단편적인 교리전달보다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 애쓴다"고 귀띔했다.

□ 결국은 정성과 지원이다!

청소년법회가 잘 되기 위해 결국 회자되는 것은 사찰 주지의 정성과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지만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청소년법회, 인재불사에 대해 논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과 지원이다. 각 사찰이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종단의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불교가 너무 세속화 되거나 타종교를 모방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결국 편안함에 이끌리는 경우도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불교문화의 고유성이 적절하게 응용되어 참선 · 명상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또 다른 콘텐츠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파라미타에서도 앞으로 청소년법회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한곤 사무국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자 교육 등을 확대하여 법회 자체가 청소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사찰, 청소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찰 만들기에는 아직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법회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실천' 뿐이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양촌 법계사 신중탱화(동)
양촌 법계사 삼세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서울 법회는
11월 4일(日) 도봉에서 열립니다.
* 서울선원 ☎ 02-3494-0122 (매월 첫째 일요일)
선가귀감 / 11월 4일 오전 11시
* 광주선원 ☎ 062-944-4088 (매월 셋째 일요일)
선문염송 / 10월 21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 (매월 넷째 일요일)
반야심경 / 10월 28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원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오늘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는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많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십견심폐조끼,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의료기(02)723-0099 농협170-12-056037 정애영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내 아이 불자 만들기 부모의 역할

엄마, 아빠가 첫 포교사입니다





H. 클레르는 저서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불교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불자로서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진리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귀한 자식들에게 그런 값진 선물을 선사하지 않겠는가?"하고 반문한다.

아기일 때는 업고서라도 절에 다니던 부모들이 아이가 커가면서 점차 불교와 멀어지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종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는 자녀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충족시켜 줘야 할지 몰라 불교에의 호기심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집안이 불교여서 모기향을 보고도 절하고, TV 속 스님을 보고도 절하던 5살 아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친구 따라 교회에 가겠다고 한다. 멀쩡히 절에 잘 다니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니 이유 없이 절에 가기를 꺼려한다. 이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김종서 박사는 "인간의 선천적인 경향은 후천적인 영향을 받아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가소성"임을 강조하며 "어린이들이 6살 이전에 불교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교 중흥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내 아이가 처음 만나는 포교사는 바로 부모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떻게 불자의 길을 가게 할지 상담형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본다.

□ 친구 따라 교회에 가겠다고 해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친구 따라 뭐든지 하는 시기입니다. 교회에 가면 친구와 즐길 수 있고, 평소 학교나 집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춤을 추고 싶어서, 드럼을 칠 수 있으니까, 이성친구를 사귀려고 라는 이유로 교회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막연히 절에만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엄마가 가는 절이니까 같이 가서 넌 절 마당에서 놀아라"하는 것은 한 두 번은 통하겠지만 쉽게 질려하겠죠. 아이들에게 불법을 접할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어린이법회나 학생회법회에 데리고 가보세요. 법회의 즐거움을 알게 된 아이들은 굳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절에서도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이성친구들이 즐비하니까요. 스님, 부처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게 된 아이들에게는 절은 놀이터이자 아지트가 됩니다.

□ 불교는 지루하다고 합니다.

절에만, 법회에만 아이를 맡겨둔다고 불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책이나 경전을 던져주면서 "읽어보면 다 알아" "더 크면 네가 스스로 느낄거야"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아이들은 축제와 파티를 좋아합니다. 초파일 성도일 열반일 포살일 등을 모두 흥겨운 파티의 장으로 열어주면 어떨까요.

초파일이나 성도일에는 화려하고 예쁜 옷차림을 하고 직접 만든 등을 들고 절에 가도록 유도합니다. 요즘 연등축제는 아이들이 흥겨움을 느낄만하죠. 구경하는 것으로 흥미가 안찬다면 청소년 춤 경연대회 등 각종 참여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해 온몸으로 즐기게 하세요.

발우공양을 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집에서 대접 4개를 늘어놓고 발우공양을 즐기는 것도 독특한 경험이 되겠죠. 사찰음식만들기 체험에 도전해 사찰음식의 유래도 배우고 온가족이 마음껏 사찰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포살일은 경건한 날로 만듭니다. 하루 종일 채식만 하거나 죽을 먹고, 포살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를 되돌아보는 날로 정해보세요. 점잖은 옷을 입고 2시간 정도 묵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좀 더 자녀가 어리다면 온 가족이 함께 자연으로 소풍을 가보면 어떨까요. 싯다르타 태자가 사문유관을 통해 생로병사의 고통을 배웠듯 직접 자연 속에서 보여주며 생로병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줍니다. 소풍은 어린이들에게 동료 인간과 동물들에게 어떻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행동으로 가르칠 기회를 줍니다.

□ '왜 불교를 믿어야 하냐'며 '부모가 불자라서'는 이유가 안 된다고 대들어요.

아이에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생활불교가 정착된 미얀마를 살펴볼까요. 미얀마에서는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쯤이 되면 함께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는 방법을 부모가 몸소 보여줌으로써 부처님과의 인연을 자연스럽게 심어줍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기도하며 사랑을 쌓아가는 젊은 연인들, 친구들, 언제나 사원에는 전 연령층의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사원이 그네들과 가까운 곳에 있기에 언제든지 부처님이 그리우면 사원을 찾을 수 있고, 부처님께 하소연하고 싶으면 부처님을 뵐 수 있고, 부처님을 닮고 자하면 언제든지 불경 들고 염주 들고 사원을 향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지요.

어렸을 때 아무 설명 없이 절에만 데리고 다닌다고, 우리 집은 불교집안이니까 너도 불교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은 논리적인 설명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절에 데려갔을 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절은 무엇 하는 곳인지,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이라도 대화를 통해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법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자녀의 연령에 맞는 쉬운 불서들을 권해주세요.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만화 자타카〉라든지 불교동화 등 보다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강지연 기자

■ 청소년법회 여는 사찰

사 찰 명	전 화 번 호
서울 금강정사 학생회	(02)898-8200
안양 한마음선원 학생회	(031)470-3100
여주 수호사 학생회	(031)882-4802
대구 대관음사 학생회	(053)474-8228
대구 불광사 학생회	(053)792-1353
부산 혜원정사 학생회	(051)866-7771
서울 약사사 학생회	(02)2662-7551
서울 봉은사 학생회	(02)511-6070
서울 능인선원 학생회	(02)577-5800
서울 화계사 학생회	(02)902-2663
서울 약수사 학생회	(02)877-7514
서울 영화사 학생회	(02)444-4321
서울 금장사 학생회	(02)395-0042
서울 옥천암 학생회	(02)395-4031
서울 정토법당 학생회	(02)587-8993
서울 금화사 학생회	(02)357-9031
서울 진관사 학생회	(02)359-8410
서울 조계사 학생회	(02)720-1390
서울 무진법장사 학생회	(02)971-0303
남양주 봉선사 학생회	(031)527-1951
수원포교당 학생회	(031)245-9670
의왕 청계사 학생회	(031)426-2348
화성 신흥사 학생회	(031)357-2695
인천불교회관 학생회	(032)442-9910
인천 법명사 학생회	(032)577-5108
인천 수미정사 학생회	(032)427-8400
속초 원각사 학생회	(033)635-0106
평창 극락사 학생회	(033)332-2308
계룡대호국사 학생회	(042)551-0906
음성 광명선원 학생회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043)877-5000
영동 금성사 학생회	(043)743-1110
청주 관음사 학생회	(043)256-6254
김천 직지사 학생회	(054)436-6013
김천 불로사 학생회	(054)453-7424
상주 상락사 학생회	(054)535-2881
경주 분황사 학생회	(054)742-9922
부산 범어사 학생회	(051)508-3122
부산 관음사 학생회	(051)294-9300
대구 삼보사 학생회	(053)768-5220
경주 불국사 문화회관 포교당 학생회	(054)746-2211
완도 신흥사 학생회	(061)554-2634
해남 대흥사 학생회	(061)536-7427
익산 관음사 학생회	(063)854-1578
장수 성관사 학생회	(063)353-0396
제주 월라사 학생회	(064)767-0269
제주 한마음선원 학생회	(064)727-4662

※ 학생수 20인 이상 학생회입니다

설레임으로 떠난 소중한 여행, 환희심 넘치는 순례, 선택에 후회없는 여행, 이 모든 것이 대승항공여행사의 마음입니다.

대승항공
www.dsatour.com
문의 02)730-0202
· 부 산 (051) 245-0108
· 대 전 (042) 583-0108
· 대 구 (053) 572-0108
· 광 주 (062) 361-0108
· FAX (0 2) 730-4141

관음도량 보타낙가산/구화산/황산/항주/상해 7일 120만원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상해 5일 85만원
문수도량 오대산/대동/석가장/북경 6일 99만원
보현도량 아미산/성도/낙산/대족 5일 95만원

여름열차+티벳 9일 성도/낙산/라싸/성도 165~185만원
정통 비단길 성지순례 서안/난주/가욕관/돈황/하일/투르판/우루무치 165~185만원
윤남성 곤명/여강/대리/계족산 6일 110만원 / 9일 130만원
대만 대북/대중/고웅/화련 4일 75~85만원 / 6일 85~95만원

고품격
아프리카 4개국 15일 699만원
케냐/탄자니아/짐바브웨/남아프리카공화국
- 전 일정 특급호텔 사용기준, 롯지사용과 특식제공
- 아프리카 최대 동물의 왕국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사파리
- 잠베지강 선상 크루즈 관광 포함
- 세계 삼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 관광
- 케이프 타운 해안의 크루즈 탑승, 물개섬 관광
- 펭귄비치에서 물 랍스터 요리
- 마사이마라/나이로비, 나이로비/응고롱고로 구간 경비행기 탑승

중남미 7개국 20일 659만원
멕시코/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쿠바/페루
- 미국,멕시코,쿠바,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 파라과이,페루 8개국 방문
- 이과수 마꾸꼬사파리 보트투어, 파라과이 고란니 인디오촌
- 아르헨티나 탱고쇼 식사포함
-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피추
- 세계7대 불가사의 나스카라인 경비행기,바라칵스 물개섬
- 쿠바 비자비용포함

서유럽 핵심일주 6개국 12일 399만원
독일/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프랑스
- 독일 중세유럽의 로맨틱 가도 관람
- 퓌센의 아름다운 백조성 내부 관람
- 파리의 세느강 유람선 탑승 + 에펠탑 전망대 포함
- 세계 3대(바티칸,루브르,대영)박물관 입장 및 수신기 제공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269만원
오클랜드/크라이스트처치/퀸스타운/밀포드사운드/시드니등
- 와이모토 반딧불 동굴, 폴리네시안 온천욕
- 아그로돔 농장, 테푸이아마운틴쿡, 밀포드 사운드 절경 관람
- 블루마운틴(케이블카), 아이맥스 영화, 하버크루즈
- 시드니 수족관, 호주 동물원 관람
- 하드락카페에서 호주식 스테이크 식사

탄생에서 입멸에 이르기까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①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 ②불적지 한식요리사 및 한식과 현지식 제공 ③인도전문 한국여행사 직원 동행
인도/네팔 10일~15일 199~295만원
10일 : 인천/델리/쉬라바스티/룸비니/쿠쉬나가르/바이샬리/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인천
▶출발일 : 11월12일,19일,22일,26일,28일,29일 / 12월 24일,27일 / 1월10일,14일,15일 / 2월 25일,26일 / 3월 10일,11일,13일
15일 : 인천/뭄바이/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산치/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바이샬리/케사리아/쿠쉬나가르/쉬라바스티/카필라바스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인천
▶출발일 : 10월25일 / 11월22일,23일,24일,30일 / 12월5일 / 1월11일,12일,16일,17일 / 3월11일, 13일
인도 특별 전용열차 성지순례 11일 175~205만원
이 상품은 일정변동이 불가합니다
인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하파르니르반 열차를 이용하여 부처님 성지지역을 참배 할 수 있는 성지순례전용열차입니다.
인천/델리(호텔박)/델리/가야(열차박)/부다가야(호텔박)/가야/바라나시(열차박)/고락푸르(열차박)/쿠시나가르(호텔박)/고락푸르/곤다(열차박)/곤다/아그라(열차박)/델리(호텔박)/인천(기내박)
▶출발일 : 10월 19일 / 11월 2일,16일,30일 / 12월 14일 / 1월 4일,18일 / 2월21일,22일 / 3월 7일,21일

선종사찰의 발자취를 따라 초조달마에서 육조혜능까지
선종 성지 순례 7일/8일
7일 125만원
일정 : 인천-북경-정주-낙양-소림사-정주-무한-천주산-황매현-무한-광주-소관-광주-인천
8일 135만원
일정 : 인천-북경-석가장-정주-소림사-무한-천주산-황매현-무한-광주-소관-광주-인천
- 중국 3대 석굴중 하나인 용문석굴 순례
- 선종의 시발점이 되는 소림사와 일조암, 달마동굴, 탑림, 혜가선사의 주석처 이조암 순례
- 천주산 3조사와 황매현 4조사, 5조사등 불교선종의 시작과 현재의 흐름을 한번에 느껴봅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48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7일 160만원
- 세계최대의 와불이 있는 차욱탓치
- 카바에파고다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세계최대의 와불상이 있는 로카찬타
- 미얀마 최대의 성지이며 2500여개의 불탑유적지 바간 순례
- 양곤의 상징 세다곤파고다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165만원
콜롬보/캔디/네곰보/담불라
- 불교최대유적지 아누라다푸라 순례
- 호국불심의 담불라석굴
- 4존의 거대한 불상이 있는 갈비하라
- 처님 치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순례
- 스리랑카최초불교의 흔적, 마힌탈레유적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3층 TEL:(02)730-0202 / 국외 여행업 제 21-448호 국내여행업 제 21-138호
☆ 할인항공권 ☆여권발급대행 ☆각국 비자발급(미국포함) ◆불자님들의 편안하고 품격있는 순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착하다'는 칭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과 다르게 자꾸 말이 엇 나와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칭찬 받나요? (ID:착한아이)

좋은 마음을 실천해 보세요

사람이 '착하다'는 기준은 참 여러 가지에요.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착한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선 것 같은걸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실천만 하면 되겠지요.

친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여러 설명 보다는 때로는 시 한 편이 더 다가온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알아주기 전에
먼저 상대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정당한 청을 거절할 때도
자신은 상대의 정당한 청이라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미워하여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에게 무엇이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주는 사람입니다.

(중략)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생각하고 살려는 마음이며
상대를 위해 모든 것들 희생과 봉사로
심지어는 자신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

(바름정사 혜진님)

신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의 오만함 심판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도스토예프스키 作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는 <가난한 사람들>(1846년)로 혜성처럼 나타나 1866년 <죄와 벌>을 발표하게 되죠. 그의 창작세계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전기의 창작은 감상적 낭만주의적이었는데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세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죠.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창작은 당대 구체적인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는 리얼리즘적인 작품을 썼어요. <죄와 벌>은 리얼리즘의 후기 대표작이죠.

주인공인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서구적인 합리주의자이며 무신론자. 그는 빈곤과 고뇌에 허덕이며, 그의 좁은 하숙방에서 추상적 사색에 몰두한다. 그는 고독한 사색 끝에 드디어 그 나름의 초인사상을 체계화한다. "누가 나폴레옹의 살인죄를 물었던가? 나폴레옹은 사상 최대의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위인으로 존경하지 않는가. 그것은 나폴레옹이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는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할 생각을 품는다. 즉, 자기는 비범인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살해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정당한 것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와 여동생을 도끼로 살해한다. 그러나 그는 범행 직후부터 낮과 밤을 악몽처럼 보내며, 양심의 가책과 고민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고민은 논리와 의지가 명령한 논리적 의지와 인간의 내부에 도사린 선과 악, 정의와 정신적 의지와의 충돌에서 생기는 투쟁이었다. 그는 심각한 고민과 회의를 거듭한 끝에 자기는 무가치한 범인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

작가의 후기 리얼리즘 대표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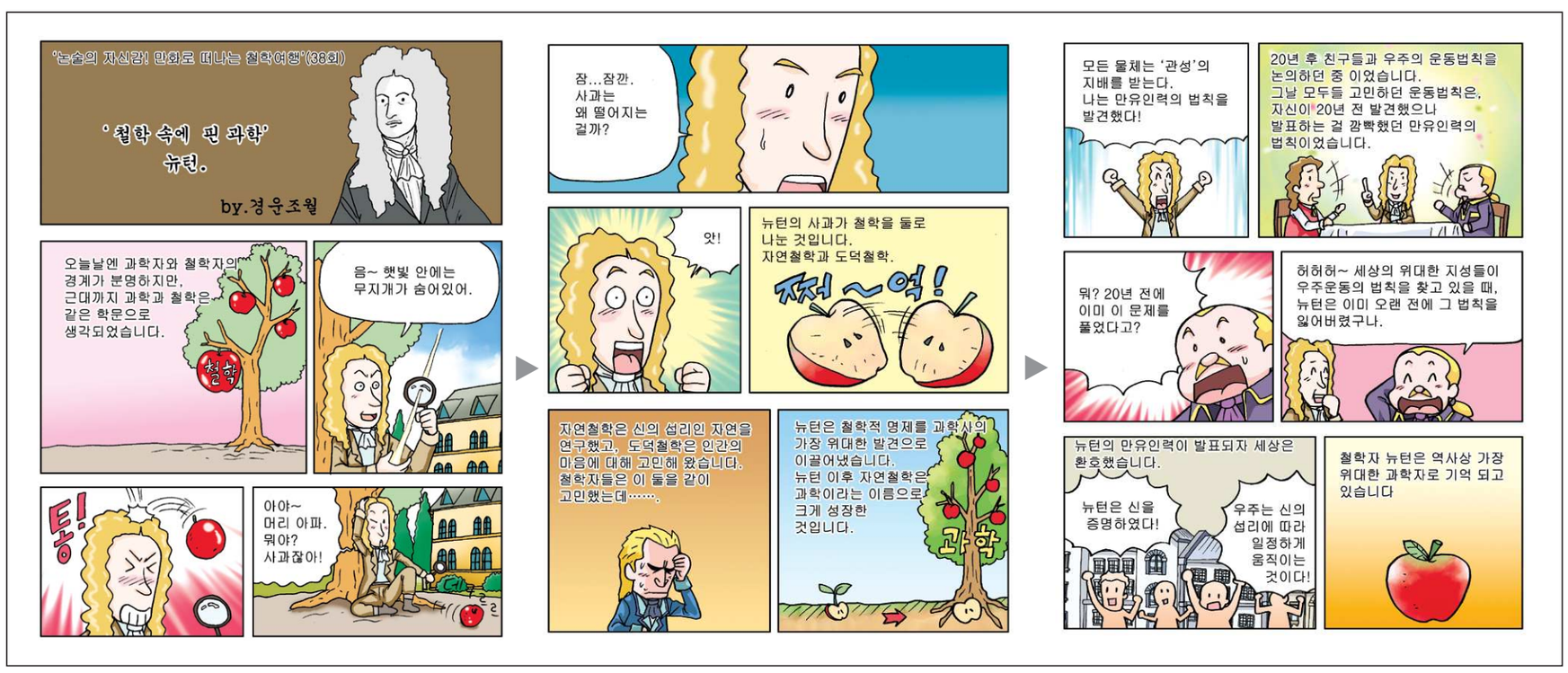
선·악이 공존하는 심리묘사 탁월

는 비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선량하고 신앙심이 깊은 성스러운 매춘부 소냐의 끈질긴 권유를 받고 자수하기로 결정, 그 후 시베리아에 유형된다.

<죄와 벌>은 도스토예프스키가 부채를 갚기 위해 쓴 불후의 사상 소설이죠. 작자가 이 소설을 쓸 당시, 러시아에서는 <시저의 역사>(1864년)라는 책이 널리 유포되었죠. "사회의 부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허용 된다"는 허무주의적인 초인사상이 한창 유행했었죠. 이 작품의 주인공도 초인사상의 소유자로, 범인은 기성의 도덕과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비범인은 그러한 도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범행 후 그는 미칠 듯한 고독감과 강박관념에 그만 굴복당하고 마는데, 이는 바로 당시 사회사상에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이 작품의 큰 테마는 살해동기가 자기의 본질적인 오해에 의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본질을 실험하려고 했던, 주인공의 오만함이 죄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사상을 엿볼 수 있지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체적 특징은 폴리포니적이라 말하는데 주인공이나 부수적 인물이나 둘 이상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다성 음악적 구조처럼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골고루 드러나는 작품의 성격을 말하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자기 부정을 하던 주인공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단 한사람의 대상이 바로 창녀인 '소냐' 이죠. 이 작품에서 소냐는 복음서적인 사랑과 인종의 사도이며, 무신론자 라스콜리니코프에 대립되는 구원의 존재로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지 숭배사상을 가진 범슬라브주의적 신앙경향을 알 수 있죠. 에필로그에서 그녀의 감화에 의한 주인공의 종교적 갱생과 정신적 부활이 그려지고 있으나, 이 부분은 예술적인 박력이 부족하고,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죠. 이에 반해 합리적인 원리와 비합리적인 원리 사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에 직면한 주인공의 심각한 고민은 투철한 심리분석과 극적인 박진력을 보여주죠.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문학은 세상의 거울이기도 하고 인간의 거울이기도 하지요. 문학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삶의 교훈과 지혜를 주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어휘력이나 상상력이나 사유하는 힘도 문학작품을 통해서 얻어지지요. 우리의 아름다운 말들도 갈고 닦아나가는데 문학작품이 최고지요. 가을은 책을 읽는 계절이라고 하지요. 요즘이야 독서가 필수가 되어 사계절 내내 읽어야 하지만요.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수리 : 물건 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돈. (우수리는 받지 않을 테니 물건이나 좋은 것으로 주세요.) 또 일정한 수나 수량에 차고 남는 수나 수량을 의미해요.(조카에게 이십만 원을 일 할로 얻어 쓸 터이니, 우수리 이만 원만 현금으로 내놓고, 표를 한 장 써내라는 것이다.)<염상섭, 두 파산>

인두겁 : 사람의 형상이나 탈.(넌 가난이란 게 사람에게서 오로지 인두겁만 남겨 놓고 모든 사람다움을 얼마만큼 샅샅이 짓밟는다는 걸 모를 테니까.)<박완서, 도시의 흉년> 관용적으로 '인두겁을 쓰다'라고 하면, 겉으로만 사람의 형상을 하였다는 뜻으로, 행실이나 바탕이 사람답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에요. '인두겁'은 '인'과 '두겁'이 결합된 어형입니다. '두겁'은 '가늘고 긴 물건의 끝에 씌우는 물건'을 뜻해요.

여리꾼 : 상점 앞에 서서 손님을 끌어 들여 물건을 사게 하고 주인에게 삯을 받는 사람. (작자는 김문현이와 가마꾼이 하는 수작을 동상전 여리꾼처럼 비슬비슬 웃으며 노려 보고 있었다.)<송기숙, 녹두 장군>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룡)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10월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큰스님께서는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운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성지순례 안내

1. 불교 4대명산 오대산/대동/북경6일
- ◆일정 : 인천-북경-오대산(1)-대동(1)-북경(2)-인천
- ◆출발 : 매주 목요일
- ◆경비 : 899,000원

2. 하늘로 떠나는 티벳 열차순례 9일(칭짱열차)
- ◆일정 : 부산-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2)-부산
- ◆출발 : 매주 월,목요일
- ◆경비 : 1,890,000원

3. 영혼의 도시 티벳 일주 9일
- ◆일정 : 인천-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1)-인천
- ◆출발 : 매주 수요일
- ◆경비 : 1,650,000 ~ 1,890,000원

4. 불교 4대명산 상해/구화산/보타산/황산/항주 8일
- ◆일정 : 인천-상해-수주-항주(1)-구화산(1)-황산(2)-항주(1)-보타산(1)-상해(1)-인천
- ◆출발 : 매주 목요일
- ◆경비 : 1,190,000원

5. "산과 바다의 어울림" 상해/보타산/낙가산 4일
- ◆일정 : 인천-상해(1)-보타산(1)-상해(1)-인천
- ◆출발 : 매주 월, 수, 토요일
- ◆경비 : 64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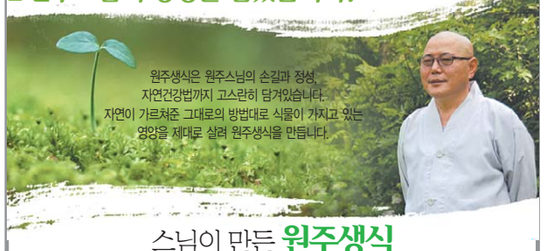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전문판매대리점

(주)VIP여행사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055)743-5001, 팩스 743-5003
E-마트 : ☎055)741-9999, 팩스 742-4444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빠져보세요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의 영양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천하의 명약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석청** 1kg 500,000원
맛과 영양에서 탁월한 **원주장류**
-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 ▸원주된장(2kg): 20,000원
- ▸원주고추장(2kg): 25,000원

전국대리점 모 집 중 (무상사)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산28-3번지
소비자상담실 (053) 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무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신비의 명약 **鳳凰 山蔘**

천제가 지상에 내려와 산신령으로부터 단 한뿌리만
얻어 갔다는 전설속의 봉삼
태조 왕건에게 1,000년된 봉삼을 바쳤다는 신비의 봉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불로초로 알려진 봉삼
모든 산삼중에 최고의 약 효능이 뛰어난 봉삼
죽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을 도와주는 봉삼
누구나 먹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봉삼



※ 본초강목에 의하면 봉삼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간, 위, 비대소장, 두통(만성), 해수, 열풍독, 모든 지각성마비, 근육통, 살균피부염, 소염 이노에 특효라하고, 폐경, 대장경, 비경에 작용한다. 풍습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해독한다. 했고... 봉삼 달임액으로도, 이담작용, 해열작용, 억균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임상실험적으로 밝혀졌다.
풍한습비증, 황달, 대장염, 임증, 대하,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옴, 버짐 등에 쓴다. 그리고 수태음경, 수양명경에 작용하고, 풍비에 중요하게 쓰이는 약이라 한다.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환자분이나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는 특별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최고입니다.

구입처 018-554-6198

설법 연수 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식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설법을 잘 하기 위한 대인불안, 공포해소, 표현력, 설득력, 호소력, 화술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특강에 오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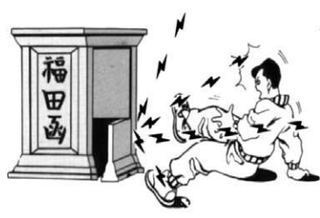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현대칼라지붕공사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작수 대진 합장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8. 허공을 붙잡은 천황

되기는 되었으나 점검해 보지만
得卽得 點檢將來
그 노장 생전에 알랑알랑 속이고
這漢 生前滿滿頂頂
죽은 뒤에 갈팡질팡 한다
死後奔奔鹵鹵
만약 코끝이 하늘 찌르기를 원하면
若要鼻孔 撩天
질뚝배기 대접가락과
瓦椀竹筯
남은 밥 쉰 국, 한 쪽에 밀치고
殘羹餿飯
뜨거운 화로가, 호떡을
熱爐餬餠
원하거든 곧 청해야 한다
要請便請
알겠는가? 還會麽
사람은 포기도 뿌리도 없지만
人無根株
밥으로써 생명을 삼는다.
以食爲命 –보녕수

위의 선시들은 천황 도오(天皇道悟, 748~807)가 임종시에 우리에게 보인 활구법문에 대한 후세인의 염이다. 죽음에 임한 사람이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저승·이승의 벽 허물고 자유자재로 인생 마감
"깨닫고자 한다면 평상심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는 간혹 선사들의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그 웅장한 생의 운행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천황 역시 그렇다.

한 평생 쾌활을 외치든 천황조실이 병이 중하게 되어 임종을 맞게 되었다.

"괴롭구나, 괴로워. 원주야 술을 가져와 좀 먹여다오. 고기를 가져와 나에게 먹여라. 염라대왕이 잡으러 온다. 어이할꼬."(院主 把酒來與我喫 將肉來與我喫 閻老子 來取我也)

하였다. 원주가 곁에 와서 물었다.

"큰스님께서는 평소에 쾌활 쾌활하시더니 지금의 왜 괴롭다를 연발 하십니까?"

"원주야, 말해봐라. 그 때가 옳은가, 지금이 옳은가?"(且道 當時是 如今是)

원주가 대답을 못하자, 퇴침을 밀어내고는 숨을 거두었다.(<선문염송> 351칙 '快活')

천황, 그는 스승이었다. 그에게는 저승과 이승의 벽이 허물어졌고, 그의 가르침은 우주운용의 하나일 뿐, 철저히 미친 사람이다. 저승의 강을 무엇이 이렇게 당당히 건네게 하는가?

이제 보녕수(保寧秀)의 염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들 깨달은 이'라고 모시는 조실스님이니, 그의 일생을 조명하여 보면, 생전에 그저 덜렁덜렁 적당히 지내고 죽음에 이르러는 허겁지겁 천방지축으로 헤매다'가 3행까지 내용이고, 4행에서 8행까지 내용은 '깨달음의 바른 소식을 꼭 보고자 원하면, 다른 것이 아니다. 일상사와 평상심을 벗어나지 않으니, 산사의 일상사와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는가? 요긴한 것은 '질뚝배기 대접가락과/남은 밥 쉰 국' 그리고 '뜨거운 화로와 호떡/필요로 하면 곧 청하라' 이것을 빼면 무엇 하나 더 필요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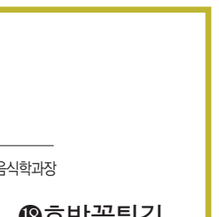
착어 : '사람은 근본적으로 알 수 없지만, 단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단 것은 꼭지까지 달고
甘勘徹底甘
쓴 것은 뿌리까지 쓰다
苦苦連根苦
퇴침을 밀어낼 때
拈起枕頭時
신라에서는 삼경을 친다
新羅夜打鼓 –원조

앞 <염송> 351칙 '쾌활(快活)'에 대해 후대 선객의 게송 하나를 더 읽어보자.

1행과 2행은 "단 것은 꼭지까지 달고/쓴 것은 뿌리까지 쓰다"는 자성본원에 영회한 무사한인은 '철저히 한 통속이어서 안과 밖이 없어 내외명철(內外明徹)하고, 삶과 죽음이 같으며 늘 자발광하여 상적상조(常寂常照)하다'라고 한 다른 표현이다.

4행과 5행 "퇴침을 밀어낼 때/신라에서는 삼경을 친다"의 풀이는 '지금 천황이 열반당의 정문을 밀치고 있는데, 먼 먼 신라에서 응답의 종을 친다'로 해두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⑱호박꽃튀김

꽃을 음식에 활용해온 역사는 우리나라도 서양 못지않습니다. 진달래와 아카시아꽃 등으로 만든 화전과 떡, 튀김 등이 꽃을 이용한 대표적인 음식이지요. 최근 서양채소와 허브가 재배되면서 꽃요리는 새로운 음식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양채소 중 먹을 수 있는 꽃을 '꽃채소'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것이 꽃양배추, 브로콜리 등입니다.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꽃은 허브를 포함해 100여종 정도가 손에 꼽힙니다. 이 가운데 일상생활에 활용해 봄직한 꽃이 호박꽃입니다. 호박꽃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꽃입니다.

호박꽃은 산모 부기 제거·이뇨작용에 효과
영양소 파괴 줄이려면 기름에 튀겨 먹어야

호박꽃에는 쿠쿠비타신 성분 외에 아미노산과 흡수가 잘 되는 철분, 당분, 카로틴, 비타민C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권우 고려대 생명공학부 교수는 "독일의 생약회사가 요도의 전립선 수축이 잘 안 돼 배뇨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뇨제를 개발했는데, 생약의 50%가 말린 호박꽃 가루"라며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산모에게 늙은 호박을 먹임으로써 부기를 빼는 등의 효과를 보았는데 호박의 효능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박꽃은 자연 그대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주키니 호박꽃을 사용하는데 꽃에 들어있는 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에 익히지 말고 기름에 살짝 튀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박 교수는 "꽃이 활짝 피기 전에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은 달착지근한데 하루 2~3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호박꽃 외에도 도라지, 씀바귀처럼 나물이나 잎으로 쌈을 싸 먹을 수 있는 식물의 꽃은 거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쭉꽃이나 은방울꽃, 애기똥풀꽃 같은 것은 독성이 강하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호박꽃튀김입니다. 호박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습니다. 이탈리아 스파게티 중에는 호박꽃을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의 사찰요리처럼 호박꽃을 튀겨 스파게티와 같이 먹는 음식도 직접 맛보았는데, 특별한 맛이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호박꽃튀김

재료 : 호박꽃, 밀가루, 전분가루, 소금, 간장, 식초

만드는 법

① 튀김할 때 쓰는 호박의 암꽃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므로 수꽃을 준비한다. 아침 일찍 호박밭에 나가면 꽃이 활짝 피어 있다. 핀 호박꽃을 따서 물에 씻지 말고 둔다.

② 밀가루와 전분을 섞어 튀김옷을 만들고 호박꽃을 담궈 입힌다.

③ 120℃ 정도의 기름에 튀김옷을 입힌 호박꽃을 튀긴다.

④ 초간장과 함께 그릇에 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⑱

나는 오래전에도 여기 있었다
임동확| 실천문학사,2005| 7천원





불교적 상상력으로 길어 올린 '희망'

임동확은 1959년 광주에서 태어나 1987년 시집 <매장시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본 시집은 그의 6번째 시집이다. 그의 시집을 읽어가다 보면 그가 "노안천주교에서 견진성사를 받던 중학교 일학년"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청소년기부터 천주교에 인연을 맺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편의 시에서 불교적 제재를 취하거나 불교적 상상력을 가동시킨다.

목 없는 석불도 그 나름의 석불이어서
그 반대도 역시 그 나름의 한세상일 따름이어서

어떤 확신에 찬 신념의 쇠망치가
광기의 톱날이, 도대체 회의할 줄 모르는
또 다른 광신의 비밀결사가
불두를 집단적으로 도륙했을지라도,

다 옳다, 흠도 손댈 것 없다
경주 남산에 무더기로 목 없이 서 있는
석불도 석불은 석불이다 (하략)

– '온몸을 들어올려' 부분

화자에게는 목 없는 석불도 석불이고 목 있는 석불도 석불이다. 그러니 가시적인 것은 본질이 아니며, 더 나아가 불상을 파괴하는 행위도 진심이라면 그것이 불심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하거나 파괴된 것조차 부처이며 석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이다.

그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며'에서 "끝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구층탑이 솟구쳐 오른다"며 "공허의 사막 속에서도" 폐허 이전의 너머를 꿈꾼다. 그는 '탑'에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소회를 시로 표현하기도 한다.

시에서 화자는 그 석탑을 "막무가내 기울거나 무너져간 채 당당한 서탑이여/그러니 그나마 온전하게 꿈의 기단을 유지하길"하며 발원한다. 그러면서 "망각의 폐사지에도 고루 저녁노을이 깃들길!" 기원한다.

시 '용광로'에서는 백양사의 체험을 시화하고 있다. 화자는 백양사 진입로에 버려진 썩어가는 굴참나무 고목을 순환하는 식도로 표현하고 있다.

그 고목은 온갖 갑충류의 알이 슬어 있고 애벌레에게 파 먹히고 있고, 불개미를 불러 모은다. 이런 것들에게 고목이 속살을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화자는 한 번 더 "어처구니없는" 비약적 상상을 한다. 연못의 버들치는 한때 장구벌레였으며, 장구벌레는 진드기였다는 것이다.

화자는 "모든 것은 끝없는 나타남과 사라짐의 축제/빛나지도, 끊기지도, 나아지지도 않는 순간들의 유희"라고 한 뒤 백양사 "조실 서옹 큰스님의 설법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굴참나무를 "파먹은 애벌레를 먹고/굴뚝새가 또 다른 굴참나무에 둥지를 틀어 알을 낳으니/굴참나무가 자신도 모르게 굴뚝새의 예쁜 몸을 탄생시킨 셈"이라고 윤회의 원리를 피력한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굴참나무는 어린 굴뚝새의 어미"인 것이다.

그는 전남 강진군 무위사 벽화 가운데 하나인 수월관음도를 다음과 같이 형상화 하고 있다. 이 벽화의 관음상에는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오, 미완성이기에 아름답거나 더욱 그리운 날들이여

길동무 하나 없이 컴컴한 내장 속 같은 밤길
걸어가는 장님처럼 제 지팡이 소리에 귀 기울이자
차라리 눈 감은 채 독충 우글거리는 밤의 사막을 지나가자

– '수월관음도' 부분

불자정보 648호 |

▷접수처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 30분거리
● 가액 : 3억(융자1억3천)
010-4583-2035

촌집안내
● 위치 : 안동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며 산자락 끝에 있음
● 평수 : 25평
● 방3, 거실겸 주방, 욕실 (전기, 수도 들어옴)
● 스님께서 공부 하던 곳
● 가액 : 전세 1300만원
010-5438-2358
010-9250-235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3층 건물에 3층, 재래식 큰 시장 안
● 50평, 1,000만원에 30만원 시설 A급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0-9809-5006

별장식토굴안내
● 위치 : 춘천시 강촌근교
● 건물 : 한옥식 휴식공간
● 평수 : 130평(종중땅:도지는 묘지벌초로 대체)
● 내용 : 건축물 등기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
010-6312-863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1206㎡, 임야 130㎡, 요사 198㎡, 대웅전 109㎡, 삼성각 30㎡, 7층 석탑
● 실 사용평수 약 600평
●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보신 후 협의 요
011-9143-0098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역 부근
● 평수 : 약 45평
● 4층 건물중 3,4층(옥상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단, 주불 약사불 100불, 영가단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스님이 불사관계상 급 양도함 역학보시는 분 환영
011-225-8344

포교당안내
● 위치 : 전남 광주시 월산동
● 대지 52평
● 1, 2층 건물
● 가액 : 1억7천만원 (전세 7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602-9779

포교원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 (4호선)
● 평수 : 34평
● 2층 : 법당, 주지실
● 3층 : 방3, 주방, 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888-0130

탈종공고

● 사찰명 : 安國寺
● 창건주 : 李南周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326-1

상기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9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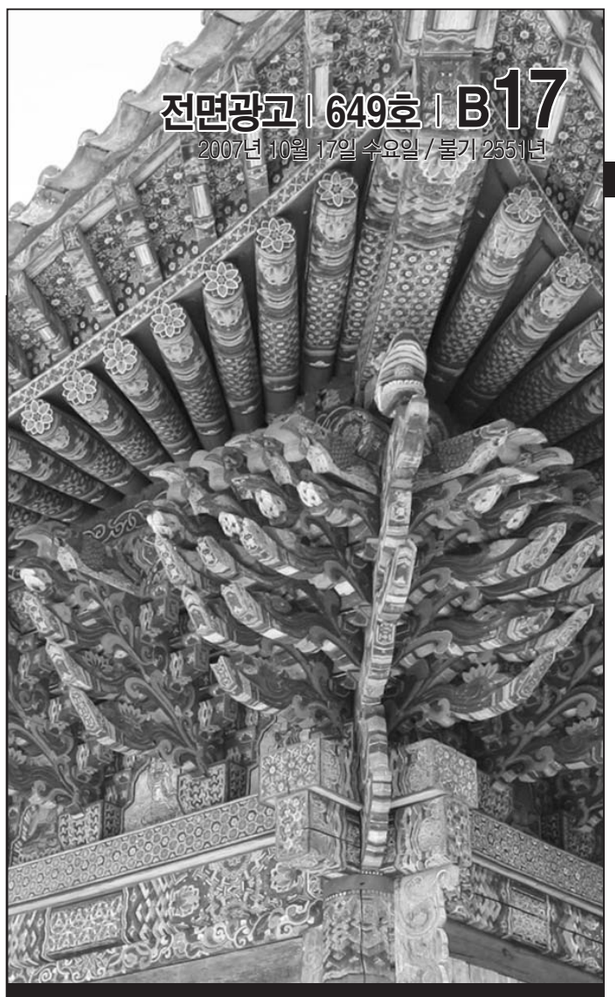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인천 부평(80년생)
● 부지 : 95평, 건물(신축) 4층
3층 법당(30평)
2층 주지스님 방 및 집무실(30평)
● 요사채 (30평),산신각 (15평)
아파트 및 빌라촌
● 가액 : 3억8천

임법당 안내(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 건물 스라브 약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3칸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마산
● 법당 :
● 요사 : 40평
● 부지 : 1,100평
● 가액 : 4억

● 위치 : 충남대전
● 법당 : 60평
● 요사 : 90평
● 부지 : 1,100평
● 가액 : 16억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35평
● 명부전 : 25평
● 요사 : 70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46-2 (자비사)
국제신문사 뒤편 교육대학 바로 옆
● 대지 : 104평, 건평 : 196평
● 지하 : 52평 (주택 및 철학관)
● 1층 : 52평 (주택 및 점포), ● 2층 : 52평 (요사채)
● 3층 : 40평 (법당)
● 삼중스님께서 주석하시는 곳 자비사
● 가액 : 8억 5천 (은행대출 5억 가능)
011-863-3557

포교당안내

● 위치 : 광명시 소하동
(서울 시흥대교 지나 바로 앞)
● 평수 70평 4층 건물중 4층,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스님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564-6669

사 찰 안 내
(사정상 급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상궁저수지 인근 구룡산 줄기
● 총평수 : 200평
(법당45평, 공양간45평, 마당
지하수(청정수)큰은행나무,감나무)
● 특징: 스님수행 토굴 및 도심연계
선방 또는 마음수련장으로 최적지임
● 가액 : 9천5백만원 (건물대지,
사찰운영물품 일체 포함한 양도가격)
016-401-6254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소재
(전철역 3분거리)
교통편리, 주변환경 조용함
● 대지 : 44평(단독)
● 2층 법당, 지하1층
● 가액 : 6억8천만원(시설비 포함)
●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니다
016-565-2527
(오후에 상담요망)

명당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 가액 : 5억 7천만원
011-9477-0375
(주인직접)

포교당 안내
(임대도 가능)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30평(3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2)902-4070

명산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90평, 밭 590평
● 진입로 포장, 심야보일러
농어촌 전기, 조립주택 28평
미타삼존불탱화, 방4, 입식부엌
● 구획 외 지역으로 건축이 자유롭다
● 1년내내 기도객이 끊어지지
않는 명산토굴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7-407-00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중심지
● 요사채, 법당 갖춰짐(슬라브)
● 가액 : 2억
● 국유지 5년 분할조건 계약하여
불하받는중에 2년 상환함(78.8평)
● 25년 된 사찰(명당터)
018-554-6198

포교당안내

● 위치 : 광명시 소하동
(서울 시흥대교 지나
바로 앞)
● 평수 70평 4층 건물중 4층,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스님 몸만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564-66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0-9757-5608
033)257-7124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랍
010-6411-28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시민회관 근처
● 평수 : 90평(7층 건물 7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주방,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108후불, 신중탱화,
감로탱화
● 에어컨 3개 등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 보증금 500만원, 월57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284-0737

촌집(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대지 92평, ● 건평 25평
● 가액 : 6천5백만원
(밭 14평 무상으로 드림)
011-884-77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3층 건물 3층
● 법당 약10평
(옥탑방 사용가능)
● 보증금 700만원,
월33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4830-3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 대지 150평,국유지600평
건물1동 있음
● 요사채(슬라브) 45평
● 산신, 후불, 칠성, 신장,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집기류 일체
● 가액: 1억 5천만원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556-061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시설최상급)
● 3층건물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후원 10평, 휴식공간 30평
● 보증금 3천만원,월30만원
(전세만 가능함)
● 포교 11년차 됨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3475-00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단청기와 1,2층 90평 독채
● 삼존불,산신불,탱화7,넓은법당
● 거실, 방3,주방,다용도실4
욕실,텃밭,넓은주차장,생활편리
● 전세 : 3천5백만원
시설비는 절충
● 노환 은사님과 합사관계로 급 안내
016-9290-2134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
● 대지 : 470평
● 법당, 요사채
● 가액 : 8억
010-4664-1470

포교당 안내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 온양시내 중심가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
2층 건물 2층
● 내년 3월부터 서울까지 지하철
운행(교통편리)
● 법당, 상담실, 스님방, 욕탕 구비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리모델링 시설비 : 1200만원
● 철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즉시법회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평 동남부
● 부지 : 2천평
● 대웅전, 삼성각, 종각,
종무소, 요사채
● 남향의 아담한 사찰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7-372-8968

도심속의 포교원

● 위치 : 서울 신창동
● 2층 35평
● 시설 일체 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414-5601

도심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2층 양옥
● 대지 170평, 건평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7104-4849
010-4527-4849

멋진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고령
● 대지 2,000평, 대웅전 단청 40평,
요사채 큰방4개, 현대식주방2개,
목욕탕 실내화장실, 소형 연못
● 요사채 1층 원룸 15개, 2층 원룸 15개
다락큰방 2개, 현대식 신축,
2007년 5월 올 수리
● 16억 짜리 웅자 2억 안고 4억에 급 매도
주인 직011-869-8608
011-872-707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연하리 163번지
● 지장사, 토굴촌, 기와집
● 평수 : 10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011-488-636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평수 : 약50평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82-1865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대내골 입구)
불사한지 3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 100평
● 대웅전 약30평,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사용
연못 조경 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급 양도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 천연염색 체험장으로도 적합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9-245-892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
(울진 불영계곡 가는길)
● 부지 550평
법당 목조 한옥 20평(단청필)
● 요사채 30평, 심야보일러
산신각 1동, 화장실 1동,
● 진신사리봉안석탑
산세 좋고, 교통편리,주차 무한정
● 가액 : 2억7천만원
010-7186-5570
054)673-6496

명당(터)안내

● 위치 : 고흥 남쪽 끝
한적한 바닷가
● 평수 : 총 550평(관리지역)
● 용도 : 암자, 토굴, 팬션, 별장지
● 특징 : 뒤쪽 산, 앞 바다,
2차선 도로접, 정남향
● 가액 : 총4800만원
061)835-4988
017-626-498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광안동
● 40평
● 방2, 공양간, 화장실, 친견실
에어컨, 시설 최상급
● 주역, 명리 하시는분 최적지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소액절충가능)
010-5408-4949

포교원안내

● 위치 : 정릉4동 북한산 입구
● 평수 :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9281-54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서면
● 대지 : 100평
● 법당, 주불, 아미타불, 삼보 탱화 완비
● 칠성, 용왕, 산신, 삼성각, 불화완비
● 요사채1, 주방1, 스님방1,
목재주택사찰, 법회시설 완비
● 가액 : 7500만원
054)751-3304
011-511-0442

포교원안내

● 위치 : 원주 시립박물관 옆
● 평수 :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9940-0312
010-2456-8630

포교원안내

● 위치 : 원주시 평원동
● 평수 : 60평(2층)
● 내부 : 법당1, 큰방2, 작은방1, 주방1
마루(대형다용도실), 화장실2
삼존불(아미타, 관세음, 지장보살)
영단있음, 에어컨(냉난방겸용)
강변주차장 무료이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스님 해외유학 관계로 급 양도함
011-9901-5000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9억(급양도)

● 위치 : 서울산속
● 국유지 : 약500평
● 법당 : 25평 목조
● 요사 : 60평
● 가액 : 6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경북권)
석불 · 석탑 · 석등 ·
석조각품 · 석물공사
(중국 직수입, 제작공급)
● 사찰법률상담, 재테크 전문상담
011-822-8000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 찰 (급) 양 도

● 위치 : 경남 합천
● 부지 : 410여평, 하천부지 : 510여평(현재 사용중)
● 대웅전 : 목조단청(21평)
요사 : 한옥 기와 2채(32평)
● 경내 : 범종각, 8층 석탑, 약사여래석불,
관음석불, 산신 용왕단
● 특징 : 사찰역사 약 50년, 전문지관이
극찬한 천하명당
● 양도가 : 2억3천만원
010-6834-8868
사중집기 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사 찰 전 세

● 위치 : 진주시내 10분 거리
● 건물 5동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6평, 사무실 6평
● 심야보일러, 기름보일러, 전기판넬
● 들어오는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있습니다
010-9353-3466

사찰전세 및 월세안내

● 위치: 정동진
● 보증금 2000만원, 월20만원
전세 3500만원
● 넓은 텃밭,
모든시설완비
011-9918-5251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4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대 형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보증금 1억 / 월 200만원
시설비 9천만원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7) 두타산 삼화사

맑은 물 따라 버들개 노닐고 숲길엔 가을꽃 활짝

우리 산 이름 가운데 출가 수행자의 본분에 가장 어울리는 산 이름을 든다면 강원도 동해 '두타산(頭陀山)'일 것이다. '두타(頭陀)'는 범어인 'dhuta'를 음역한 것으로,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수행하여 번뇌에서 벗어남 또는 그러한 수행자'를 이르는 말이다.

강원도 동해와 삼척 지역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두타산(1353m)을 비롯해 이웃한 청옥산(1403m), 고적대(1353m), 갈미봉(1260m) 등이 아고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이 고산지대의 능선을 옷걸이 횃대에 비유하여 '의가능(衣架嶝)'이라고 불렀다. 현재의 두타산과 청옥산은 이름이 바뀌어 있다. 고산자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하여 많은 자료들이 고증하고 있다. 청옥산이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아 원래 두타산이 지금의 청옥산이었음이 분명하다.



구름버섯.



새며느리밥풀꽃.



산천어.

두타산과 청옥산이 만드는 명승 무릉계곡에 신라 고찰 삼화사(三和寺)가 자리하고 있다. <삼화사사적비>와 <진주지> 등에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초창한 것으로 나와 있고, <동국여지승람>과 <척주지> 등에는 신라말 굴산산문의 개산조인 범일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화사의 원래 절터는 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러다가 1977년에 쌍용양회가 들어와 석회석을 채광하면서 자의반타의반으로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하루 2차례 진행되는 발파작업으로 삼화사는 전각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고 있다.

삼화사 공용주차장에 내리면 매표소를 지나 절까지 흙길이 이어져 있다. 숲길 오른쪽으로는 한꺼번에 수 백명이 앉을 수 있는 너른 암반(무릉반석)이 있고, 그 위로 옥 같은 물이 흐른다. 반석 한 켠에 아름다운 금란정(金蘭亭)이 서 있다. 무릉계곡의 물은 폭우나 태풍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1급수를 보여주고 있다. 서식하는 물고기들도 버들개와 산천어 등 1급수 어종들이다.

산천어는 수온이 섭씨 10도 안팎의 차가운 물에 사는 1차 담수어이다. 크기는 어른 한 뼘 정도이며, 몸의 옆면에는 10개 내외의 큰 가로무늬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작은 점들이 빽빽하게 흩어져 있다. 산천어는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에만 서식한다. 수서곤충, 어린 물고기, 동물성 플랑크톤, 다른 어류의 알 등을 먹고 자란다.

바위 위에서 깃털을 고르는 물까마귀는 텃새로, 몸 전체가 진한 흑갈색이다. 산간의 맑은 계류에서 혼자 또는 부부 둘이서만 산다.

삼화사 주변의 텃새로는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하여 직박구리, 굴뚝새, 딱새, 동고비, 붉은머리오목눈이, 멧비둘기, 어치, 까치, 큰부리까마귀 등이 관찰되었다. 물가 주변에서는 검은댕기해오라기, 물까마귀, 원앙, 청호반새, 물총새, 노랑할미새 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꾀꼬리, 파랑새, 후투티, 쇠유리새, 흰배지빠귀, 뻐꾸기 등 여름철새는 이미 남녘으로 떠나고 보이지 않았다.

반석교 다리를 건너면 삼화사가 나온다. 옛 터에서 이전해온 지 겨우 30년, 마당 가운데 자리한 석탑 말고는 천년고찰을 느끼기가 어렵다. 가람배치는 남향한 적광전(寂光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전각들이 위치하고, 마당 앞에 석탑이 서 있다. 적광전 앞 석탑은 석회석 성분이 많은 이 지역의 석재로 쌓은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오랜 세월 비바람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많다.

둔덕에 이승휴(李承休) 유적비와 탑이 서 있다. 그는 <제왕운기>를 통해 단군이 박달나무 신의 자식이라 하여 나무를 우리 겨레의 시조신으로 상징하고 있다.

경내 조경수로는 박태기, 무궁화, 주목, 공작단풍, 복승아나무 등이 있지만, 주위의 수승한 자연풍광에 눌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다만, 지장보살상 뒤에 가지가 둘로 뻗은 노송이 한 그루 있고, 천왕문 좌우에 늙은 향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는데, 그 중 한 그루는 밑에서부터 세 줄기가 뻗어 나와 불법승 삼보를 빗대어 '삼보향(三寶香)'이라고 지어 보았다.



팽나무

무릉계곡 주변에 산천어 등 1급수 어종·다양한 양서류 서식
관음암 가는 길엔 우리나라 특산물인 금강초롱 관찰할 수도

담장 밖 연못에 연꽃, 수련, 개연 등을 띄웠는데, 꽃은 이미 지고 없다. 그 대신 구절초가 연못 둘레에 화사하게 피었다. 물속에 호박씨만하게 자란 붕어들이 노닐고 있다.

활엽수를 좋아하는 대형 딱정벌레들은 야행성이 많다. 사슴벌레들은 여름 한철을 보내고 이제 서서히 동면을 준비할 때이다. 넓적사슴벌레는 우리나라 사슴벌레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고 힘도 가장 세다. 몸길이는 7cm까지 자라는데, 머리는 짧고 바깥쪽 테두리는 거의 직선형이다. 뿔은 직선형으로 뻗었다가 끝이 갑자기 오므라들어 있다. 나무진이나 과일에 잘 모이고, 야행성이지만, 불이 켜진 산중암자나 가로등 밑에 잘 날아든다.

굵은줄제비가지나방은 자나방의 한 종류로 남한 전역에 분포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여름철에 나타났다가 가을이면 사라진다. 몸과 날개는 모두 백색이다. 더듬이 모양은 수컷은 깃털 모양, 암컷은 실 모양이다.

삼화사와 무릉계곡 주변에는 도롱뇽, 무당개구리. 물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산개구리 등 여러 종류의 양서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논개구리라고도 불리는 참개구리는 주로 초지에서 관찰된다. 주위환경에 따라 보호색을 띄는데, 여름에는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 얼룩무늬, 가을에는 낙엽 색깔과 같은 회갈색으로 바뀐다.

비가 내린 다음이라 경내외에서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관찰되었다. 나무 그루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지버섯은 독성은 없지만, 조직이 가죽처럼 질겨서 식용하지 않는다. 항암효과가 있어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삼화사 절 뒤로 경사진 산비탈에 금강송들이 울울창창하다. 그러나 얼마 전 삼화사 주변에 재선충이 들어와 지금 총 비상사태에 걸려있다. 산림청은 삼화사 요사채 증축공사를 벌일 때 사용한 소나무 목재에 있던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소나무 반출을 금지시키고,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삼화사에서 용추까지 2km는 길도 넓고 경사가 느리다. 상록수로는 소나무와 전나무가 나타나고, 지질(석회암)의 영향을 받아 회양목과 노간주 같은 상록수도 보인다. 대표적인 활엽수로는 참나무 종류를 비롯하여 황벽나무, 물박달나무, 거제수나무, 느릅나무, 다릅나무, 들메나무, 마가목, 서어나무, 소태나무, 음나무, 팽나무 등이 관찰되었다. 그 밖에 등칡도 계곡 주변에서 목격되었다.

황벽나무는 높이 10~15m 가량으로 자란다. 줄기는 연회색의 코르크가 발달하고, 잎은 달걀 또는 피침형이며, 잎에 윤기가 있다. 가을에 열매가 검게 익는다. 줄기의 노란 속껍질은 설사와 이질을 낫게 하는 한약재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몰래 잘라가기도 한다.

물박달나무는 자작나무과의 교목으로, 높이 20m에 지름이 30cm 정도에 이른다. 줄기는 회갈색의 얇은 종이를 더덕더덕 붙여 놓은 것처럼 지저분하다. 잎은 마주나고,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6~8쌍의 측맥이 뚜렷하다. 내한성이 있어서 주로 중부 이북에 자란다.

숲길 오른쪽으로 학소대가 허공중에 아스라하게 자리하고 있다. 붉은색이 감도는 바위들이 마치 두부모처럼 각이 져서 층암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층암은 절리현상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힘에 의해 암석에 생긴 절리에는 가로로 갈라지는 판상절리와 세로로 갈라지는 주상절리가 있는데, 학소대의 절리는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판상절리가 대부분이다.

무릉계곡의 비경인 용추폭포는 3단으로 쏟아진다. 폭포 아래는 항아리처럼 생긴 폭호(瀑湖)가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이 바위를 절구통 확처럼 파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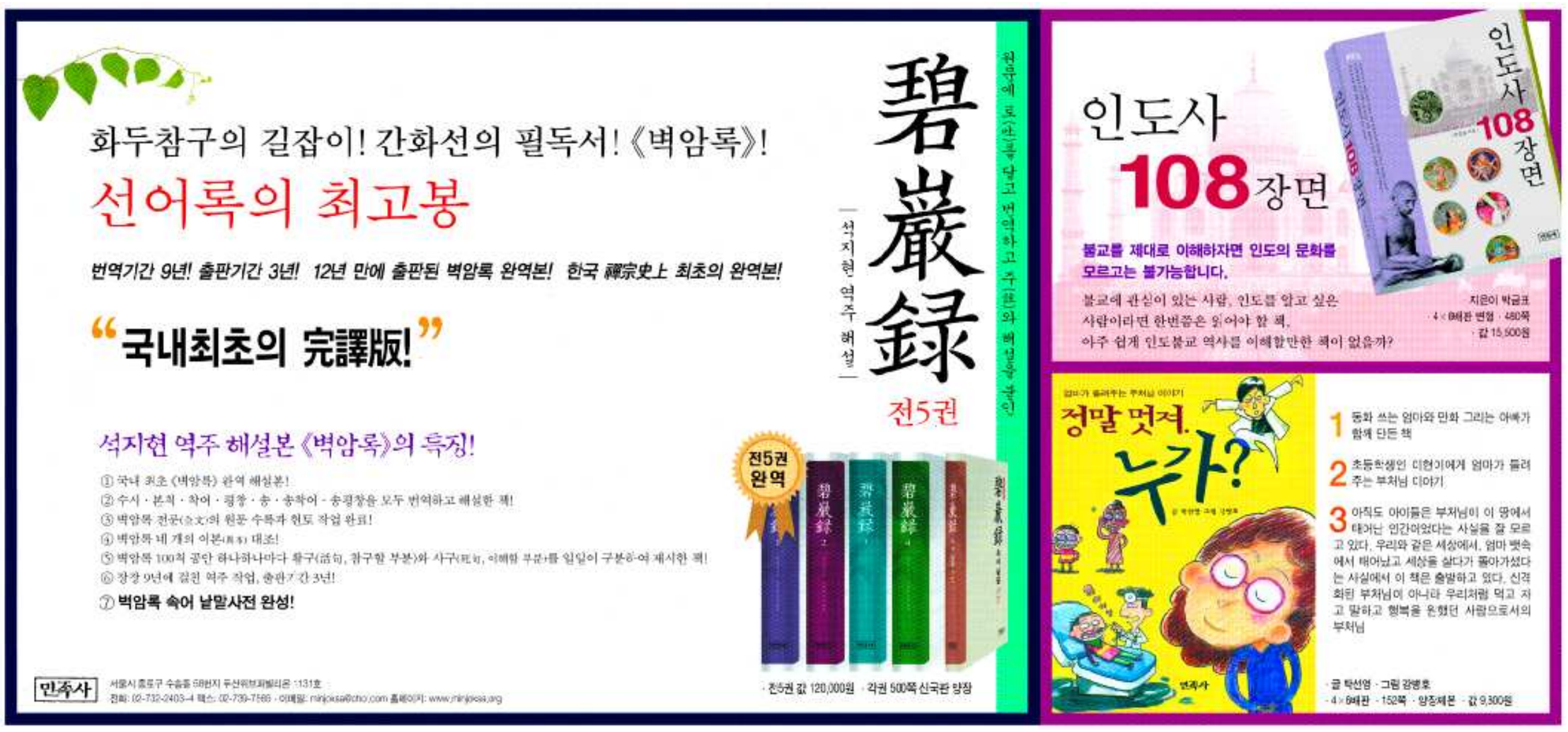
관음암으로 가는 숲길, 그늘을 비켜서 가을꽃들이 피었다. 금강초롱은 중북부 높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60cm 안팎의 줄기에 4~5장의 잎이 어긋나고, 가을에 종처럼 생긴 꽃이 곧추 선 줄기 끝에 핀다. 꽃은 남보라색으로 1송이씩 피는데,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두타산은 금강초롱의 남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다.

삽주는 국화과 초본으로 키가 50cm 안팎이다. 잎 가장자리에 짧은 가시처럼 생긴 톱니들이 있다. 꽃은 가을에 피는데, 연분홍색이다. 봄날 흰 솜털로 덮인 어린 순은 나물로 먹는다. 가을에 뿌리를 캐서 말린 것을 백출(白朮) 또는 창출(倉朮)이라 하여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

이 밖에 삼화사와 관음암 주변의 귀화식물로는 미국가막살이, 환삼덩굴, 개망초, 망초, 미국쑥부쟁이, 달맞이꽃, 다닥냉이, 붉은토끼풀, 돼지풀, 서양민들레, 오리새 등이 있다.

관음암은 요즘 칠층석탑 건립불사로 분주하다. 관음암 앞의 팽나무는 여러 그루가 한데 모여 특이한 수관을 연출해내고 있다. 계곡 건너 펼쳐지는 암벽단애가 거대한 성벽처럼 다가선다. 관음암은 안대가 일품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daum.net/templeeco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B19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넨)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주와불교교리-수양론강의
인과론,개운론,섭생론,
치유론,수양론,길흉론
3-6개월 과정.월20~50만원
내강010-3656-5687
기초가 있으신분만 강의합니다
단체및개인출장지도
(스님 또는 포교원)

역학수강생 모집
기초반(무료),중급반,연구반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 운영함
역학30년 유명교수님:속성 완수
인천불광사
032)508-0381
019-9007-9746

수양기도공부
- 1인 1실
- 침구 및 삼식 공양 제공
- 구돌,온돌,황토방
- 월 30만원(선착순)

055)883-2933
011-446-2933(청학사)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수(數)수리 수인작법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속로그
-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범음 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명리학, 육효, 수강생 모집
용 덕 사
(명리배우면서 절 살림 도우실 여자분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051)506-4038

秘 法 전 수
뭇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좋은 인연 맺으소서 ~
1. 삼혼칠백의 작용법(확실한 천도)
2. 약손이 되는 비법(氣)(즉석효험)
3. 도인침술법(정신병,학업성적, 빙의)
4. 7日 도인 비결법(독소배출,작관력)
5. 체면학,레이키,기공,내공, 빙의,영상법 등 영괴한 강의
-교재에 의한 각1시간 강의 총 6시간(1시간체험)-
*스님께서 직강, 시원스럽습니다. *보시료 약간
-초종파스님 누구나 배워보세요-
연락처010-3189-3525
경남 의령군 용덕면 해용사 -법경-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법당조성을 이루고자 하나 무소유의 시작으로 각 사찰 대덕 스님의 보시를 기다립니다
불보살님은 조성하고 있으나, 지장탱화, 신중탱화, 다기, 촛대등을 (목불가능) 갖추지 못하고 있어 혹, 보관중인 탱화 및 다기 촛대를 보시해 주시면 대덕스님의 큰 공덕으로 기도정진 하겠습니다
▷위치 :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23-1번지
무량암 관정스님 합장
010-6665-6990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연지암
052)298-9911

부전자리 원합니다
기도(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전화 주십시요
054)433-6315
010-4520-6787

종무원구함
PC와 숙식가능한
40세 이하의 보살님을
구합니다
011-415-5558

공양주보살님 여사무장, 사무보실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경남
011-595-3973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충북 청원군
043)297-8728
016-428-8728

경관이 좋은 사찰에서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3647-0018

절에서 기거하실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강원도 양양
010-4573-8316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053)743-7070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행자 및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찰)
055)329-1056
011-388-627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019-540-7450

행자, 공양주 구합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임휴사)
053)632-4844
010-5011-5599

함께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532-7006

선원 살림 책임지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정릉 보덕선원
02)914-4235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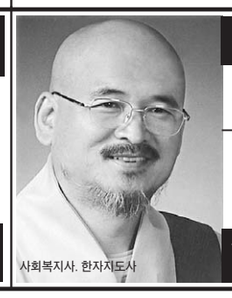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합니다 (65세 이상)
▷서울 정릉
02)917-3363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찰 행사 49재, 천도재, 불상점안, 산사음악회 (범음범패,바라,작법무,화청,전통무용)
영산회상 예술포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일겸합장)
문의 051)557-1130/011-482-2091
홈페이지 : www.천도재.kr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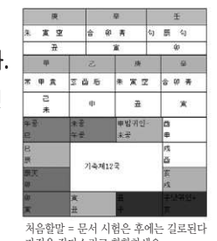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기억법으로 가장 쉽게 공부한다!!
서울 대전 사주비법
국내 최다회원보유, 검증된 학원
▶사주명리반 ▶기문둔갑반
▶실전반(기문+육임 적용풀이)
역학의 고수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학문인 사주명리학(기본), 역학의 꽃이라고 불리어지는 기문둔갑+육임을 모르고는 이 분야에 최고가 될 수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백발백중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 닿는 데는 위 학문이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도사라는 호칭이 불리어진다. 60갑자, 81연국 1시간 만에 암기하니 꼭 청강하세요..
◈ 15기 무료 공개강좌 ◈
서울 10월 22(월) 13시(주), 19시(야)
대전 10월 25(목) 13시(주), 19시(야)
★ 역학에도 비법이 있고, 공부에도 비법이 있으니 그것을 인당에서 배우세요
◈ 본 학회의 특징 및 특전◈
◈ 기억법, 연상법으로 공부하니 쉽게 암기한다.
◈ 본 학원에서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다.
◈ 5柱 10字를 이용하여 사주를 푼다.
◈ 실력이 검증된 회원들로 구성된 공동 사무실겸 사주카페를 운영한다.
인당역학연구소
02)987-6310, 984-6310
042)252-6310
서울 : 미아역 8번출구 수유리쪽 100m SK본사 맞은편
대전 : 대전역 150미터 홍명상가 제일은행 뒤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 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 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일반불자 제외〉
◆개강일 : 2007년 11월 12일 오후 3시 〈주2회 월 · 목〉
◆수강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주2회)
◆장 소 :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내 406호 (불음원)
◆과 목 :
기초반 - 예경의식 및 사시불공 등
중급반 - 사십구재의식 및 사물 다루는 법
고급반 - 바라 및 승무 작법
◆강 사 : 원명스님 〈011-867-8419〉
영 남 범 패 불 음 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개인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11. 1(수 · 목반) / 11. 2(금 · 토반)
[수시개강] 매화역수 전문가 과정 / 명리학 전문가 과정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35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영천목공예사

http://www.ycwoodart.co.kr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죽비

옻칠 수작업목탁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옻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수작업 목탁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경북 영천시 언하1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종식]

"마늘 좋은줄 알면서 냄새 때문에?"

* 흑마늘 숙성 과정



"숙성 흑마늘"이란? **토종 흑마늘을** 아무런 첨가물 사용하지 않고 일정 온도와 습도에서 자기 발효 시킴으로서 먹은 후에 입김과 함께 체내에서 냄새가 나오는 마늘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며, 마늘 본래의 유효성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원료가 되는 생마늘에 비해 항산화력이 거의 10배로 상승하며,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는 S-아릴시스테인 물질이 생성되며, 콜레스테롤의 산화 및 활성 산소 발생을 억제 예방하는 폴리페놀의 함유량이 대폭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꼼보약방가 흑마늘"이래서 믿음이 간다
* 대한민국 토종 흑마늘로 까다로운 미국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 일체의 첨가물없이 자기발효시킨 무가당, 무방부제, 무색소!!
* 전통방식의 숙성비법으로 마늘 특유의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

"늘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1박스(30팩) ₩45,000
*2박스(60팩) ₩90,000
※2박스 구입시 숙성흑마늘(판매가\18000) 2*6팩 증정

무료전화로 제품신청
080-353-5000
판매상담 : 금강선원
명정스님 ☎017-587-7193

밀양 신지식인 제1호 이용주가 개발한 흑마늘 진액은 100년 전통의 꼼보약방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했다.수십종의 건강 식품을 연구개발 판매하였지만 이 처럼 자기 이름을 내건 배짱은 제품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 설비로 정평이 나 있는 꼼보약방가 제조 공법도 매우 색다른 방법으로, 자연에서 아무런 첨가물 없이 전통 옹기에 21일간 숙성한 흑마늘을 매우 과학적인 첨단설비에 투입하여 진액만을 추출하였다. 진액으로 개발된 흑마늘이기에 냄새없고 흡수가 빠르고 그 만큼 느낌도 빠르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좋지만 특히 천근만근 무거워 일어날 때마다 힘든 남편,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과 학생, 냄새 때문에 마늘 먹기가 힘들었던 여성 분들께 강력추천한다.

*농협 946-12-362513 (예금주 최경란)

"이것저것 먹어봐도 별로였다"
-이제는 100일 숙성한 **산삼 흑산고!**



흑산고黑蒜膏
*1kg(5개월분) ₩398,000

늘 피곤하고 천근만근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 내 몸을 위해 딱히 믿고 먹을만한 건강식품의 선택이 쉽지는 않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당신의 몸을 위해 만든 건강 식품이 있다. 바로 배양근 산삼,녹용, 천마, 토종 흑마늘로 100일 동안 숙성 발효한 흑산고이다.그러나 문제는 그 좋은 산삼 녹용을 얼마나 잘 먹느냐 하는 것이다. 흑산고는 100년 전통의 꼼보약방가 명품으로 내놓은 최고의 명세당 건강식품이다.

"블랙푸드의 대표 **황제 흑마늘환**"



이용주 흑마늘환 세트
*4개월분 ₩89,000

요즘 트랜드는 맛있는 음식보다 몸에 좋은 음식이다. 보기 좋은 것이 먹기 좋다는 속설 때문에 블랙푸드는 우리에게 천대를 받아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블랙푸드가 지닌 영양학적 특징인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검은 빛깔을 띠게 되는데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해외로 수출되는 "**황제 흑마늘**"이래서 믿음이 간다



황제 숙성 흑마늘
*1개월분(2*15팩) ₩45,000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시장을 개척한 꼼보약방가 황제 흑마늘은 전통방식 발효 공법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꼼보약방가 첨단설비와 접목하여 마늘 수매에서부터 숙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위생 설비,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숙성 공정의 표준화 작업 등 엄격한 검수를 거치는 3단계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100년 전통 100년 전통 明世堂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35-1
☎ 055)353-5001~2
www.msdfarm.co.kr

紙壽千年 影潭韓紙 · 천년종이 영담한지 · 紙壽千年 影潭韓紙

영담한지미술관 직원 · 수련생 · 행자모집

전통한지 전문가 영담스님 문하에서 한지제작 기법과 미술관 운영 및 한지 미술작업을 돕고 배우며 함께 수행할 신심있는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직 원 0명
▷ 4년제 미술과 혹은 관련학과 졸업자
▷ 석사학위 소지자
▷ 큐레이터 희망자
▷ 45세 미만의 남녀

수련생 00명
▷ 한지 제작, 한지 천연염색 미술작업을 배우고 수련 하실 분
▷ 미술관 운영을 돕고 자원봉사 하실 분
▷ 연령 제한 없음

행 자 0명
▷ 출가 입산하여 영담스님 문하에서 전통한지 제작기법을 전수 받고 수행 정진할 뜻이 있는 분
▷ 40세 미만의 여성

※ 응모요령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씩을 2007년 10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후 면접 개별 통지 함.

※ 접 수 처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746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보갑사 영담한지미술관 사무실
FAX접수 : 054)373-3138
문의전화 : 054)373-3638



영담한지미술관 관장 영담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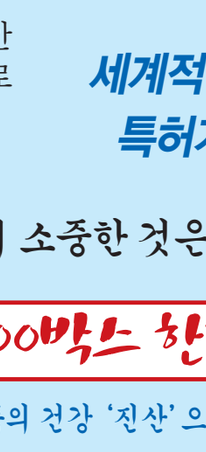
THE YOUNGDAM MUSEUM OF HAND-MADE PAPER

www.kukbukarma.com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제의 신간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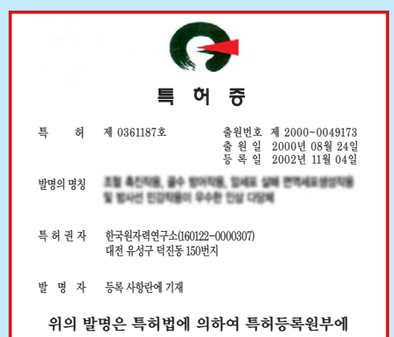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진산!!

특허권소유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면역학연구실

미 국 특허획득 (제 6555527호)
한 국 특허획득 (제 144130호)
한 국 특허획득 (제 0361187호)



특 허 증

특 허 제 0361187호
출원번호 제 2000-0049173
출 원 일 2000년 08월 24일
등 록 일 2002년 11월 04일

발명의 명칭 조절 축진치료, 골수 활성치료, 입체로 실체 면역세포생성치료 및 활성된 인감치료의 우수한 인삼 다당체

특 허 권 자 한국원자력연구소(160122-0000307)
대전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

발 명 자 등록 사항란에 기재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2년 11월 04일

특 허 청 청장

※본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효능 효과 및 발명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진산" 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산은 인삼에서 추출한 소량의 특허성분으로서 적은 생산량과 고가의 가격으로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으나 금번 고농축의 진산겔이 출시됨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진산을 구입할 수 없었던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연구개발로 국내외 특허가 증명해주는 '진산'

인삼속 진주 '진산'이란?
- 인삼 1톤에서 30㎏ 정도의 극히 적은양 만이 추출되는 인삼 다당체로서 국내 유일의 특허 물질(특허 144130호, 0361187호)
-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한국 원자력병원에서 13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하여 특허소유
- 진산을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주)코인텍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으로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효능 효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가족! 건강! 생명!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 제품구성: 진산겔 1박스(20g×60포)

500박스 한정판매

온가족의 건강 '진산'으로 지키십시오!

• 특별공급가격
~~605,000~~원··· 198,000원

원자력 병원이 개발한 세계적인 특허로 만든 진산 膏(고)



• 진산고 특별보급 10셋트



제조원 (주)코인텍 발명처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팀 구입문의 080-035-0303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 丈 慧泰 竹山

宗務總理 釋 摩 定　理 事 長 釋解愚
副 總 理 釋 大 虛　副理事長 釋解釋

事務總長 釋 慧 照



▌교육원 향수문화원
- 방생장소로 최적지
- 법당, 대강당, 요사채
- 버스 50여대 주차가능

※ 방생법회 이용 문의 바랍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입구 (충주호)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7 전화 02)496-3951~3 / 팩스 496-3950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 장 회암

고 문 송산 혜안 무송
부회장 마정 정림

이 사 법천 법인 혜명
향운 도법

사무총장 법봉

회원일동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0 연화사 전화 02)3436-0796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대허　연수원장 지성　감찰원장 정혜　포교원장 혜정
호법원장 도암　중앙종회의장 태화　불교예술원장 도연　비구니회장 대광

대한불교대원종 종도일동



신규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 신풍사 055)346-2910
◆기도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913 오세암 055)521-1878
◆연수원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466-1 도양사 054)956-9666
◆무료전화 080-3030-5959 팩스 055)346-2909
◆큰스님 直 055)346-2908 / 011-869-8608
◆한글 홈페이지 대한불교대원종 또는 http://cbc108.tv:9004
e-mail: asp8990@hanmail.net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3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석정관

총무원장 도 법

임원 및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66-7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2)391-8583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원광종

종 정 능허 대종사
총무원장 법륜

종의회의장 선진
규정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민
문화원장 법원　포교원장 경산

총무부장 진공　기획부장 도현　사회부장 도각
문화부장 도성　포교국장 혜암　문화국장 혜지

종정예경실장 도연　강원도종무원장 진각
경기남부종무원장 혜안　경주종무원장 청암
전남종무원장 경진　충남종무원장 보선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 :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1-3번지 전화02)802-1740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도일동

◆ 각 사암 등록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행자, 동자(예비스님) 모집합니다.

■ 참선기도도량 고원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 전화 054)383-5005, 382-3397

■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 /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타인의 일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㉞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

아파도 티 낼 수 없다

"이번 여행에서 부처님께 혼났지 뭐예요. 마음을 잘 써야겠어요."

M씨는 직장 팀의 1박 2일 가을 여행 동안 중요한 경험을 했다. M씨는 팀의 총무로서 일정을 진행하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 30여명을 태운 버스가 서울을 출발하자 음료수 등을 나누어 주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뜻밖에도 머리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다.

한 시간 쯤 가자 이번에는 어지럽고 구토가 날 것 같았다. 차멀미 같은데 평소 멀미를 한 적이 없어 이상했다. 버스는 앞으로도 세 시간을 더 가야 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팀장과 다른 임원들은 그 사정도 모르고 대화도 하고 일도 점검하고 있었다. M씨는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오질 않았으나 아픈 티를 낼 수가 없었다. 평소 공적인 일을 할 때 개인 사정을 내세우거나 특히 병났다고 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면 '핑계이거나 의지 부족'이라고 좋지 않게 생각했었다. 좀 아프더라도 웬만하면 티를 안 내야 되고, 그래야 전체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멀미를 해 보니 견디기가 힘들었다. 티는 낼 수 없고 간신히 필요한 말만 하고 자리로 들어와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두통이 있으니 잠도 안 왔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저녁에 목적지에 도착하자 식은땀이 나고 있었다. 차를 안타니 이제 낫겠지 하고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그러나 웬일인가. 저녁을 먹은 후 다시 머리가 아파왔다. 체한 것 같았다. 비상 두통약을 먹었으나 이상하게 듣지를 않았다. 저녁 일정 내내 M씨는 고통을 참았다. 아프다고 말하고 방에 드러누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

> 직장 MT중 건강 이상 증세로 곤욕
> 타인의 아픔에 무심했던 자신 반성
> 직접 겪어봐야 남의 고통 제대로

러나 임원으로서 함께 진행을 안 할 수도 없었다. 총무가 얼굴을 보고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네, 조금요" 하고는 다시 이를 악물고 필요한 일들을 했다. 밤에는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다. 마침내 숙소로 들어와 자리에 눕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내일도 종일 일정, 또 저녁에는 버스 네 시간을 탈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문득 '왜 그렇게 티를 내?'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러면서 바로 지난 봄 여행이 떠올랐다. 그때 옆자리에 앉게 된 동료 K씨가 버스를 타자 곧 아프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머리를 자꾸만 자기 어깨에 기대는 것이었다. 같은 여자끼리지만 M씨는 왠지 거북했다. '차멀미 좀 한다고 왜 그렇게 티를 내?' 하며 싫은 마음이 났다. 그래서 슬쩍 어깨를 빼곤 했다. 일정 동안 K씨는 자주 방에 가서 누워 있곤 하여 다른 사람들이 걱정했었다. 그 때도 M씨는 '아파도 좀 참지. 의지가 강하면 견딜 수 있을 텐데 티를 내서 전체에게 지장을 주는군'하며 볼 때마다 경멸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직접 아파보니 장난이 아니었다. "아이고, 관세음보살, 도와주세요"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좀 참지, 왜 그렇게 티를 내?'하는 자신의 음성이 또 들려왔다.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느낌이 드는 소리였다.

한 생각을 잘 하세요

이제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되었다. 참고 싶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해 못하고 싫어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불자로서 마음공부 한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차가운 마음을 냈으니 내가 다시 되받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타인의 아픔을 그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부정적 마음을 입력해버렸던 것이다.

"건강한 편이라 남들 사정을 잘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겪지 않은 남의 사정에 대해 함부로 마음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M씨는 요즘 '한 생각을 어떻게 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혹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차가운 마음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앵게시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국내최초 '불교상담학' 신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2008학년도부터 불교상담학 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불교상담학 전공을 비롯해 자아초월상담학(transpersonal psychotherapy), 요가치료학, 명상학, 심신치유교육학, 뇌과학 역시 전공으로 개설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원서교부는 10월 15~25일. 면접과 구술고사로 치러질 전형은 10월 27일 오전 9시 실시된다. 합격자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02)890-2800,www.sgsb.ac.kr

●**법왕사 백고좌 회향 기념행사**=대구 법왕사가 7월 4일 시작한 제17회 백고좌 법회의 회향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0월 16일 오전 11시에는 후불탱화봉안법회를,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회향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회향일인 17일 오전 11시 법주사 회주 혜정 큰스님을 모시고 보살계불명수지대법회를 봉행한다. 18일에는 화엄사 천은사 태안사를 도는 삼사순례법회가 열린다. 19~21일 봉정암 순례법회도 준비된다. (053)766-3747

●**2007 한사랑 가족문화축제**=부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10월 19~20일 2007 한사랑가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금사탑마트 야외무대에서 벌어질 가족문화축제는 마술, 수화, 댄스, 세대별 문화축제, 7080 통기타, 밸리댄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이주여성 문화알기,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이동건강검진, 의류 및 먹거리 장터 등으로 꾸며진다. 19일 오후 6시 청소년가요제, 20일 오후 6시 가족노래자랑은 이번 가족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 청소년 가요제와 가족노래자랑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이 마련돼 있으며 1~3등과 인기상 시상이 준비돼 있다. (051)532-0115

●**용주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화성 용주사가 10월 20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전계대화상 정락 스님(용주사 율주), 갈마아사리 무진장 스님(前 포교원장), 교수아사리 영산 스님(용주사 중앙선원 선덕)을 삼화상으로 수계가 이루어진다. 수계비용은 1인당 3만원. (031)234-0040

●**중양절 기도 및 영가천도법회**=서울 도선사가 10월 19일 오전 10시 호국참회원 3층 대법당에서 중양절 기도와 조상영가천도를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선망부모의 극락왕생, 자손들의 안녕을 부처님 전에 발원하는 기도이다. (02)993-3161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1>

정신분석과 불교-11

부처님의 교화 과정에서 정신분석적 접근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피분석자의 과거 경험에 관심을 두고, 불교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정신분석과 불교의 입장을 대별해 주는 것이 유명한 '독화살 비유'다.

<중아함경> 제60권 221. <전유경(箭喩經)>의 내용이다.

어느 날 마라가구 존자가 혼자 생각하였다.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그러나 그동안 부처님께서는 이런 소견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해준 바 없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도 궁금해진 존자는 결국 '부처님이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부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한다.

> 정신분석은 경험·불교는 현재에 관심
> '독화살 비유' 대표적… 열반의 길 모색

존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에 관해서 묻자 부처님은 독화살 비유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았다. 사람들이 그를 가엾이 여겨 독화살을 뽑으려 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화살을 뽑지 말라.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의 성과 이름과 신분, 그리고 키가 큰지 작은지, 살결이 거친지 고운지, 얼굴빛이 흰지 검은지 알아보아야겠다.' 독화살 맞은 이는 계속해서 '활을 뽕나무로 만들었는지 물푸레나무로 만들었는지, 활줄이 힘줄로 되었는지 실로 되었는지, 화살 깃이 매털로 되었는지 독수리털로 되었는지.' 알아보아야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부처님은 "결국 그 사람은 궁금해 하는 것을 다 알기도 전에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유경>에서 부처님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경계(警戒)로서 독화살 맞은 사람의 비유를 들었지만, 독화살 맞은 사람이 화살이 꽂힌 채 갖는 온갖 의문은 마치 정신분석에서 분석가가 환자의 무의식 속에 파묻힌 과거력을 캐내기 위해 애쓰는 장면과 흡사하다.

정신분석에서는 환자의 현재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 매달린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이미 흘러간 개인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전유경>에서 강조하셨듯이 "지혜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열심히 수행 정진한다.

하지만 정신분석에서 과거를 캐는 이유는 그 과거가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와 연결된 과거'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에서 과거에 관심을 두는 이유를 부처님의 독화살 비유에 대입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은 그 사람이 맞은 독화살의 촉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끝이 뾰족한지 갈고리처럼 생겼는지 알아야 살을 째고 빼낼 것인지 그냥 빼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독화살이 살에만 꽂혔는지, 뼈에까지 박혔는지, 아니면 심장까지 뚫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빼낸 연후에도 독의 종류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그에 알맞은 해독제를 처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환자의 과거 경험에 현재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재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중국 하문 국제불사 용품전람회 참관단 모집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서는 중국 하문에서 11월 초 개최되는 "국제불사 용품전람회"참관단을 모집합니다. 본 박람회는 중국내 최대규모의 불교 관련 박람회로서 불교산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박 5일의 일정동안 박람회 참관과 함께 석재,사찰건축자재, 차 및 각종 불교용품 공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도 갖게 되는, 이번 참관단 모집에 관심있는 스님 및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① **참관단 일정** : 2007년 11월 7일부터 11일 까지(4박 5일)
② **준 비 사 항**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중국비자(없으신 분은 별도 문의)
③ **비 용** : 75만원(중국비자비 별도)
④ **신 청 마 감** : 2007년 10월 25일까지(선착순 20명 예정)
⑤ **접수처 및 연락처** :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 홍보팀장 조은상
전화 02)706-3493 / 팩스 02)6280-8191 / 핸드폰 011-9807-3100

※ 일정은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국 불 교 박 람 회 사 무 국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社團法人 韓國佛教彌勒宗

宗　　正　運虛堂 淵華 大宗師

總務院長　尹 松亭
教育院長　尹 淨業
司書室長　白　山

사회복지법인 미륵원
미륵불교대학

총무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311-11 02-351-3679 FAX02-359-3605
법인사무실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관음정사
홈페이지 www.mireuk.org 대표전화 055-345-4741 FAX 055-345-4743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사)한국불교미륵종
미륵종 서울교구
서울교구 종무원장
도 일
010-2426-1766

(사)한국불교미륵종
鶴 天 寺
회주 白山
(총무원 사서실장)
주지 성호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 1555번지
055-945-1114,1600
FAX 055-945-1013

(사)한국불교미륵종
대 불 사
주지 혜능
(경기,강원 종무원장)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40-1

(사)한국불교미륵종
불 곡 사
주지 혜연
(중앙종회의원)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822번지
055-636-2414

(사)한국불교미륵종
불 연 사
주지 법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5-2번지
043-232-5447

(사)한국불교미륵종
진 흥 사
주지 혜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59-1
054-745-7220

(사)한국불교미륵종
수 월 사
주지 혜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363-25
051-852-8048

(사)한국불교미륵종
광 룡 사
주지 혜광
(경북교구 종무원장)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양1리 281-4
054-336-7333

(사)한국불교미륵종
혜광사 부산포교원
주지 혜성
(부산교구 종무원장)
부산시 북구 구포3동 1261-41

(사)한국불교미륵종
은 곡 사
주지 도성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은곡리 291-1

(사)한국불교미륵종
미륵산악회
산악회장 보성
총　무 혜연
회원일동
055-547-3469

(사)한국불교미륵종
비 구 니 회
회장 동성
총무 혜연
비구니회원일동

(사)한국불교미륵종
극 락 정 사
주지 혜인
(경남중서부교구 종무원장)
경남 밀양시 내이동 923-1번지
055-354-2108

(사)한국불교미륵종
성 불 사
주지 도신
(경남동부교구 종무원장)
울산시 북구 매곡동 393-1

(사)한국불교미륵종
현 통 암
주지 혜도
(중앙종회의원)
경남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440번지
055-356-7879

(사)한국불교미륵종
연 화 사
주지 주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86-28

(사)한국불교미륵종
금 오 암
주지 영민
(현대불교신문 서부경남지사)
경남밀양시 부북면 월산리 151번지
055-355-7472

(사)한국불교미륵종
옥 선 사
주　지 동성(비구니회장)
신도회장 반야행
관음회장 공덕화
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번지
051-531-0478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주지 원담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02)732-2183 팩스 02)720-1391
홈페이지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월정사 종무실, 제4교구 월정사 불교대학, 박물관 문화대학, 문수청소년회, 연합신도회, 거사림회, 바라밀회, 대관령불자회, 운전불자회, 진부신도회, 청년회, 린이 자모회, 연꽃합창단, 연꽃유치원 자모회, 불교학생회, 월정 선우회, 월정 사물놀이패, 강릉신도회, 강릉장애인복지관

사부대중일동 합장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홈페이지 : www.woljeongsa.org
종무소 : 033)332-6661~5 팩스 033)332-6915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지 성타

관	장	종상
학	장	덕민
선 원	장	종우
부 주 지	장	주
총 무		종천
기 획		정문
교 무		정수
재 무		종천
사 회		각천
포 교		성요
호 법		종민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전화 054)746-9912~4 팩스 054)746-1476

"현대불교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낙태, 유산) 천도 전문도량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 운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전화 02)3391-8523 / 011-9002-8523

대한불교조계종 제 9 교 구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 승가대학원

회주 명성 주지 진성

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370-7100 / FAX 054)371-0359 www.unmunsa.or.kr

